



2011

지역기반 제3섹터 조직의 복지활동과 발전방안

A Study on the Social Welfare Activities of Community-based
Third Sector Organizations

신 경 희

지역기반 제3섹터 조직의 복지활동과 발전방안

A Study on the Social Welfare Activities of Community-based
Third Sector Organizations

2011

■ 연구진 ■

연구책임 신 경 희 • 복지문화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연구원 정 순 주 • 복지문화연구실 연구원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요약 및 정책건의

1. 연구배경 및 목적

- 복지혼합 차원에서 사회복지 공급의 한 축으로 제3섹터 조직에 대한 기대 증대
 - 최근 우리사회에서 복지국가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사회복지에서 국가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음. 한편 비영리민간단체와 사회적 경제 조직이 증가하면서, 이들 제3섹터 조직이 사회복지 공급의 한 축으로 역할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 우리나라는 2000년대 들어 공공의 복지 사업을 대행하는 비영리민간조직 이외에 지역에 기반하여 자발적으로 복지활동을 수행하는 다양한 유형의 제3섹터 조직들이 나타나고 있음.
- 제3섹터 조직에 대한 연구조사 및 정보 미흡
 - 영국은 1990년대 후반 들어 사회복지에서 지역사회 제3섹터 조직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정책적 판단을 하고 이들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를 함. 그러나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제3섹터 조직의 활동 내용과 특성, 규모에 대한 정보가 미흡하다는 문제에 봉착함. 우리도 비영리민간단체 및 사회적 경제 조직의 복지활동을 파악할 수 있는 연구조사와 정보가 부족한 실정임.
- 이런 상황에서 이 연구는 서울의 제3섹터 조직의 특성과 복지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지역사회의 제3섹터 조직 발전과 복지활동에 대한 정책 제언을 목적으로 함.

2.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 제3섹터의 범위

—이 연구에서 제3섹터 조직은 비영리민간조직과 사회적 경제 조직을 포함함. 비영리민간조직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사회복지법인, 그리고 한국민간단체총람에 수록된 단체를 기준으로 파악함. 사회적 경제 조직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나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해 인증 및 지정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 행정안전부 지정 마을기업,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포함함. 마포구 사례 연구에서는 법적 지위가 없거나 한국민간단체총람에 수록되지 않은 비영리민간단체를 포함하였고, 사회적 경제 조직도 공공으로부터 인증·지정·인가를 받지 않은 사회적 경제 조직을 포함함.

○ 연구방법

—서울시 소재 제3섹터 조직 규모와 현황은 행정내부자료 및 시민단체 자료를 수집하고 엑셀프로그램으로 DB를 구축하여 분석함. 비영리민간조직 규모는 행정안전부의 비영리민간단체 내부자료, 한국민간단체총람에 등재된 시민단체, 보건복지부 사회복지법인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파악함. 사회적 경제 조직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서울고용노동청, 서울시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도출함.

—마포구 제3섹터 조직 사례연구는 제3섹터 조직 대표자 및 실무자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주로 이루어짐. 전화 인터뷰와 이메일 인터뷰 조사를 한 단체도 각각 1개임. 심층면접조사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심층면접조사 전 과정을 녹취하였고, 녹취자료를 글로 풀어 자료로 활용함.

3. 제3섹터 규모와 현황

○ 비영리민간단체와 사회적 경제 조직의 증가

—서울에는 2011년 약 3,691개의 비영리민간단체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서울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의 62.1%가 2000년대 이후 설립된 단체이며, 최근 5년간(2006년~2011년) 단체수가 1.6배로 증가함.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2009년 서울시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2010년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지원사업 등의 사회적 경제 육성정책에 힘입어 서울에는 약 640개의 사업적 경제 사업체가 활동하고 있음. 이 중 중북 단체를 제외하면 서울에는 약 4,219개의 제3섹터 조직이 활동하고 있음.

○ 제3섹터 조직의 복지활동 참여

—서울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 분야는 보건·복지·장애 분야가 16.8%로 가장 높으며, 자원봉사 분야는 6.2%로 나타남. 한국민간단체총람 자료를 활용할 경우에도 서울 소재 민간단체의 활동분야 중 복지 분야가 20.8%로 가장 높고, 자원봉사 분야는 4.8%로 조사됨. 비영리민간조직의 약 20%가 복지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예비)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 제공, 이윤의 사회적 환원을 목적으로 수익활동을 하고 있는 만큼, 비영리민간단체와 다른 방식으로 복지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자치구별 제3섹터 조직 분포

—자치구별 비영리민간조직 및 사회적 경제 조직 분포에 차이가 있음. 비영리민간조직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종로구로 서울시 소재 단체의 17.2%(626개)가 입지했고, 이어 중구 8.1%, 마포구 8.0%, 영등포구 7.1%, 서초구와 강남구 각각 6.5% 순으로 많음. 비영리민간조직이 가장 적게 분포한 자치구는 중랑구 0.9%, 금천구 1.0%, 도봉구 1.1% 순임.

—자치구별 사회적 경제 조직 분포를 보면 사회적 경제 조직이 가장 많은 구는 마포구(70개)로 서울시의 11.0%를 차지함. 이어 종로구(9.5%), 영

등포구(7.8%), 강남구(5.6%), 중구(5.5%) 순으로 많이 입지하고 있음. 사회적 경제 조직이 가장 적은 자치구는 중랑구(1.9%), 동대문구(2.0%), 성동구(2.0%), 강북구(2.2%), 양천구(2.2%), 도봉구(2.3%), 강동구(2.3%), 금천구(2.3%), 서대문구(2.8%), 동작구(2.8%) 순으로 나타남.

4. 지역기반 제3섹터 조직의 유형과 특성

○지역기반형 제3섹터 조직 비중이 낮음

—마포구 소재 비영리민간단체 및 사회적 경제 조직 사례연구에 의하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지역기반형 단체 비중이 낮게 나타남. 제3섹터 조직을 활동영역 기준으로 광역형(수도권, 전국), 지역기반형(마포구)으로 구분하여, 공식자료(행정안전부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한국민간단체총람, 행정내부자료)를 활용한 경우에는 지역기반형 단체가 7.3%, 광역형단체가 92.7%로 나타남. 앞의 공식자료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으나 이 연구에서 찾아낸 단체를 포함하면 지역기반형 단체가 12.1%, 광역형 단체가 87.9%로 나타남. 이는 지역에 기반한 풀뿌리단체 비중이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편, 공식자료로 지역기반형 풀뿌리단체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지역기반형 제3섹터 조직의 유형과 특성

—조직 설립과정과 주체에 따라 지역기반형 제3섹터 조직은 다음 네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음. 첫 번째 유형은 공동육아협동조합 등의 자조활동으로 형성된 사회적 자본이 다양한 지역주민단체로 확대 재생산된 것으로 이 연구에서는 자조마을공동체형으로 부름. 두 번째 유형은 마포구민, 마포구 소재 노동조합, 시민단체, 진보정당 당원 등 다양한 지역주체들이 참가하여 지역운동 차원에서 조직을 결성한 것으로, 여기서는 지역운동형으로 일컬음. 세 번째 유형은 주민자치센터 공무원 지원을 받아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부녀회, 아파트부녀회 등 기존 주민자치조직에서 별도의 단체를 설립한 것으로 주민자치위원회형으로 부름. 네 번째 유형은 평생교육기관 운영자와 성인학생들이 봉사활동을 목적으로 단체를 결성한 것으로, 기관부설형으로 일컬음.

○ 조직유형별 네트워크와 활동방식

- 자조마을공동체형은 주민의 필요에 의해 한 지역에서 십여 년에 걸쳐 다양한 유형의 조직 활동을 주체적으로 해온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내 조직은 물론 공공과 광역형 비영리민간단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관계망을 구축하고 있음. 광범위한 관계망을 토대로 자조마을공동체형 조직은 마포구 내 제3섹터 조직의 허브 기능과 지원 역할을 일정 부분 수행하고 있음. 네트워크 내용은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등의 강도 높은 협력관계 수준에 이름.
- 지역운동형은 최근 1~3년 사이에 단체 활동을 시작하였고, 단체의 법적 지위가 없어서 공공사업에 참여하지는 못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사회 여타 단체들과 관계망 구축에 적극적이며, 민간재단의 기금공모사업에 참여함. 지역운동형 조직은 지역 활동 경험이 축적된 자조마을공동체형 조직으로부터 단체 운영 노하우(know-how)나 자금 등의 지원을 받기도 함.
- 주민자치위원회형은 주민자치센터와 긴밀한 협력관계망을 가지고 있으며,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부녀회와 네트워크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사회 여타 제3섹터 조직과의 교류는 없음.
- 기관부설형은 단체의 모태가 된 평생교육기관을 통해 지속적인 회원 충원이 가능함. 단체 활동 핵심이 취약계층에 성금 전달과 자원봉사이므로 지역복지시설과 주민자치센터와는 교류가 있으나, 지역의 여타 제3섹터 조직과의 교류는 없음.

5. 지역기반 제3섹터 조직의 복지활동 기여 및 한계점

○조직 유형별 복지활동 특성

- 자조마을공동체형은 주민들이 수평적·자조적 방식으로 보육과 돌봄, 교육, 보건, 문화 등의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자체 공급하고 있음. 이런 자조적 복지활동이 지역의 취약계층 주민을 대상으로 확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감. 또한 단체 복지사업 방향으로 상호적 복지활동을 강조하고, 제도권 밖의 취약계층 주민 대상의 복지활동을 명시하고 있음.
- 지역운동형도 수평적·자조적 방식의 복지활동을 지향하고 있음. 방과 후 돌봄과 같은 일부 서비스는 제도권 수혜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으로 한정하여 공공과 역할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음. 복지서비스 수혜자는 일반주민, 노인, 청년1인가구, 아동·청소년, 장애인, 저소득층 등으로 다양함.
- 주민자치위원회형은 저소득층 독거노인 식사 대접과 반찬 배달 사업을 하고 있음. 기관부설형은 저소득층 노인 식사 대접 외에 저소득층 성금 지원, 장애인복지기관 후원 등의 자선적 복지활동에 초점을 둠.

1) 복지활동 기여와 역할

○복지영역의 확대와 시너지 효과

- 제3섹터 조직으로 비영리민간단체 이외에 최근 몇 년간 사회적 경제 조직이 증가하면서 복지공급시스템이 복잡해지고 있음. 사회적 경제 조직은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해 수익금으로 비영리민간단체 복지사업을 후원하거나, 수익금으로 복지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도 함. 환경, 문화 등 다양한 영역의 제3섹터 조직들이 사회복지 분야 단체와 연계하여 취약계층 주거와 에너지복지사업, 문화복지사업을 추진하여 복지 영역이 확대되고 복지사업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남.

- 제도 복지 보완과 복지사각지대 해소 가능성
 - － 제3섹터 조직은 공공과 달리 정해진 규정이나 제도에 크게 매이지 않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제도권 밖의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위한 복지활동 및 현장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복지활동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큼.
- 사회적 배제 해소와 사회통합 매개 역할
 - － 제3섹터 조직의 복지활동은 취약계층의 물질 결핍 해소 이외에 취약계층을 지역사회로 불러내고,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사회적 배제 해소와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지역사회 특성과 틈새 복지수요에 대처
 - － 지역사회 수요가 있으나 제도권 복지에서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사업들을 하고 있음.

2) 복지활동 한계점

- 장시간 지속성을 요하는 돌봄 복지서비스 제공의 어려움
 - － 제3섹터 조직의 취약계층 대상 교육, 상담, 의료, 급식, 집수리, 문화 사업은 주민 자원봉사로 해결할 수 있음. 그러나 장시간에 지속성을 요하는 노인돌봄서비스는 제3섹터 조직에서 품앗이나 자원봉사방식으로 제공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거동이 힘든 재가노인 돌봄은 장시간 노동에 노동 강도가 높고 보육이나 방과후교실과 같은 돌봄서비스에 비해 1인당 돌봄 비용이 높아 제3섹터 차원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복지서비스로 파악됨.
- 서비스 중단 가능성
 - － 주민 재능기부 및 기금사업을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자원봉사자가 활동을 그만두거나, 기금지원을 받지 못하면 서비스가 중단될 가능성이 있음.

- 상근인력 및 재정 제약으로 서비스 규모의 한계
 - 상근활동자가 대부분 1명이거나 없는 경우도 있어, 제3섹터 조직이 제공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규모에는 한계가 있음.

3) 지역기반 제3섹터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주체

- 공공부문
 - 중앙 및 지방정부는 정책이나 공무원을 통해 지역기반 제3섹터 조직 설립과 운영 활성화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한편, 제3섹터 조직을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함.
- 공공지원 비영리기관
 - 공공의 예산 지원으로 운영되는 비영리기관들은 다양한 유형의 제3섹터 조직을 네트워킹하는 허브 기능과 지원 역할을 하고 있음.
- 광역형 비영리민간단체
 - 광역형 비영리민간단체는 지역사회 내 제3섹터 조직 설립을 지원하거나, 지역운동 차원에서 지역기반 제3섹터 조직들과 공동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마을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과 같은 별도의 사회적 경제 조직을 재생산하고 있음. 복지기금을 조성하여 지역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소규모지역단체에게 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음.

6. 정책 제언

- 지역기반 제3섹터 조직의 발전과 복지활동 활성화를 위해 두 가지 차원

에서 정책 제언을 함. 먼저 서울에는 마을공동체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지역기반형 제3섹터 조직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지역기반 제3섹터 조직 형성과정에서의 공공 역할에 대한 제언을 함. 이어 지역기반 제3섹터 조직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활동성과를 높일 수 있는 공공 협력시스템에 대한 제언을 함.

1) 지역기반 제3섹터 조직 형성과 공공의 역할

○공공 지원의 필요성

-제3섹터 조직에 대한 공공의 관여와 지원이 제3섹터 조직 발전에 기여한다는 입장과 제3섹터 원동력인 자발성을 약화시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 있음. 지역기반 제3섹터 조직은 주민생활과 지역의 문제를 자치와 상호호혜, 협력에 기반하여 해결해 나가는 마을공동체 형성의 매개 역할을 함. 서울의 경우 기존 주거지와 주민을 해체시키는 개발사업이 도심 전역에 걸쳐 지속적으로 진행되면서 마을공동체를 이루는 물적 기반을 약화시켰고, 이는 지역기반형 제3섹터 조직 형성의 어려움으로 이어짐. 마을공동체 형성의 매개역할을 하는 지역기반형 제3섹터 조직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서울의 상황에서 제3섹터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공공의 관여와 지원이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봄. 마포구 사례연구에 의하면 지역단체 설립에 학습효과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한 예로 성산1동 성미산마을을 중심으로 십여 년 넘게 축적된 주민단체 활동과 성과가 지역사회에 알려지면서 학습효과를 통해 마포구에 새로운 제3섹터 조직 형성에 영향을 줌. 지역기반형 제3섹터 조직 설립에 학습효과가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공공이 학습효과 확산을 지원하는 전략으로 지역기반형 제3섹터 조직 형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

○지역사회 특성과 조직유형별 지원전략

-지역기반 제3섹터 조직을 확충하기 위해 서울시, 자치구, 주민자치센터

는 지역 특성과 조직 유형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확충 및 지원전략을 취할 수 있음. 첫째, 시민단체가 없거나 주민활동이 약한 지역사회에서는 공공이 기존 주민자치조직을 지원하여 새로운 조직 설립을 유도하는 전략을 취할 수 있음. 기존 주민자치조직에서 지역의 문제 해결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유형의 제3섹터 조직을 만들어 활동할 경우, 지역 활동에 참여하는 주민이 늘어나고 주민들 간 교류가 촉진될 가능성이 커짐. 복지수요가 많으나 재정자립도가 낮고 지역기반형 제3섹터 조직 활동도 미흡한 자치구의 경우에는 전략적으로 기존 주민자치조직을 기반으로 새로운 유형의 단체를 파생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 공공(서울시, 자치구,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은 주민자치조직 위원이나 주민을 대상으로 여타 지역사회의 제3섹터 조직 활동 모범사례 소개, 강좌, 탐방프로그램 지원을 하는 것임. 교육 및 논의 과정을 거쳐 새로운 주민 조직 설립단계에서는 조직의 법적 형태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부터 공간 지원, 활동자 리더십 교육과 운영 컨설팅 등까지의 지원사업을 함.
- 서울시가 주민자치조직위원이나 주민 대상의 교육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자치구나 주민자치센터의 교육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전문가 파견과 교육사업을 함. 서울시는 단체설립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조직의 법적 지위와 요건에 대한 상담, 활동자 교육, 운영컨설팅 등의 지원사업을 병행함. 서울혁신기획관 산하 마을공동체담당관이 지역기반형 제3섹터 설립 관련 주민교육 및 컨설팅 지원사업의 주무부서가 되어 행정국 행정과와 협력하여 이들 사업을 추진함.
- 둘째, 지역기반 제3섹터 조직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의 평생교육기관이나 문화·복지시설을 전략거점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있음. 지역의 교육·문화·복지 시설 프로그램에 주민들이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참여자 상호 간의 신뢰가 형성되고, 이것이 동아리나 단체 결성 단계로 이어질 수 있음. 지역사회 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기관에 대

한 주민 신뢰가 형성되기 때문에 시설 운영자가 단체 결성의 매개 역할을 할 수 있음. 지역기반 제3섹터 조직을 확충할 필요가 있는 자치구는 지역의 교육·문화·복지 시설이 제3섹터 조직 결성을 촉진하도록 지원할 수 있음. 자치구는 관내의 지역사회 시설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주민조직에 대한 실태를 파악함. 서울시와 자치구는 단체 형성을 위해 시설 운영자와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원사업을 할 수 있음.

– 셋째, 최근 증가하고 있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기반으로 새로운 유형의 제3섹터 조직들이 파생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략이 있음. 최근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이 두레(일본에서는 워커스 컬렉티브(workers' collective)로 부름)를 구성하여 지역사회에서 복지활동을 하거나 마을기업을 운영하는 사례들이 나타남. 『협동조합기본법』이 2011년 제정됨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 서울시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기반으로 다양한 유형의 제3섹터 조직이 파생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음. 서울시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또는 연합회)은 새로운 제3섹터 조직(두레, 워커스 컬렉티브,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촉진하는 홍보·교육 사업을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고, 서울시는 필요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음.

2) 지역기반 제3섹터 조직과 공공의 협력체계

○ 제3섹터 조직과 공공의 복지활동 대상자 차별화

– 지역기반 제3섹터 조직은 제한적이기는 하나 제도권 복지 밖에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복지 서비스나 물적 지원을 하고 있음. 그리고 지역사회 수요가 있으나 제도권에서 대응하거나 제공하기 어려운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어 제도권 복지의 보완 역할을 하고 있음. 따라

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 선정 기준의 엄격성과 경직성으로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이 많은 현 상황을 고려해 공공과 제3섹터 조직의 복지수혜대상자를 차별화할 필요가 있음.

- 자치구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제3섹터 조직과 협의하여 제3섹터 조직이 복지활동 대상자로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에 초점을 둘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음. 이를 위해 지역사회에서 복지활동을 하고 있는 제3섹터 조직을 자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원으로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함. 자치구는 제3섹터 조직이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함. 법정계획인 자치구 지역사회복지계획에서는 지역기반 제3섹터 조직의 복지활동과 자치구의 복지활동 차별화 전략을 제시하고 복지자원 동원계획과 함께 배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지역사회에서 복지활동을 하고 있는 제3섹터 조직이 자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자치구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한 주체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함.

○ 제3섹터 조직과 공공의 복지서비스 공급 차별화

- 지역기반형 제3섹터 조직이 제공하기 용이한 복지서비스와 그렇지 못한 서비스가 있음. 교육·문화사업, 상담, 일시 의료, 급식, 집수리 지원사업은 주민 재능기부를 통해 제3섹터 조직에서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이 가능한 서비스임. 반면 장시간 반복적이고 지속성을 요구하는 돌봄서비스는 제3섹터 조직이 자원봉사로 제공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돌봄서비스 중에서 제3섹터 조직이 자원봉사로 무료로 특히 제공하기 어려운 서비스는 와병 중인 재가노인 돌봄서비스로 나타남. 무료 방과 후 보육서비스의 경우 2명의 상근교사가 약 20여명의 아동을 공동공간에서 돌볼 수 있기 때문에 아동 1인당 투여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아,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제3섹터 조직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임. 재가와병노인 돌봄

서비스는 요양보호사 1명이 개별 가정을 방문하여 1명의 노인을 장시간 돌보아야 하는 노동 강도가 높은 서비스이므로, 노인 1인당 투여비용이 높음. 따라서 장기요양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거나 자부담을 못해 요양보호사각지대에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제3섹터 조직이 자원봉사나 후원금만으로 무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복지서비스 유형에 따른 공공과 제3섹터 조직의 역할 분담이 필요함. 지역기반 제3섹터 조직은 자원봉사나 재능기부로 제공이 가능한 교육, 문화, 상담, 급식, 집수리, 멘토링 등의 서비스 또는 비용 부담이 가능한 방과 후 보육서비스를 제공함. 따라서 공공은 자원봉사만으로 감당하기 어렵고 비용 부담이 큰 재가노인 및 재가장애인 돌봄서비스 제공에 복지에 산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

○공공의 홍보 및 만남의 장 매개 역할

-지역기반 제3섹터 조직은 주민의 후원과 참여로 운영됨. 주민들에게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제3섹터 조직에 대한 홍보와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제3섹터 조직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음. 그러므로 자치구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제3섹터 조직의 위치와 활동을 소개한 종합안내책자를 발간하여 주민에게 배포함.

-2011년 마포구 요청으로 마포문화재단이 처음으로 시도한 제1회 나눔페스티벌처럼 관내의 제3섹터 조직들이 모두 참여하는 행사를 매년 정례화하는 방안이 있음. 협동조합의 날, 사회적기업 주간에 사회적 경제 조직과 비영리민간단체를 포함한 제3섹터 한마당을 개최하여 행사의 시너지 효과를 거두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음.

○제3섹터 조직 간 네트워크 사업의 지원

-지역기반형 제3섹터 조직들은 상근인력과 물적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활동하고 있음. 이런 제약조건에서 활동성과와 지역사회의 복지활동과 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체 간 정보 및 자원공유, 공동사업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서울시나 자치구는 제3섹터 조직이 정례적으로 만나서 정보교류를 할 수 있는 모임이나 만남의 장을 매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 서울시나 자치구는 제3섹터 조직 간 네트워크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사업은 공공이 지원하는 복지·문화·교육 시설과 제3섹터 조직들이 주관할 수 있음.

목 차

제1장 연구개요	3
1. 연구 배경과 연구목적	3
2.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6
제2장 제3섹터와 복지	9
제1절 제3섹터의 개념	9
제2절 제3섹터의 발전 배경	11
제3절 제3섹터와 복지혼합	14
제3장 제3섹터 규모와 현황	19
제1절 제3섹터 조직 유형과 자료 출처	19
제2절 서울시	22
1. 비영리 조직	22
2. 사회적 경제 조직	32
3. 제3섹터 조직	36
제3절 마포구	37
1. 비영리 조직	37
2. 사회적 경제 조직	39
3. 제3섹터 조직의 특성	41
제4장 마포구 제3섹터 조직 사례연구	49
제1절 조사개요	49
제2절 조사결과	54
1. 단체 유형과 특성	54

2. 네트워크와 활동 방식	71
3. 복지활동과 특성	81
4. 지역기반 제3섹터 조직 형성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체	107
제5장 결론 및 제언	119
제1절 요약 및 정책 시사점	119
1. 제3섹터 조직 규모와 활동분야	119
2. 지역기반 제3섹터 조직의 유형과 특성	120
3. 지역기반 제3섹터 조직의 복지활동 기여 및 한계점	122
4. 지역기반 제3섹터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주체	125
제2절 정책 제언	125
1. 지역기반 제3섹터 조직 형성과 공공의 역할	126
2. 지역기반 제3섹터 조직과 공공의 협력체계	130
참고문헌	137
영문요약	141

표 목 차

〈표 3-1〉 서울 소재 행정안전부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수	22
〈표 3-2〉 전국 및 서울 소재 사회복지법인 현황	30
〈표 3-3〉 서울 소재 비영리 조직 규모	30
〈표 3-4〉 서울 소재 사회적 경제 조직 규모	32
〈표 3-5〉 서울시 자치구별 사회적 경제 조직 유형별 분포	35
〈표 3-6〉 서울 소재 비영리 조직 및 사회적 경제 조직 규모	36
〈표 3-7〉 마포구 소재 비영리 조직 규모	37
〈표 3-8〉 마포구 소재 사회적 경제 조직 현황	39
〈표 3-9〉 마포구 소재 비영리 조직 및 사회적 경제 조직 현황	41
〈표 3-10〉 마포구 동별 제3섹터 조직 경제활동 유형별 현황	42
〈표 3-11〉 마포구 동별 제3섹터 조직 활동범위 유형별 현황	43
〈표 4-1〉 심층면접조사단체 자료출처	51
〈표 4-2〉 조사대상 단체의 활동영역과 경제활동 유무별 분류	52
〈표 4-3〉 조사대상 단체의 경제활동 및 활동영역별 유형 분류	53
〈표 4-4〉 마포구 지역기반 제3섹터 조직의 유형분류	62
〈표 4-5〉 지역기반형 제3섹터 조직 형성 및 법적 지위 취득 시기	63
〈표 4-6〉 단체유형별 복지사업과 대상자	96

그림목차

〈그림 2-1〉 비영리기관 유형별 사업체 설립시기	14
〈그림 3-1〉 전국 및 서울 소재 행정안전부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23
〈그림 3-2〉 서울 소재 행정안전부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23
〈그림 3-3〉 서울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설립시기	24
〈그림 3-4〉 서울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설립목적	25
〈그림 3-5〉 서울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설립형태	26
〈그림 3-6〉 서울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회원규모	27
〈그림 3-7〉 한국민간단체총람 서울 소재 비영리민간단체 활동 분야	28
〈그림 3-8〉 한국민간단체총람 비영리민간단체 분야별 전국 대비 서울 비율	29
〈그림 3-9〉 서울시 자치구별 비영리 조직 현황	31
〈그림 3-10〉 서울시 자치구별 사회적 경제 조직 현황	34
〈그림 3-11〉 마포구 소재 비영리 조직 활동 분야 현황	38
〈그림 3-12〉 마포구 소재 사회적 경제 조직 업종 현황	40
〈그림 3-13〉 마포구 소재 제3섹터 조직의 분포	45
〈그림 3-14〉 마포구 소재 지역기반형 제3섹터 조직의 분포	46
〈그림 4-1〉 자조마을공동체형 조직의 네트워크 유형과 활동	76
〈그림 4-2〉 지역운동형 제3섹터 조직의 네트워크 유형과 활동	79
〈그림 4-3〉 주민자치위원회형 제3섹터 조직의 네트워크 유형과 활동	80
〈그림 4-4〉 기관부설형 제3섹터 조직의 네트워크 유형과 활동	81

제1장 연구개요



1. 연구 배경과 연구목적

- 복지활동에 관여하는 복지 공급 주체가 다양해지고 있다. 사회복지 공급 주체는 보통 국가(공공), 시장, 제3섹터, 가족·이웃 등으로 유형화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유럽의 복지국가 시기(1940년대 중반~1970년대 중반)에는 복지공급 주체에서 국가의 역할이 가장 컸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 영국과 미국을 대표로 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우세해지면서 시장, 가족, 제3섹터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복지국가에서 복지사회로 복지공급 주체에 대한 논의가 넘어가고 있는데, 학자들은 복지혼합(welfare mix), 복지다원주의(welfare pluralism)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국가와 시장, 제3섹터, 가족·이웃 등이 상호 연계하면서 하나의 복지체제를 형성하고 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김기태 역, 2011).
- Martin Powell(2007)은 사회복지에서 국가와 시장의 역할이 커지면서 가족의 책임은 점차 줄어들었고, 앞으로도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에 대한 기대가 점차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그는 지역사회에게 기대되는 역할이란 시민단체와 자원기관(voluntary)을 동원

하여 사회복지와 사회보호서비스를 복지 수혜자에게 전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김기태 역, 2011).

-영국은 1997년 이후 정책결정자들이 자원·커뮤니티 영역(voluntary and community sector)이란 용어를 즐겨 사용하였다고 한다. 당시 제3의 길(Third Way)을 들고 나온 노동당의 토니 블레어 정부는 복지혼합에서 자원·지역 단체의 정책적인 역할을 중요시하여, 이들 자원·지역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준비를 하였다. 영국 정부의 자원·지역 단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커지고 있으나, 이들 조직의 활동 내용과 특성, 규모에 대한 정보가 미흡하다는 것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와 관련해 캔달은 지난 10년간 계속된 자원·커뮤니티 영역에 대한 양적·질적 연구로 이 영역의 규모와 형태, 역할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지만, 동시에 얼마나 잘 모르고 있는지도 더 잘 알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김기태 역, 2011).

-우리나라도 1990년대 이전에는 복지에서 가족의 역할이 컸으나, 점차 가족 중심의 복지가 해체되고 기업 복지도 퇴조하면서, 1990년대 들어 사회복지에서 국가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와 민영화 정책이 우세한 1990년대에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우리 정부는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을 확장하면서 정부가 재정·행정적 지원을 하고 비영리민간조직은 복지서비스 공급을 맡는 전략을 선택하였다(노대명 외, 2009). 이는 민영화 추세를 거스르지 않는 정부 나름의 해법이라 볼 수 있으나, 정부의 복지사업을 대행하는 비영리민간조직이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와 감독을 받으면서, 정부에 종속된 일종의 준공공적 기관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1990년대 후반 이후 정부의 복지사업을 대행하는 비영리민간조직 이외에 지역에 기반하여 자발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유형의 제3섹터 조직들이 나타나고 있다.

- 제2기(2011~2014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매뉴얼에서는 시·군·구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방향성으로 통합성, 참여성, 협력성을 제시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9). 참여성은 지역주민과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을 말하며, 협력성은 지역의 사회복지 공급주체로서 공공·민간 서비스 기관들 간의 협력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제2기(2011~2014년)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매뉴얼에서는 계획 내용에 지역의 복지자원(공공 자원, 민간자원, 기타) 진단을 포함할 것을 제시하고 있으나, 공공·민간을 구분하는 기준이 매우 모호하다.
-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에서 핵심 복지자원으로 언급되는 것이 사회복지시설이다. 그런데 자치구 계획에 따라 사회복지 시설이 민간 또는 공공 자원으로 혼재되어 분류되고 있다. 이는 사회복지 시설 대부분이 공공에서 민간단체에 위탁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관점에 따라 공공이나 민간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복지 시설 이외에 지역주민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비영리민간조직이 나타나고 있으나, 이들 단체를 이해할 수 있는 연구 조사와 정보가 매우 부족하다. 이런 점에서 제2기 마포구 지역사회복지계획에서는 연차별 사업 계획의 하나로 2011년에 지역 민간자원을 파악하기 위한 지역자원 총조사 실시 및 민·관 지역자원 DB 구축사업(2011년)을 제안하고 있다.
- 서울시에 지역주민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제3섹터 조직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 조직이 향후 지역복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 연구의 목적은 일차적으로 이들 조직의 특성과 복지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지역기반 제3섹터 조직의 발전과 복지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안하는 데 있다.

2.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 이 연구는 크게 4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 제3섹터와 복지는 문헌연구로 이루어졌고, 제3섹터의 개념과 제3섹터의 발전 배경, 제3섹터와 복지혼합에 대해 다루고 있다.
- 제3장 제3섹터 규모와 현황은 기존 행정 내부자료 및 시민단체 자료를 수집하여 엑셀프로그램으로 DB를 구축한 후 분석하였다. 비영리 조직 현황은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내부자료, 한국민간단체총람에 등재된 시민단체 자료, 보건복지부 사회복지법인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파악하였다. 사회적 경제 조직 현황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서울고용노동청, 서울시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도출하였다.
- 제4장 마포구 제3섹터 조직 사례연구는 제3섹터 조직 대표자 및 실무자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주로 이루어졌고, 전화 인터뷰와 이메일 인터뷰 조사를 한 단체도 각각 1개였다. 심층면접조사 단체는 기존 행정자료 및 한국민간단체총람에 등재된 단체와 등재되지 않은 단체를 포함하였다. 등재되지 않은 단체는 인터넷 온라인 카페 검색을 통해 일종의 눈덩이표집방식으로 발굴되었다. 또한 심층면접조사 단체의 인터넷 온라인 카페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내부정보를 얻고, 심층면접조사 시에 단체 내부자료를 수집하였다. 심층면접조사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심층면접조사 전 과정을 녹취하였고, 조사가 끝나고 녹취자료를 글로 풀어 자료로 활용하였다.
- 연구 진행 과정에서 전문가와 공무원이 참여한 자문회의를 2회 개최하여 연구내용과 정책제안에 반영하였다.

제2장 제3섹터와 복지

제1절 제3섹터의 개념

제2절 제3섹터의 발전 배경

제3절 제3섹터와 복지혼합

제 2 장

제3섹터와 복지

제1절 제3섹터의 개념

- 제3섹터는 국가 또는 연구 집단에 따라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 비영리부문(non-profit sector), 자원·자선부문(charity and voluntary sector), 비정부부문(non-government sector) 등으로 다양하게 불린다. 그리고 각 부문의 특성을 가진 조직들을 사회적 경제 조직, 비영리 조직, 비정부 조직으로 표현한다. 이들 용어들은 개념상 공통점이 있으나 차이점도 있어 엄밀하게 동일한 개념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 미국에서는 제3섹터가 비영리부문(NPO)과 동의어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Salamon & Anheier는 비영리부문 조직의 기준으로 다음 7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① 공식적 조직으로 정기적 모임과 상근 직원, 절차와 규정, 법인격이 있는 조직일 것, ② 민간조직으로 정부가 이사회를 통해 실질적으로 지배하지 않는 민간 주도의 조직일 것, ③ 사업 수익금을 조직 구성원들에게 이익배분 하지 않는 조직, ④ 회원들 합의에 의한 독자적 규정을 토대로 운영되는 자기결정권을 가진 조직일 것, ⑤ 자원조직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조직, ⑥ 선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조직이 아닐

것, ⑦ 정당이나 선거에 개입 활동을 하는 정치단체가 아닐 것이 그것이다(노대명 외, 2010).

- 유럽에서는 제3섹터가 사회적 경제를 지칭하는 용어로 주로 사용된다. 유럽의 사회적 경제에는 비영리단체(association) 외에도 회원 간의 상호적 성격과 수익사업을 하는 공제조합과 협동조합이 포함된다. 이는 국가와 시장경제, 시민사회의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미국이 제3섹터를 시장과 대칭적 관계로 보는 반면, 경제부문에서 연대성을 강조하는 유럽은 제3섹터를 국가와 시장과의 복합적 관계로 파악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1990년대 들어서는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기업이 확산되는 추세에서 국가나 시장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영역(제3의 섹터)에서 활동하는 거의 대부분의 민간조직을 제3섹터로 포괄하는 경향이 있다. 제3섹터의 개념이 확장되면서 최근 많은 연구자들이 실용적 관점에서 논문 서두에 제3섹터와 비영리부문, 사회적 경제를 구분 없이 사용한다고 명시하기도 한다(노대명 외, 2010).
- 이 연구에서는 비영리 조직과 사회적 경제 조직을 포괄하는 제3섹터 개념을 사용하기로 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비롯해 마을기업, 생활협동조합 등의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 조직들은 단체의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수익창출 활동을 하고, 최근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제3섹터 영역을 현실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비영리 조직과 사회적 경제 조직을 포괄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 비영리 조직의 유형이 다양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조직을 비영리 조직에 포함시킬 것인가도 많은 논의가 필요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연구대상 범위 선정에 실용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비영리 조직은 법적 자격을 기준으로 법인과 비법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비영리법인은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의료법」 등의 여

러 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비영리법인과 법인격이 아닌 비영리민간단체를 포괄하는 법으로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있다. 법인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비영리 조직이 행정관청에 등록된 경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비영리 조직의 자격을 가지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으로 등록된 단체와 사회복지법인을 비영리 조직으로 포함한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등록하지 않고 활동하는 (미등록) 비영리 조직이 있으며, 특히 지역 기반의 소규모 비영리단체는 법적 지위 없이 활동할 가능성이 높다. 이 연구에서는 법으로 등록되지 않은 비영리 조직도 포함하고 있다.

-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는 고용노동부 (지정)인증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 서울시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서울시 설립인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마을기업을 포함한다. 그리고 행정관청으로부터 인증, 지정, 인가를 받지 못했으나 단체의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해 수익활동을 하는 단체를 포함한다.

제2절 제3섹터의 발전 배경

- 제3섹터 조직이 증가하고 정책 차원에서 제3섹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사회·경제적 배경을 간략히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1980년대 들어 세계 경제화로 유럽이나 OECD 국가는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장

-
- 1)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은 다음과 같음. 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② 구성원 상호 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않을 것, ③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않을 것, ④ 상시 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일 것, ⑤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⑥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이 그것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는 단체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함.

기실업자 증가, 지역 간 격차 심화, 사회 양극화가 진행되었다. 유럽 국가들은 국가 재정 위기로 정부의 복지 지출을 삭감하는 상황에서 저소득층, 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의 사회적 배제 문제²⁾를 제3섹터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다.

- 국가의 복지 지출 삭감으로 공공의 사회서비스 공급은 감소된 반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가족 해체, 고령화 등의 사회적 변화는 사회서비스 수요를 증대시키고 있는 상황이었다. 공공으로부터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게 된 시민들은 지역사회에서 공동체 방식을 통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고, 정부 또한 제3섹터 활성화를 통해 부족한 사회서비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 우리나라의 경우 시민사회단체가 주력해온 민주화 운동이 성과를 거두고 지방자치가 시작된 1990년대 이후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1999년의 비영리민간단체 자료에 의하면 지역자치·빈민 분야 단체의 경우 1990년대 들어 설립된 단체가 86.5%를 차지하고 있다(김수현·박은철, 2000). 지역운동에 초점을 두는 풀뿌리 시민단체는 권리옹호형(advocacy) 운동보다 생활운동, 즉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복지서비스 사업에 집중하게 된다.
- 그리고 1990년대 들어 중앙·지방정부는 민간비영리단체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1999년 자료에 의하면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비영리민간단체의 52.8%가 1991년~1999년에 설립된 것으로 나타났다(김수현·박은철, 2000). 그러나 공공위탁 사회복지서비스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취약계층에 한정되어 공급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민들은 시장이나 가족을 통해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를 해

2) 사회적 배제란 경제적 빈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으로부터의 배제, 사회적 관계로부터의 배제, 특정 지역에 제한되는 공간적 배제, 복지제도 및 공공서비스 접근으로부터 배제되는 제도적 배제 등을 포괄하는 개념임(장원봉, 2006).

결해야 했다. 우리나라도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고령화, 핵가족화로 돌봄과 같은 복지서비스 수요가 사회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공공과 시장에서 양적·질적으로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1994년 마포구에서 현재 성미산마을로 불리는 지역에서 주민들 스스로가 보육 문제 해결을 위해 첫 번째 공동육아협동조합 어린이집을 설립하는 사례가 생겨났다.

- 2003년 후반기에 시작된 고용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사업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사회서비스 공급에 큰 영향을 미쳤다.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일자리사업에 대해,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수익성 등으로 인하여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보건·사회복지·교육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비영리단체 등에 의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정의하였다. 부족한 사회서비스 공급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이란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사회적 일자리사업은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이후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사회적기업 육성정책과 지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 한국노동연구원의 제3섹터 사업체 실태조사(2008년)에 의하면 사회서비스기관의 경우 사업체 설립시기가 1990년대 초반인 사업체가 11.1%, 1990년대 후반에 설립된 사업체가 19.4%로 나타나 사업체의 30.5%가 1990년대에 설립되었다. 그리고 2000년대 초반이 28.6%, 2005년 이후가 22.3%로 나타나, 사업체의 50.9%가 2000년대 들어 설립되었다. 정부의 사회적 일자리사업과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이 최근의 사회서비스 분야 제3섹터 조직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그림 2-1> 참조).



자료 : 김혜원 외, 2009, 「제3섹터 부문의 고용창출 실증연구」, 한국노동연구원.

〈그림 2-1〉 비영리기관 유형별 사업체 설립시기

제3절 제3섹터와 복지혼합

○ 제3섹터 조직에서 복지 분야 비중

— 제3섹터 조직의 활동영역에서 비중이 높은 활동분야는 복지영역이다. 서울 소재 행정안전부 등록 비영리단체 중에서 활동영역이 복지부문인 단체가 16.8%로 가장 많다(<그림 3-4> 참조). 한국민간단체총람(2009)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비영리민간단체의 20.8%가 복지영역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7>참조).

○ 복지 공급주체로서 제3섹터의 역할

— 미야모토 타로는 복지공급 주체별 강점과 약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복지공급주체로서 정부는 보편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 평등

을 실현시킬 수 있으나 권위적이며 획일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쉽다. 반면 시장은 효율적이며 선택 가능성을 넓히나 영리 지향으로 인해 불평등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크다. 가족커뮤니티는 친밀한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나, 서비스 제공의 대상을 배타적으로 한정한다. 비영리 조직은 상황에 따른 복지서비스 제공의 유연성과 대응성이 높고, 서비스 공급에 시민참여를 가능하게 하나, 활동이 아마추어리즘에 머물 수 있는 약점이 있다(임성근 역, 2003).

—복지공급주체로서 제3섹터 조직의 역할은 공공의 복지정책과 맞물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공공이 제3섹터 조직의 복지활동에 기대를 하고 지원을 한다면 복지영역에서 제3섹터 조직의 역할은 커질 것이다. Martin Powell(2007)은 복지에서 가족의 역할이 점차 줄어들고, 사회복지에서 지역사회 제3섹터에 대한 기대는 점차 커질 것이라고 한다(김기태 역, 2011). 복지혼합 정책은 국가별로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며, 제3섹터 복지역할을 강조하는 복지혼합이 복지국가 축소 전략의 일환으로 이용된다는 우려가 있다. 제3섹터 조직이 늘어나고 조직내부의 다양성과 차이점도 커지고 있으나 이 분야에 대한 양적·질적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그리고 제3섹터 조직의 복지영역에서의 역할과 기대에 대한 논의는 현재 시작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제3장 제3섹터 규모와 현황

제1절 제3섹터 조직 유형과 자료 출처

제2절 서울시

제3절 마포구

제 3 장

제3섹터 규모와 현황

제1절 제3섹터 조직 유형과 자료 출처

- 서울의 제3섹터 규모는 비영리 조직과 사회적 경제 조직의 두 유형으로 구분한 후, 중복되는 단체를 제외하고 제3섹터 조직 총수로 파악하였다. 제3섹터 조직 규모를 살펴보기 위해 조직 유형별로 사용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비영리 조직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단체³⁾ 자료와 ‘한국민간단체총람(2009년)’에 수록된 단체자료를 활용하였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사회복지법인으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를 활용하였다. 비영리 조직 규모는 이 세 자료에 등록된 단체 중에서 중복되는 단체를 제외하고 파악하였다.
- 사회적 경제 조직은 고용노동부의 (예비)사회적기업, 서울형 예비사회적

3) 중앙행정기관 및 16개 시·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최종적으로 통보되며,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민간협력과에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현황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함. 이 연구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행정안전부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로 부름.

- 기업, 행정안전부 지원 마을기업, 서울시 설립인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의 행정내부자료를 활용하여 도출하였다.
- 서울 소재 비영리 조직과 사회적 경제 조직을 포함하는 제3섹터 현황 자료는 각 행정기관의 내부자료와 시민단체 자료를 수집하여 엑셀프로그램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후 중복단체를 일일이 소거하여 완성하였다.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사업 범위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고 2개 이상의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단체는 그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장관에게, 그 외의 단체는 당해 단체의 사무소가 있는 시·도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등록 신청을 받은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그 등록을 수리하고, 등록된 민간단체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행정안전부의 등록 단체 자료를 통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의 비영리민간단체를 파악할 수 있다.
 - 시민운동정보센터가 발간하는 ‘한국민간단체총람’에는 행정안전부에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민간단체도 수록되어 있다. 한국민간단체총람은 1997년부터 3년을 주기로 작성되어 왔고, 가장 최근에 발간된 자료는 2009년 총람(5회)이다. 시민운동정보센터는 정부 각 부처에 등록된 법인 및 사회단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단체, 지역별 또는 부문별 연감, 백서, 단체자료집에 수록된 단체, 인터넷, 신문, 잡지 등에서 검색된 자료를 토대로 정부단체와 기업을 제외한 단체를 수록하고 있다.
 - 개별법에 의한 비영리법인 중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포함되어 있다.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사회복지법인은 시·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법인설립허가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고용노동부 장관 인증을 받은 기업이다.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리스트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 인증받지는 않았으나, 동법 제8조와 제9조의 요건을 완화한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을 받은 기관이다. 고용노동부의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된 기관이며,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서울시가 사회적기업으로 전환 육성하기 위하여 선정한 기업이다.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은 서울고용노동청 내부자료를,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서울시 내부자료를 활용하였다.
-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은 지역공동체에 산재한 각종 특화자원(향토·문화·자연자원 등)을 활용하고 지역공동체에 기초한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이다⁴⁾.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의 내부자료를 활용하였다.
- 생활협동조합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면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들이 자주·자립·자치를 원칙으로 설립한 조합으로서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은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 설립인가 생활협동조합은 서울시 내부자료를 활용하였다.

4) 자료 :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국, 2011, 「2011년 마을기업 육성 기본계획」.

제2절 서울시

1. 비영리 조직

1) 행정안전부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 단체 수

—서울에는 2011년 9월말 기준으로 행정안전부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 수가 2,232개로, 전국 단체(9,913개)의 22.5%가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소재 2,232개 단체 중에서 서울시에 등록된 단체는 1,253개(56.1%)이며,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가 979개(43.9%)이다. 사업 범위와 사무실이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는 중앙행정기관에 등록하게 되므로 서울 소재 비영리민간단체의 43.9%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활동하는 광역형 민간단체라고 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전국의 단체 수는 1,156개인데, 이 중 84.7%(979개)가 서울에 소재하고 있다. 즉, 전국 광역형 민간단체의 84.7%가 서울에 소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3-1>, <그림 3-1>, <그림 3-2> 참조).

<표 3-1> 서울 소재 행정안전부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수(연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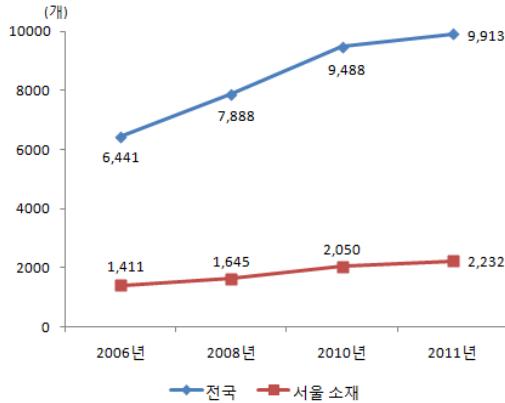
(단위 : 개(%), 개, %)

연도	서울시(a)			전국(b)	전국 대비 서울시(a/b)
	중앙행정기관 등록	서울시 등록	합계		
2006년	633(44.9)	778(55.1)	1,411(100.0)	6,441	21.9
2008년	707(43.0)	938(57.0)	1,645(100.0)	7,888	20.9
2010년	916(44.7)	1,134(55.3)	2,050(100.0)	9,488	21.6
2011년	979(43.9)	1,253(56.1)	2,232(100.0)	9,913	22.5

자료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재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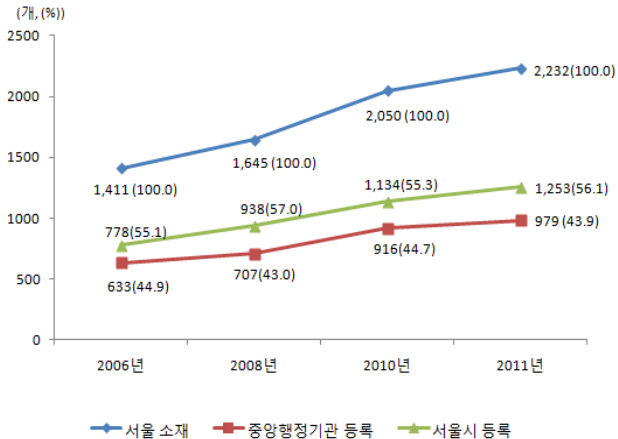
주 : 연도별 기준 시점은 9월말임.

—서울시 등록 민간단체 수는 2006년 1,411개에서 매년 증가하여 2011년 2,232개로 5년 동안 1.6배가 증가하였다. 전국 대비 서울시 민간단체 비중은 2006년 21.9%에서 2011년 22.5%로 약간 높아졌다(<표 3-1>, <그림 3-1>, <그림 3-2> 참조).



자료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재분석

<그림 3-1> 전국 및 서울 소재 행정안전부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연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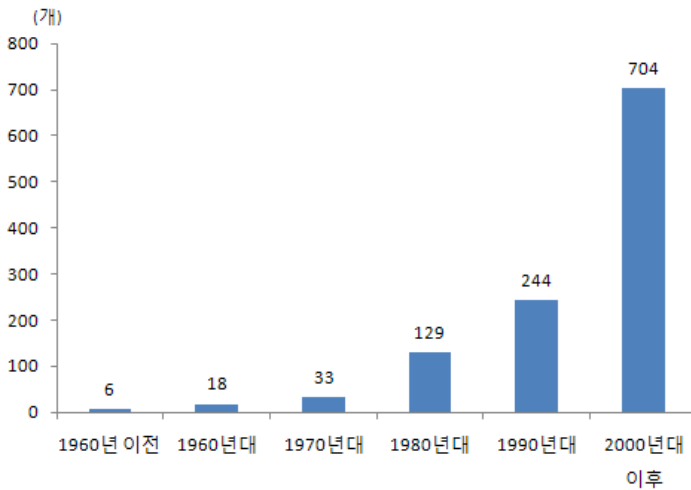


자료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재분석

<그림 3-2> 서울 소재 행정안전부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연도별)

○설립시기

—서울시에 등록된 1,134개 비영리민간단체⁵⁾ 중에서 2000년대 이후 설립된 단체가 62.1%(704개)로 가장 많아, 과반수의 단체가 최근 10년간에 걸쳐 설립된 단체임을 알 수 있다. 1990년대에 설립된 단체는 21.5%(244개)로 나타나, 서울시 등록단체의 83.6%(948개)가 1990년대 이후에 설립된 것으로 파악되었다(<그림 3-3> 참조).



자료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재분석

<그림 3-3> 서울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설립시기(2010년 9월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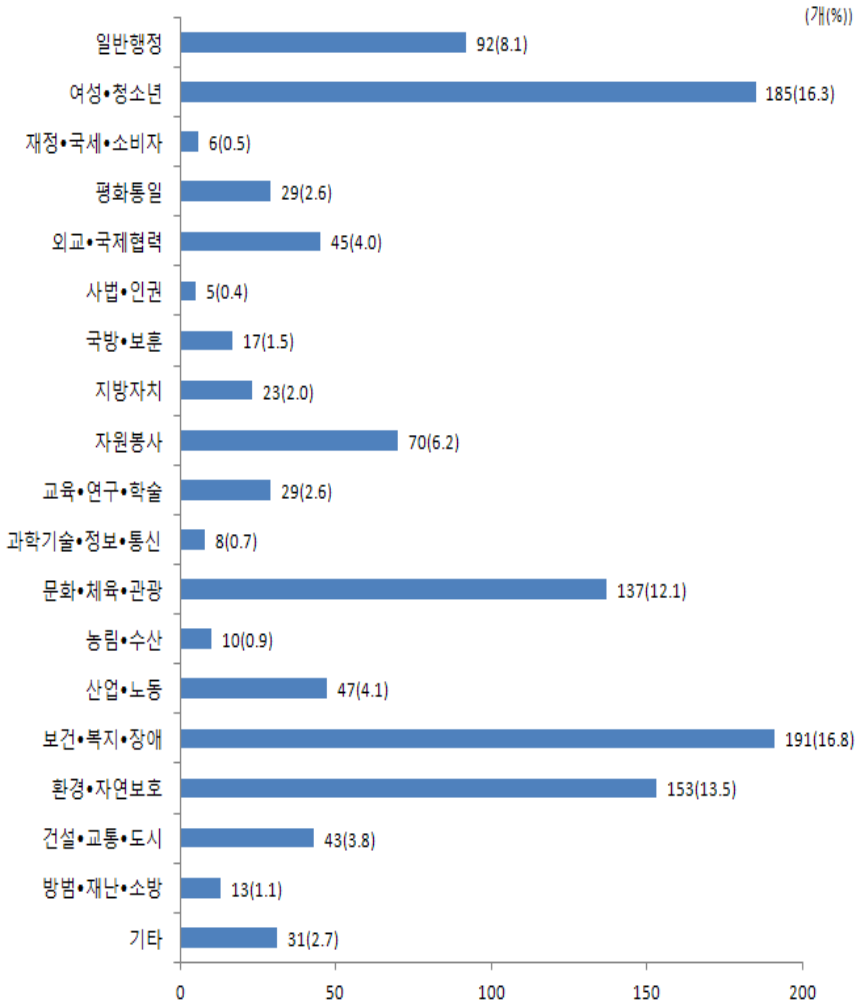
○설립목적

—서울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 분야⁶⁾는 보건·복지·장애분야가 16.8%(191개)로 가장 높으며, 이어 여성·청소년 분야 16.3%(185개), 환경 분야 13.5%(153개), 문화·체육·관광 분야 12.1%(137개) 순

5) 자료는 2010년 9월말 기준

6) 자료는 2010년 9월말 기준

이다. 반면 자원 봉사 분야의 비영리민간단체 비중은 6.2%(70개)에 불과하다(<그림 3-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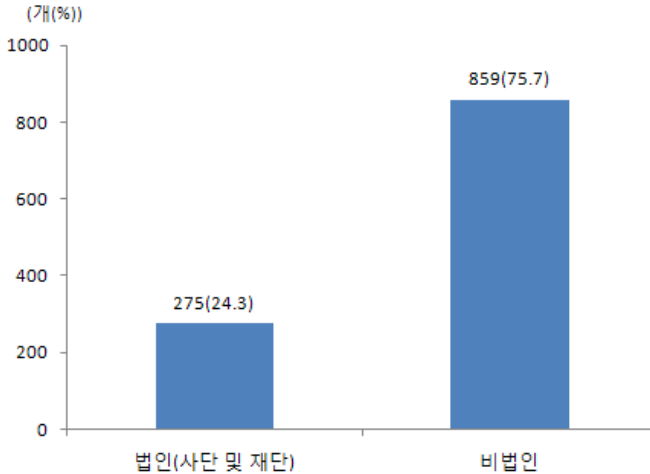


자료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재분석

<그림 3-4> 서울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설립목적(2010년 9월말)

○ 조직 설립형태

—서울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7)의 설립 시 조직유형을 법인과 비법인으로 구분해보면 법인이 24.3%(275개)이며, 비법인이 75.7%(859개)이다 (<그림 3-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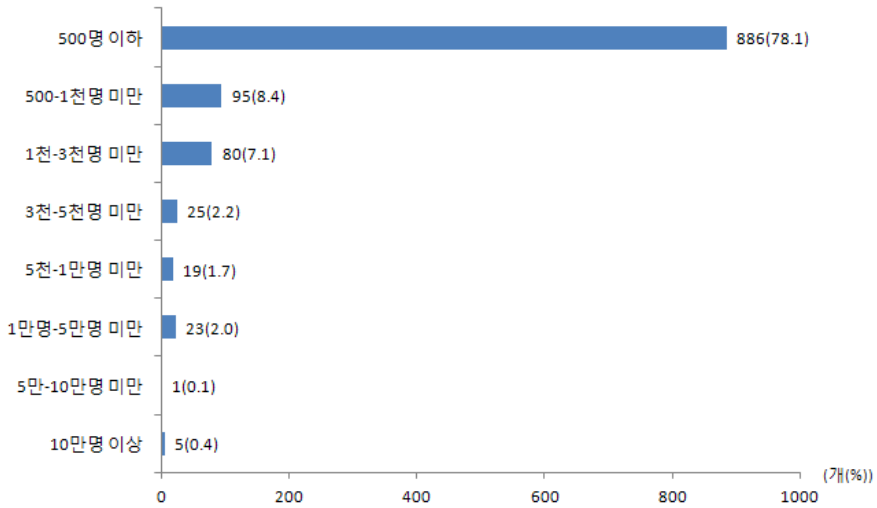
자료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재분석

<그림 3-5> 서울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설립형태(2010년 9월말)

○ 회원규모

—서울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중에서 회원수가 500명 이하인 단체가 78.1%(886개)를 차지하고 있다. 회원수가 5백-1천명인 단체는 8.4%(95개), 회원수가 1천-3천명인 단체는 7.1%(80개), 회원수가 3천명 이상인 단체는 6.4%(73개)이다(<그림 3-6> 참조).

7) 자료는 2010년 9월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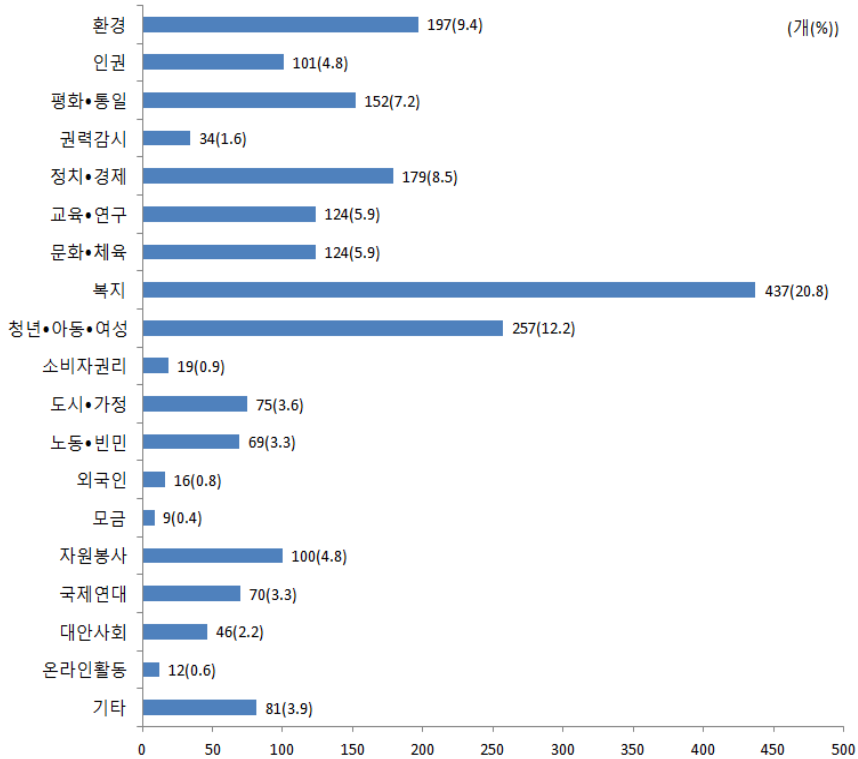


자료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재분석

〈그림 3-6〉 서울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회원규모(2010년 9월말)

2) 한국민간단체총람의 비영리민간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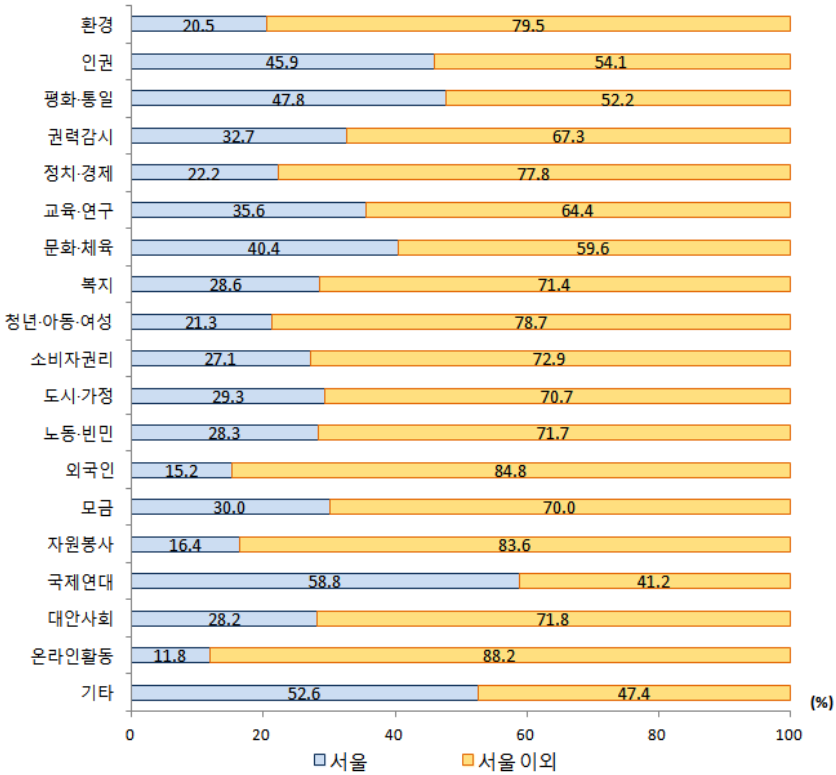
- 한국민간단체총람에 수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에서 서울 소재 민간단체 수는 2,102개로, 전국 단체(7,647개)의 27.5%로 나타났다.
- 서울 소재 단체의 활동분야는 복지 분야가 20.8%(437개)로 가장 높고, 이어 청년·아동·여성 분야 12.2%(257개), 환경 분야가 9.4%(197개), 정치·경제 분야 8.5%(179개), 평화·통일 분야 7.2%(152개), 문화·체육 분야 5.9%(124개), 교육·연구 분야 5.9%(124개), 인권 분야 4.8%(101개), 자원봉사 분야 4.8%(100개)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외 도시·가정 분야 3.6%(75개), 국제연대 분야 3.3%(70개), 노동·빈민 분야 3.3%(69개)로 나타났다(<그림 3-7> 참조).



자료 : 시민운동정보센터·재외동포신문사(2009). 「한국민간단체총람」, 시민운동정보센터 재분석

〈그림 3-7〉 한국민간단체총람 서울 소재 비영리민간단체 활동 분야

—단체 분야별 전국 대비 서울 비중을 보면 서울에는 권리옹호형(advocacy) 시민단체 비중이 전국에 비해 높다고 할 수 있다. 국제연대 분야 단체는 58.8%가 서울에 소재하며, 평화·통일 분야 단체는 47.8%가, 인권단체의 45.9%는 서울에 입지하고 있다. 문화·체육 분야 단체도 40.4%가 서울에 소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서울은 전국에 비해 권리옹호형 시민단체와 문화·체육 시민단체 비중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복지 분야의 경우 28.6%의 단체가 서울에 입지하며, 서울 소재 비중이 낮은 분야는 자원봉사 분야 16.4%, 외국인 분야 15.2%, 온라인 활동 11.8%이다(<그림 3-8> 참조).



자료 : 시민운동정보센터 · 재외동포신문사(2009). 「한국민간단체총람」, 시민운동정보센터 재분석

〈그림 3-8〉 한국민간단체총람 비영리민간단체 분야별 전국 대비 서울 비율

3) 사회복지법인

—서울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은 297개로, 전국 사회복지법인(1,718개)의 17.3%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 소재 사회복지법인 중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된 시설법인이 66.7%(198개),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지원법인은 33.3%(99개)이다. 전국 사회복지사업지원법인의 37.1%, 사회복지시설법인의 13.6%가 서울에 소재하고 있어, 서울은 사회복지사업 지원법인의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표 3-2> 참조).

〈표 3-2〉 전국 및 서울 소재 사회복지법인 현황(2010년 12월말 기준)

(단위 : 개(%), %)

구분	서울(a)	전국(b)	전국 대비 서울(a/b)
시설법인	198(66.7)	1,451(84.5)	13.6
지원법인	99(33.3)	267(15.5)	37.1
합계	297(100.0)	1,718(100.0)	17.3

자료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재분석

4) 비영리 조직 규모

—행정안전부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2,232개, 한국민간단체총람 수록 민간단체 2,102개, 사회복지법인 297개 등 총 4,631개 단체 중에서 20.1%인 940개가 중복단체로 나타났다. 중복단체를 제외한 서울시 소재 비영리 민간단체 수는 3,691개로 파악되었다(<표 3-3> 참조).

〈표 3-3〉 서울 소재 비영리 조직 규모

(단위 : 개, %)

유형		서울(a)	전국(b)	전국 대비 서울(a/b)
행정안전부	시·도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1,253	8,757	14.3
	중앙행정기관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979	1,156	84.7
한국민간단체총람 등재 비영리민간단체		2,102	7,647	27.5
사회복지법인		297	1,718	17.3
합계(*)		3,691	-	-

자료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시민운동정보센터·재외동포신문사(2009), 「한국민간단체총람」, 시민운동정보센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재분석

주1 : 행정안전부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자료는 2011년 9월말, 한국민간단체총람 등재 비영리민간단체는 2008년, 사회복지법인은 2010년 12월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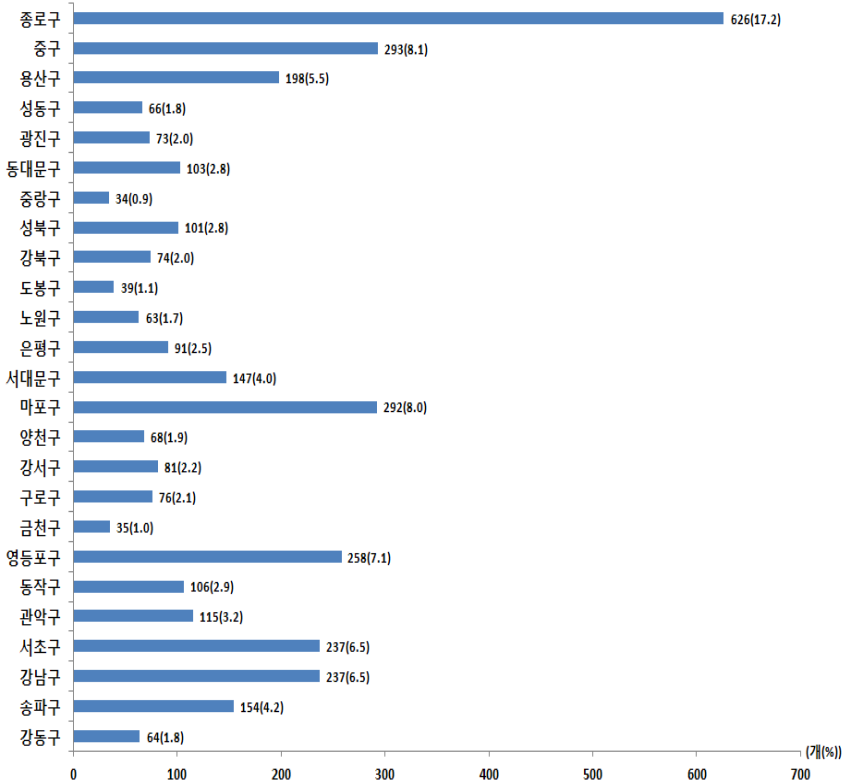
주2 : * 중복단체 제외

5) 자치구별 비영리 조직 현황

—서울 소재 비영리 조직(3,631개⁸⁾)이 가장 많이 입지하고 있는 자치구는

8) 서울 소재 비영리민간단체(3,691개) 중에서 소재가 불명확하여 구분이 불가능한 단체 60개를 제외한 3,631개를 대상으로 자치구별 분포 현황을 파악함.

종로구로 비영리 조직의 17.2%(626개)가 종로구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중구 8.1%(293개), 마포구 8.0%(292개), 영등포구 7.1%(258개), 서초구 6.5%(237개), 강남구 6.5%(237개) 순으로 비영리 조직이 많이 입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그림 3-9> 참조).



자료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시민운동정보센터 · 재외동포신문사(2009), 「한국민간단체 총람」, 시민운동정보센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재분석

<그림 3-9> 서울시 자치구별 비영리 조직 현황

2. 사회적 경제 조직

1) 사업체 수

-2011년 11월 현재⁹⁾ 서울에는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의 총 640개 사회적 경제 조직이 활동하고 있다(<표 3-4> 참조).

<표 3-4> 서울 소재 사회적 경제 조직 규모

(단위 : 개, %)

유형		서울 (a)	전국 (b)	전국 대비 서울 (a/b)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132	578	22.8
	예비사회적기업	45	-	-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332	-	-
마을기업		69	559	12.3
서울시 설립인가 생활협동조합		66	-	-
합계(*)		640	-	-

자료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or.kr); 서울고용노동청 내부자료; 행정안전부 내부자료; 서울시 내부자료 재분석

주 : * 동일 단체에서 2가지 사업으로 지정받거나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인 동시에 (예비)사회적기업인 경우 중복단체로 제외

-서울에는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이 132개가 있으며, 이는 전국 사회적기업(578개)의 22.8%를 차지한다¹⁰⁾.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은 45개¹¹⁾,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은 332개¹²⁾로, 총 377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이 있다. 서울에는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을 합해 총 509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이 활동하고 있다(<표 3-4> 참조).

9) 2011년 11월 현재 서울 소재 사회적 경제 조직 수를 최대한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각 자료의 사용가능한 최신 자료를 이용한 결과 해당 자료의 월 기준이 상이함.

10) 2011년 11월 25일 기준.

11) 2011년 3월 기준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51개 중에서 6개 기관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되어, 이를 제외한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은 총 45개임.

12) 2011년 6월 기준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377개) 중에서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되거나 자체 포기한 경우는 45개로, 이를 제외한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총 332개임.

- 행정안전부 지정 마을기업의 경우 전국 마을기업(559개)의 12.3%인 69개가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다(<표 3-4> 참조)¹³⁾.
- 서울에는 서울시장 인가를 받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66개가 있다(<표 3-4> 참조)¹⁴⁾.

2) 자치구별 사회적 경제 사업체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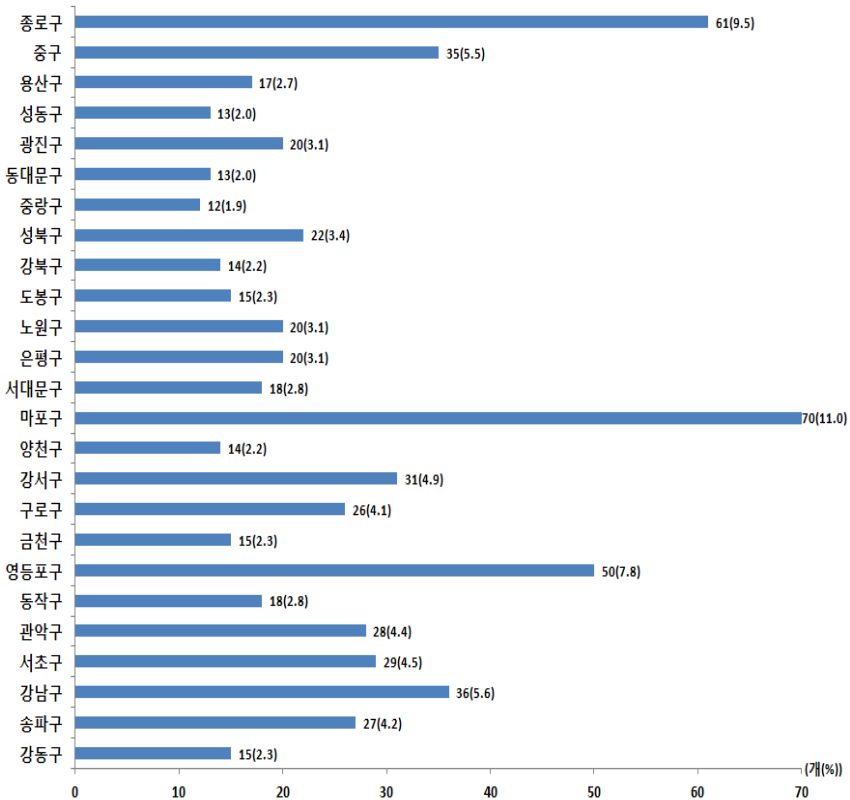
- 자치구 중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이 가장 많이 입지한 자치구는 마포구로 서울시 사회적 경제 조직의 11.0%(70개)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종로구(9.5%), 영등포구(7.8%), 강남구(5.6%), 중구(5.5%) 순으로 많이 입지하고 있다(<그림 3-10> 참조).
- 사회적 경제 조직의 유형별 자치구 분포를 보면 다음 <표 3-5>와 같다. 서울 소재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은 177개이며, 이 중 마포구에 소재한 사업체가 22개(12.4%)로 가장 많고, 종로구 19개(10.7%), 영등포구 18개(10.2%), 중구 12개(6.8%), 강남구 11개(6.2%), 서초구와 광진구 각각 10개(5.6%) 순으로 많다(<표 3-5> 참조).
-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자치구별 분포를 보면 마포구에 39개(11.8%)로 가장 많이 입지하고 있으며, 이어 종로구 34개(10.3%), 영등포구 27개(8.2%), 강남구 21개(6.3%), 중구 18개(5.4%), 송파구 16개(4.8%), 서초구 15개(4.5%) 순으로 많이 분포하고 있다(<표 3-5> 참조).
- 마을기업의 자치구별 분포를 보면 구로구가 6개로 가장 많으며, 강남구는 마을기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기업이 4개 있는 자치구는 마포구, 성동구, 중랑구, 도봉구, 서대문구, 강서구, 송파구 등 7개 자치구

13) 2011년 9월 기준 서울 소재 마을기업은 71개임. 이 중에서 2곳은 자체 포기하여, 이를 제외한 마을기업 수는 총 69개임.

14) 2011년 9월 기준

이다. 마을기업이 3개 있는 자치구는 용산구, 광진구, 성북구, 강북구, 영등포구 의 5개 자치구이다.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노원구, 은평구, 금천구, 관악구, 서초구, 강동구의 9개 자치구에는 2개의 마을기업이 있다. 마을기업이 1개 있는 자치구는 양천구와 동작구이다(<표 3-5> 참조).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마포구, 종로구, 강서구, 관악구 등의 4개 자치구로 각각 6개가 있다. 성동구와 금천구, 강동구 등 3개 자치구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5> 참조).



자료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or.kr); 서울고용노동청 내부자료; 행정안전부 내부자료; 서울시 내부자료 재분석

<그림 3-10> 서울시 자치구별 사회적 경제 조직 현황

〈표 3-5〉 서울 소재 자치구별 사회적 경제 조직 유형별 분포

(단위 : 개(%))

No.	자치구명	고용노동부			서울형 예비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서울시 설립인가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합계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	소계				
1	종로구	14(10.6)	5(11.1)	19(10.7)	34(10.3)	2(2.9)	6(9.1)	61(9.5)
2	중구	11(8.3)	1(2.2)	12(6.8)	18(5.4)	2(2.9)	3(4.5)	35(5.5)
3	용산구	3(2.3)	2(4.4)	5(2.8)	8(2.4)	3(4.3)	1(1.5)	17(2.7)
4	성동구	1(0.8)	0(0.0)	1(0.6)	8(2.4)	4(5.8)	0(0.0)	13(2.0)
5	광진구	10(7.6)	0(0.0)	10(5.6)	5(1.5)	3(4.3)	2(3.0)	20(3.1)
6	동대문구	3(2.3)	1(2.2)	4(2.3)	2(0.6)	2(2.9)	5(7.6)	13(2.0)
7	중랑구	2(1.5)	0(0.0)	2(1.1)	5(1.5)	4(5.8)	1(1.5)	12(1.9)
8	성북구	5(3.8)	3(6.7)	8(4.5)	9(2.7)	3(4.3)	2(3.0)	22(3.4)
9	강북구	4(3.0)	0(0.0)	4(2.3)	6(1.8)	3(4.3)	1(1.5)	14(2.2)
10	도봉구	1(0.8)	0(0.0)	1(0.6)	9(2.7)	4(5.8)	1(1.5)	15(2.3)
11	노원구	3(2.3)	2(4.4)	5(2.8)	13(3.9)	2(2.9)	1(1.5)	20(3.1)*
12	은평구	1(0.8)	2(4.4)	3(1.7)	13(3.9)	2(2.9)	3(4.5)	20(3.1)*
13	서대문구	4(3.0)	1(2.2)	5(2.8)	8(2.4)	4(5.8)	1(1.5)	18(2.8)
14	마포구	17(12.9)	5(11.1)	22(12.4)	39(11.8)	4(5.8)	6(9.1)	70(11.0)*
15	양천구	2(1.5)	1(2.2)	3(1.7)	6(1.8)	1(1.4)	4(6.1)	14(2.2)
16	강서구	2(1.5)	4(8.9)	6(3.4)	15(4.5)	4(5.8)	6(9.1)	31(4.9)
17	구로구	6(4.5)	0(0.0)	6(3.4)	12(3.6)	6(8.7)	2(3.0)	26(4.1)
18	금천구	4(3.0)	0(0.0)	4(2.3)	9(2.7)	2(2.9)	0(0.0)	15(2.3)
19	영등포구	15(11.4)	3(6.7)	18(10.2)	27(8.2)	3(4.3)	3(4.5)	50(7.8)*
20	동작구	1(0.8)	1(2.2)	2(1.1)	13(3.9)	1(1.4)	2(3.0)	18(2.8)
21	관악구	6(4.5)	2(4.4)	8(4.5)	12(3.6)	2(2.9)	6(9.1)	28(4.4)
22	서초구	5(3.8)	5(11.1)	10(5.6)	15(4.5)	2(2.9)	2(3.0)	29(4.5)
23	강남구	6(4.5)	5(11.1)	11(6.2)	21(6.3)	0(0.0)	4(6.1)	36(5.6)
24	송파구	2(1.5)	1(2.2)	3(1.7)	16(4.8)	4(5.8)	4(6.1)	27(4.2)
25	강동구	4(3.0)	1(2.2)	5(2.8)	8(2.4)	2(2.9)	0(0.0)	15(2.3)
합계		132 (100.0)	45 (100.0)	177 (100.0)	331** (100.0)	69 (100.0)	66 (100.0)	639* (100.0)

자료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or.kr); 서울고용노동청 내부자료; 행정안전부 내부자료; 서울시 내부자료 재분석

주 1 : * 중복단체 4곳 제외

주 2 :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중 소재 불분명한 경우 1곳

3. 제3섹터 조직

-서울에 소재하는 비영리 조직은 4,631개, 사회적 경제 조직은 644개로 이 두 유형을 합친 제3섹터 조직 수는 총 5,275개이다. 이 중 중복단체가 20%인 1,056개로 나타나, 이를 제외하면 서울에는 총 4,219개의 제3섹터 조직이 활동하고 있다(<표 3-6> 참조).

<표 3-6> 서울 소재 비영리 조직 및 사회적 경제 조직 규모

(단위 : 개, %)

유형		서울 (a)	전국 (b)	서울 대비 전국 (a/b)	
비영리 조직	행정안전부	시·도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1,253	8,757	14.3
		중앙행정기관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979	1,156	84.7
	한국민간단체총람 등재 비영리민간단체		2,102	7,647	27.5
	사회복지법인		297	1,718	17.3
사회적 경제 조직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132	578	22.8
		예비사회적기업	45	-	-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332	-	-
	마을기업		69	559	12.3
	서울시 설립인가 생활협동조합		66	-	-
합계(*)		4,219	-	-	

자료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시민운동정보센터·재외동포신문사(2009). 「한국민간단체총람」, 시민운동정보센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or.kr); 서울고용노동청 내부자료; 행정안전부 내부자료; 서울시 내부자료 재분석

주 : * 중복단체 제외

제3절 마포구

1. 비영리 조직

–마포구 소재 비영리 조직 규모를 행정안전부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와 한국민간단체총람 등재 비영리민간단체, 보건복지부 사회복지법인 자료를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규모

–행정안전부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185개, 한국민간단체총람(2009년) 등재 민간단체 177개, 사회복지법인 20개 등 총 382개 단체 중에서 20%인 77개 단체가 중복단체로 나타나, 이를 제외하면 마포구에는 총 305개의 비영리 조직이 활동하고 있다(<표 3-7> 참조).

<표 3-7> 마포구 소재 비영리 조직 규모

(단위 : 개, %)

유형		마포구 (a)	서울 (b)	서울 대비 마포구 (a/b)
행정 안전부	서울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107	1,253	8,5
	중앙행정기관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78	979	8,0
	소계	185	2,232	8,3
한국민간단체총람 등재 비영리민간단체		177	2,102	8,4
사회 복지 법인	시설법인	11	198	5,6
	지원법인	9	99	9,1
	소계	20	297	6,7
합계(*)		305	3,691	8,3

자료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시민운동정보센터 · 재외동포신문사(2009), 「한국민간단체총람」, 시민운동정보센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재분석

주 : * 중복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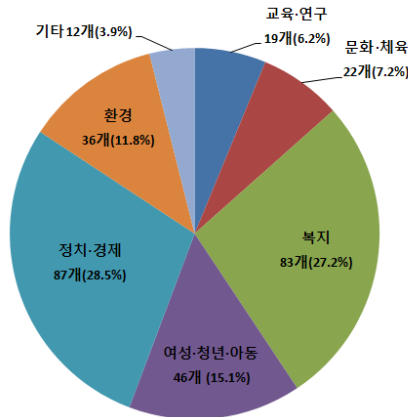
–마포구에는 행정안전부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185개가 소재하고 있으며, 이는 서울 소재 등록 비영리민간단체(2,232개)의 8.3%를 차지한다. 마포구 비영리민간단체(185개) 중 중앙행정기관 등록 단체는 42.2%(78개)이

고, 서울시 등록 단체는 57.8%(107개)로 나타났다. 마포구 소재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의 42.2%는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광역형 비영리민간단체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민간단체총람(2009)’에 의하면 마포구에 소재하는 비영리시민단체 수는 177개이며, 이는 서울 소재 비영리시민단체(2,102개)의 8.4%를 차지한다(<표 3-7> 참조).

—마포구에는 20개의 사회복지법인이 있으며, 서울시 사회복지법인(297개)의 6.7%를 차지한다. 마포구 사회복지법인 중 시설법인이 55.0%(11개)이며, 지원법인은 45.0%(9개)이다(<표 3-7> 참조).

○ 활동분야

—마포구 소재 비영리 조직의 활동분야¹⁵⁾는 정치·경제 분야가 87개(28.5%)로 가장 많으며, 이어 복지 분야 83개(27.2%), 여성·청년·아동 분야 46개(15.1%), 환경 분야 36개(11.8%), 문화·체육 분야 22개(7.2%), 교육·연구 분야 19개(6.2%)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3-11> 참조).



자료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시민운동정보센터·재외동포신문사(2009), 「한국시민간단체총람」, 시민운동정보센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재분석

<그림 3-11> 마포구 소재 비영리 조직 활동 분야 현황

15) 마포구 소재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 분야는 한국민간단체총람에서 제시된 20개 분야를 7개 분야로 재분류하였음.

2. 사회적 경제 조직

○ 규모

- 마포구에는 (예비)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포함해 총 67개의 사회적 경제 사업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이는 서울시 사회적 경제 조직의 10.5%에 해당한다(<표 3-8> 참조).
- 사회적 경제 조직 유형별로 보면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이 14개¹⁶⁾, 예비사회적기업이 5개¹⁷⁾,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이 39개¹⁸⁾로, 총 58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이 마포구에 소재하고 있다. 또한 서울 소재 고용노동부의 (예비)사회적기업의 10.7%(19개),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의 11.7%(39개)가 마포구에서 활동하고 있다(<표 3-8> 참조).
- 서울에는 69개의 마을기업이 있으며, 이 중 4개(5.8%)가 마포구에 있다¹⁹⁾. 마포구에는 생활협동조합이 6개 있으며, 이는 서울시 생활협동조합의 9.1%를 차지한다(<표 3-8> 참조)²⁰⁾.

<표 3-8> 마포구 소재 사회적 경제 조직 현황

(단위 : 개, %)

유형		마포구 (a)	서울 (b)	서울 대비 마포구 (a/b)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14	132	10.6
	예비사회적기업	5	45	11.1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39	332	11.7
마을기업		4	69	5.8
서울시 설립인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6	66	9.1
합계(*)		67	640	10.5

자료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or.kr); 서울고용노동청 내부자료; 서울시 내부자료 재분석

주 : 중복 사업체 제외

16) 2011년 11월 25일 기준

17) 2011년 3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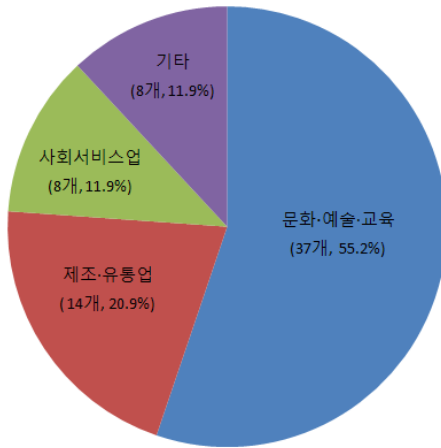
18) 2011년 6월 기준

19) 2011년 9월 기준

20) 2011년 9월 기준

○업종 현황

—마포구 소재 사회적 경제 조직(67개)의 업종별 현황을 보면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하는 사업체가 55.2%(37개)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제조·유통업을 하는 사업체가 20.9%(14개), 간병, 보육,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업과 기타가 각각 11.9%(8개)로 조사되었다 (<그림 3-12> 참조).



자료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or.kr); 서울고용노동청 내부자료; 행정안전부 내부자료; 서울시 내부자료 재분석

<그림 3-12> 마포구 소재 사회적 경제 조직 업종 현황

○제3섹터 조직 수

—마포구에는 비영리 조직이 382개, 사회적 경제 조직이 68개로, 두 유형을 합치면 총 450개의 제3섹터 조직이 있다. 이 중 21.3%인 96개가 중복 단체로 나타나, 이를 제외하면 제3섹터 조직은 총 354개이다. 서울시의 제3섹터 조직(4,219개)의 8.4%(354개)가 마포구에 입지하고 있는 셈이다(<표 3-9> 참조).

〈표 3-9〉 마포구 소재 비영리 조직 및 사회적 경제 조직 현황

(단위 : 개, %)

유형		마포구 (a)	서울 (b)	서울 대비 마포구 (a/b)	
비영리조직	행정안전부	서울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107	1,253	8.5
		중앙행정기관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78	979	8.0
	한국민간단체총람 등재 비영리민간단체	177	2,102	8.5	
	사회복지법인	20	297	6.7	
사회적경제조직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14	132	10.6
		예비사회적기업	5	45	11.1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39	332	11.7	
	마을기업	4	69	5.8	
	서울시 설립인가 생활협동조합	6	66	9.1	
	합계(*)	354	4,219	8.4	

자료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시민운동정보센터 · 재외동포신문사(2009), 「한국민간단체총람」, 시민운동정보센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or.kr); 서울고용노동청 내부자료; 행정안전부 내부자료; 서울시 내부자료 재분석

주 : * 중복단체 제외

3. 제3섹터 조직의 특성

—앞에서 파악한 마포구 354개 단체 외에 마포구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참여 단체와 마포구 사회단체보조금지원 단체, 심층면접조사 과정에서 찾아낸 단체 등 제3섹터 조직 26개²¹⁾를 추가하여 총 380개 단체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 동별 제3섹터 조직 경제활동 유형별 분포

—마포구 제3섹터 조직 380개 중에서 비영리 조직이 78.4%, 사회적 경제 조직이 21.6%를 차지한다. 제3섹터 조직의 동별 분포를 보면 서교동에 입지한 조직이 27.9%(106개)로 가장 많으며, 이어 공덕동 11.6%(44개),

21) 마포구 소재 제3섹터 조직에 추가로 구성된 26개 단체 중에는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 행정관청에서 인증 또는 지정되지 않았으나, 사회적 경제 활동을 하는 경우 사회적 경제 조직(15개 단체)으로 봄.

합정동 8.7%(33개), 성산1동 8.2%(31개), 도화동 7.6%(29개), 대흥동 6.6%(25개), 용강동 5.3%(20개) 순으로 많다. 제3섹터 조직이 10개 미만인 동은 망원 2동(3개), 망원 1동(5개), 염리동(6개), 성산 2동(8개)의 4개 동이다(<표 3-10>).

〈표 3-10〉 마포구 동별 제3섹터 조직 경제활동 유형별 현황

(단위 : 개(%))

동별	비영리 조직	사회적 경제 조직	합계
공덕동	40(90.9)	4(9.1)	44(100.0)
아현동	9(75.0)	3(25.0)	12(100.0)
도화동	27(93.1)	2(6.9)	29(100.0)
용강동	18(90.0)	2(10.0)	20(100.0)
대흥동	20(80.0)	5(20.0)	25(100.0)
염리동	4(66.7)	2(33.3)	6(100.0)
신수동	9(75.0)	3(25.0)	12(100.0)
서강동	17(89.5)	2(10.5)	19(100.0)
서교동	81(76.4)	25(23.6)	106(100.0)
합정동	28(84.8)	5(15.2)	33(100.0)
망원1동	4(80.0)	1(20.0)	5(100.0)
망원2동	2(66.7)	1(33.3)	3(100.0)
연남동	10(62.5)	6(37.5)	16(100.0)
성산1동	17(54.8)	14(45.2)	31(100.0)
성산2동	5(62.5)	3(37.5)	8(100.0)
상암동	7(63.6)	4(36.4)	11(100.0)
합계	298(78.4)	82(21.6)	380(100.0)

자료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시민운동정보센터 · 재외동포신문사(2009), 「한국민간단체총람」, 시민운동정보센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or.kr); 서울고용노동청 내부자료; 행정안전부 내부자료; 서울시 내부자료; 마포구청 내부자료; 마포 민중의 집 내부자료 재분석

—동별로 제3섹터 조직의 유형별 분포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덕동, 도화동, 용강동은 비영리 조직 비중이 90%를 넘으며, 성산1동은 사회적 경제 조직 비중이 여타 동에 비해 매우 높은 45.2%를 차지하고 있다(<표 3-10> 참조).

○ 동별 제3섹터 조직 활동범위 유형별 분포

— 마포구 제3섹터 조직의 87.9%(334개)는 전국 또는 서울 수도권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광역형 단체이며, 마포구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지역기반형 단체는 12.1%인 46개로 나타났다(<표 3-11> 참조).

<표 3-11> 마포구 동별 제3섹터 조직 활동범위 유형별 현황

(단위 :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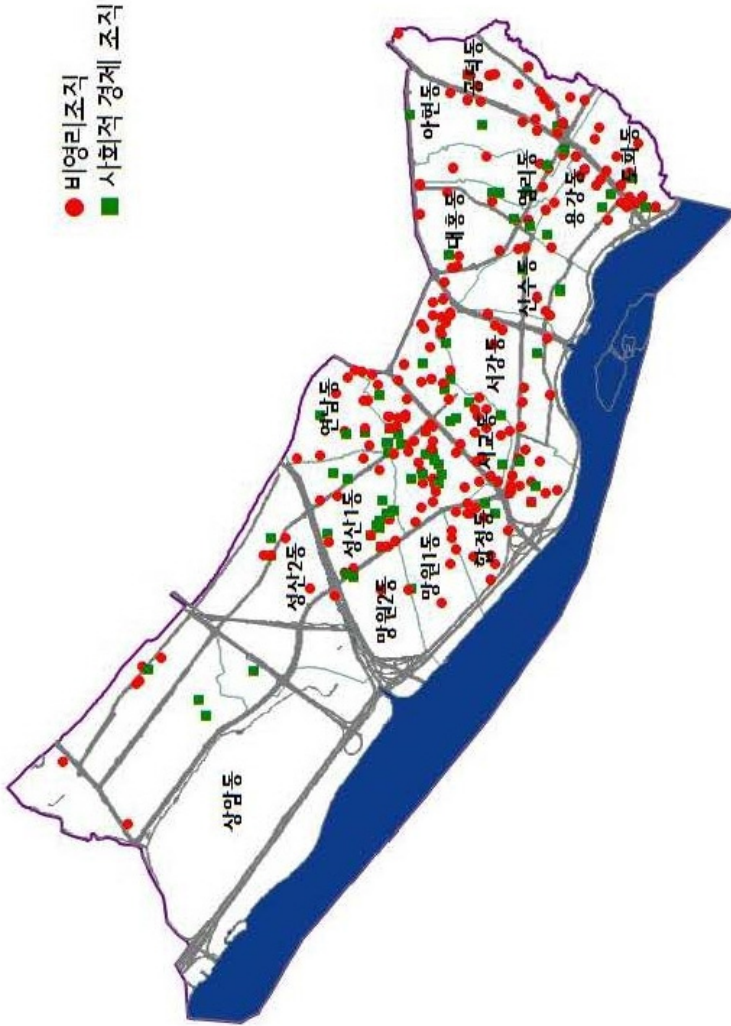
동별	광역형	지역기반형	합계
공덕동	42(95.5)	2(4.5)	44(100.0)
이현동	12(100.0)	0(0.0)	12(100.0)
도화동	27(93.1)	2(6.9)	29(100.0)
용강동	20(100.0)	0(0.0)	20(100.0)
대흥동	24(96.0)	1(4.0)	25(100.0)
염리동	4(66.7)	2(33.3)	6(100.0)
신수동	11(91.7)	1(8.3)	12(100.0)
서강동	19(100.0)	0(0.0)	19(100.0)
서교동	96(90.6)	10(9.4)	106(100.0)
합정동	31(93.9)	2(6.1)	33(100.0)
망원1동	5(100.0)	0(0.0)	5(100.0)
망원2동	2(66.7)	1(33.3)	3(100.0)
연남동	14(87.5)	2(12.5)	16(100.0)
성산1동	14(45.2)	17(54.8)	31(100.0)
성산2동	4(50.0)	4(50.0)	8(100.0)
상암동	9(81.8)	2(18.2)	11(100.0)
합계	334(87.9)	46(12.1)	380(100.0)

자료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시민운동정보센터 · 재외동포신문사(2009), 「한국민간단체총람」, 시민운동정보센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or.kr); 서울고용노동청 내부자료; 행정안전부 내부자료; 서울시 내부자료; 마포구청 내부자료; 마포 민중의 집 내부자료 재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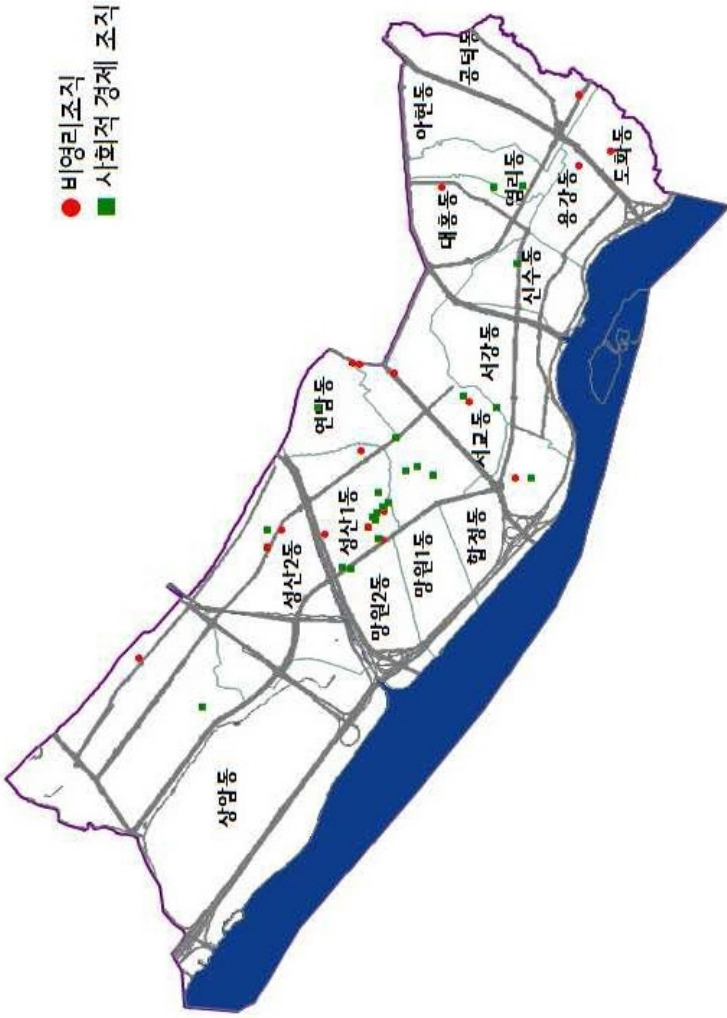
— 동별로 단체 유형별 분포에 차이가 있어, 제3섹터 조직이 30개 이상 분포한 서교동(106개), 공덕동(44개), 합정동(33개), 성산1동(31개)의 4개동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서교동(90.6%), 합정동(93.9%), 공덕동(95.5%)은 광역형단체 비중이 90%를 넘고, 지역기반형 단체 비중이 10% 이하이다. 이에 비해 성산1동은 지역기반형 단체 비중이 54.8%로

나타나 광역형단체(45.2%)보다 그 수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성미산 마을로 불리는 성산1동은 제3섹터 조직 중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과 지역 기반형 단체 비중이 여타 동에 비해 매우 높은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표 3-11> 참조).

-<그림 3-13>은 마포구 제3섹터 조직을 비영리 조직,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유형화하여 동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3-14>는 마포구 지역 기반형 제3섹터 조직을 비영리 조직과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유형화하여 동별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3-13〉 미포구 소재 제3섹터 조직의 분포



〈그림 3-14〉 미포구 소재 지역기반형 제3섹터 조직의 분포

제4장 마포구 제3섹터 조직 사례연구

제1절 조사개요

제2절 조사결과

제 4 장

마포구 제3섹터 조직 사례연구

제1절 조사개요

○ 조사방법

- 마포구 제3섹터 조직에 대한 사례연구는 조직의 설립과정과 운영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대표자나 핵심 실무자 대상의 심층면접조사로 이루어졌다. 조사가 이루어진 단체는 21개 단체이며, 이 중 19개 단체는 심층면접조사를 하였고, 각각 1개 단체는 전화 인터뷰와 이메일 인터뷰를 하였다. 심층면접에 참여한 피면접자는 총 25명이었다. 이 중 1명은 주민자치센터 공무원, 24명은 마포구 소재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무자이었다. 16개 단체는 심층면접조사 참여자가 1명이며, 3개 단체²²⁾는 참여자가 각각 2명, 3명, 4명이었다.
- 조사는 피면접자와 전화로 면접 일정을 정하고, 2011년 9월 5일부터 11월 25일 사이에 연구진이 조사대상 단체의 사무실 또는 사업장을 방문하

22) 심층면접조사 대상 단체 중에서 피면접자 수는 상암DMC봉사단 2명, 돌봄두레어깨동무 3명, 성미산마을공동체네트워크공터 4명이며, 이외 단체는 각각 1명임.

여 이루어졌다. 또한 피면접자의 동의를 얻어 심층면접조사내용을 녹취하였다.

○ 조사대상 단체 선정

- 행정안전부와 한국민간단체총람에 등재된 마포구 소재 287개 단체를 활동내용과 단체명을 기준으로 지역기반형과 광역형으로 분류하였고, 이 중 16개 단체가 지역기반형 단체로 분류되었다. 이 연구의 목적이 지역기반 제3섹터 조직이 지역사회복지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므로 일차적으로 지역기반형 조직을 조사대상 단체로 선정하였다.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지역기반형 단체 중에서 지역복지활동을 하고 있는 4개 단체(상암DMC봉사단, 양원지역봉사회, 마포희망나눔, 사람과 마을)를 선정하였다. 단체에 대한 사전 정보는 일차적으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수집하였다.
- 행정안전부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한국민간단체총람, 행정내부자료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지역기반형 단체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발굴하였다. 조사대상 단체로 선정된 단체들은 인터넷 온라인 카페 개설과 운영이 비교적 활성화되어 있었고, 온라인 카페에서 단체 간 정보 공유를 하는 경우가 있어 온라인 카페를 통한 일종의 스노우볼링 방식으로 단체를 발굴할 수 있었다.
- 지역기반형 단체 심층면접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마포구에 소재하는 일부 광역형 비영리 시민단체가 지역기반형 단체의 활동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파악되었다. 그리고 공공지원으로 설립·운영되고 있는 일부 공공형 지역비영리기관들도 지역기반형 단체와 연관되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포구 지역기반 제3섹터 조직의 생태계와 복지활동에 대한 이해와 지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광역형 시민단체와 공공형 비영리기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광역형 시민단체 4개, 공공형 지역비영리기관 3개를 조사대상에 포함하였다.

- 고용노동부와 서울시 행정내부자료를 통해 마포구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생활협동조합 등의 사회적 경제 조직 명단을 확보하였다. 심층면접조사 대상으로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역기반형 사업체 6개 중 2개를 선정하였고, 마을기업은 4개 중 1개를 선정하였다.
- <표 4-1>은 심층면접조사 대상단체 명단을 취득한 자료출처를 정리한 것이다.

<표 4-1> 심층면접조사단체 자료출처

자료유형 ²³⁾	단체명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자료	· 상암DMC봉사단 · 마포희망나눔 · 양원지역봉사회 · 사람과 마을 · 환경정의
한국민간단체총람	· 함께일하는재단 · 한국여성재단
고용노동부 및 서울시 행정자료	· 성미산마을극장 · 성산2동 성메마을 다들카페 · 마포문화재단 · 시소와그네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 · 신수동행복마을주식회사 · 여성민우회생협연합회 · 이화여자대학교 성산종합사회복지관
인터넷 온라인 카페	· 성산2동 작은도서관 ²⁴⁾ · 마포의료생협(준) · 돌봄두레어깨동무 · 마포대안공간 우리동네 나무그늘 · 마포 민중의 집 · 성미산동네금고 · 성미산마을공동체네트워크공터

○ 조사대상 단체 유형

- <표 4-2>와 <표 4-3>은 조사대상 21개 단체를 비영리 조직과 사회적 경제 조직, 그리고 지역기반형과 광역형으로 분류한 것이다. 경제활동과 관련해 비영리 조직과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분류할 경우 비영리 조직이 12개, 사회적 경제 조직이 9개이다. 비영리 조직을 자원형(voluntary)과 공공형으로 다시 분류하면 자원형 조직이 9개, 공공형 조직이 3개이다.

23)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자료와 한국민간단체총람에 동시에 등재된 3개 단체(양원지역봉사회, 환경정의, 사람과 마을)는 자료출처를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로 분류하였음.

24) 심층면접조사 당시(2011.10.12)의 성산2동 작은도서관 명칭임. 이후 '와글와글 작은도서관'으로 명칭을 바꾸어 개관함(2011.11.26).

-21개 단체 중 마포나 동네이름을 단체명으로 사용하여 지역 정체성을 나타내고, 조직의 사업목적과 활동범위가 주로 마포구에 초점을 둔 17개 단체는 지역기반형으로 분류하였다. 활동영역이 전국인 광역형 단체는 4개이다.

〈표 4-2〉 조사대상 단체의 활동영역과 경제활동 유무별 분류

(단위 : 개(%))

구분	비영리 조직			사회적 경제 조직	계
	지원형 조직	공공형 조직	계		
지역기반형	6	3	9	8	17(81.0)
광역형	3	0	3	1	4(19.0)
계	9	3	12(57.1)	9(42.9)	21(100.0)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분류된 9개 단체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기업(성미산마을극장),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신수동행복마을주식회사), 마을기업(성산2동 성메마을 다들카페), 생활협동조합(여성민우회생협연합회)으로 인증·지정·인가된 단체는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구분하였다. 둘째, 마을기업에 지원하였으나 지정받지 못한 단체(성미산마을공동체네트워크공터), 생활협동조합 인가를 준비 중인 단체(마포의료생협(준))는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분류하였다. 셋째, 마포두레 생활협동조합에서 파생된 조직으로 유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돌봄두레어깨동무), 넷째, 카페와 되살림가게 운영으로 단체 활동에 필요한 수익활동을 하는 단체(마포대안공간 우리동네 나무그늘), 다섯째, 제3섹터 조직의 협동기금사업(현재는 단체 간 상호부조계라고 할 수 있음)을 하는 조직으로 수익사업을 하지 않으나 자금 모집과 대출이란 동네금고 역할을 하는 단체(성미산동네금고)를 사회적 경제 조직에 포함하였다.

-비영리 조직으로 분류된 12개 단체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회원수입이나 후원금으로 운영되며 수익활동을 하지 않는 자원형(voluntary) 9

개 단체는 비영리 조직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수익자 부담을 통한 수익사업을 일부 하지만 공공지원으로 설립·운영되고 있는 공공형 3개 기관은 비영리 조직으로 구분하였다.

〈표 4-3〉 조사대상 단체의 경제활동 및 활동영역별 유형 분류

구분	비영리 조직(12개)		사회적 경제 조직(9개)
지역 기반형 (17개)	자원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포 민중의 집 · 성산2동 작은도서관 · 상암DMC봉사단 · 양원지역봉사회 · 마포희망나눔 · 사람과 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미산동네금고 · 마포의료생협(준) · 성미산마을극장 · 신수동행복마을주식회사 · 돌봄두레어깨동무
	공공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화여자대학교 성산사회종합복지관 · 시소와그네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 · 마포문화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미산마을공동체네트워크공터 · 마포대안공간 우리동네 나무그늘 · 성산2동 성메마을 다들카페
광역형 (4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여성재단 · 함께일하는재단 · 환경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민우회생협연합회

○ 심층면접참여자의 연령 및 성별

— 심층면접조사에 응해 준 참여자 연령은 30대 11명, 40대 6명, 50대 5명으로 30대가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성별은 여성 16명, 남성 8명으로 여성이 2/3를 차지한다.

○ 동별 분포

— 심층면접조사 단체의 사무실 및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동은 성산1동(8개), 성산2동(3개), 서교동(3개), 상암동(1개), 대흥동(1개), 공덕동(1개), 염리동(1개), 신수동(1개) 등 8개 동으로 나타났다.

제2절 조사결과

1. 단체 유형과 특성

1) 조직 형성 과정과 주체에 따른 4가지 유형

- 지역기반형 14개 단체의 설립과정과 설립주체에 근거하여 조사대상 조직유형을 다음 4가지로 유형화하였다.
- 첫째, 공동육아협동조합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지역 조직들이 만들어지고 조직 간 네트워크 활동이 지역공동체 운동으로 확장·발전하고 있는 유형이다. 성미산마을로 불리는 성산1동에 활동 거점을 두고 있는 제3섹터 조직들이 이 유형에 해당한다. 이 유형의 특징은 주민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스스로 공급하기 위해 구성된 자조조직이 점차 마을을 단위로 활동의 다양성과 영역을 확대시켜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는 이 유형을 자조마을공동체형으로 부르기로 한다.
- 둘째, 마포구에 살면서 지역공동체에 관심 있는 주민, 마포구 소재 노동조합, 진보정당(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당원,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지역운동 차원에서 단체를 결성한 유형이다. 여기서는 이 유형을 지역운동형으로 부르기로 한다.
- 셋째, 주민자치센터 공무원과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부녀회, 아파트부녀회 등이 결합하여 새로운 단체가 결성된 유형으로 주민자치위원회형이라 부르기로 한다.
- 넷째, 평생교육기관 운영자와 성인학생들이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목적으로 비영리민간단체를 결성한 유형이다. 여기서는 이 유형을 기관부설형으로 부르기로 한다.

(1) 자조마을공동체형 : 공동육아협동조합의 사회적 자본이 마을공동체 차원의 다양한 지역주민단체를 확대 재생산

- 주민들이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단체를 결성하여 서비스 공급에 직접 참여하였고, 이 과정에서 주민 간 사회적 자본인 네트워크와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 공동육아협동조합이란 자치와 참여의 서비스 공급 경험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에 필요한 여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제3섹터 조직들이 결성되어 확산·발전해나가는 유형이다.
- 성미산마을로 불리는 성산1동에 소재지를 두고 활동하고 있는 ‘사람과 마을’, ‘마포희망나눔’, ‘성미산동네금고’, ‘성미산마을극장’, ‘돌봄두레어깨동무’, ‘마포의료생협(준)’, ‘마포두레생협’ 등이 자조마을공동체형에 속한다. 성산2동에 소재한 ‘공터’는 성미산마을의 공동육아협동조합인 참나무어린이집 조합원들이 주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유형에 포함하였다.
- 1994년 보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육아협동조합 제1호 우리어린이집을 개원한 지역주민들은 주민이 주체가 되고 협력하여 필요한 보육서비스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자치 경험과 상호 신뢰를 축적하였다. 이런 경험과 신뢰를 토대로 보육서비스 이외에 이후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역사회에서 주민이 직접 제공한다는 취지하에 다양한 유형의 제3섹터 조직들,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방과후학교, 대안학교, 마을기업 등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2011년 10월 현재 35개의 마을 조직들이 활동하고 있다. 마을 동아리는 11개가 활동하고 있다²⁵⁾.
- 공동육아협동조합이란 하나의 점에서 출발한 이 유형은 이후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 여러 조직들이 만들어지면서 조직 간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는데, 점이 선으로 확장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조직들이 늘어나고 조직 간에 연결되는 선이 많아지면서 지역공동체, 즉

25) 자료 : 사람과 마을 내부자료

마을 만들기 차원으로 확장 발전되는 추세에 있다²⁶⁾.

- 주민 네트워크와 상호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 형성의 기반이 된 공동육아 협동조합은 현재에도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 형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미산 공동육아 어린이집은 2011년 10월 현재 4개로 늘어났다. 공동육아협동조합의 경우 자녀들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일정 기간에 조합원이 되므로 회원들이 고정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충원되는 구조를 가진 조직이다. 이는 지역사회에서 공동육아협동조합 경험을 가진 주민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며, 상황에 따라 지역 및 주민의 생활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자발적 주민모임 형성이 가능한 토양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다음은 성산2동에서 2011년 3월 들어 단체를 구성하여 활동하기 시작한 ‘공터’의 인터뷰 내용이다. 이 단체의 결성에도 공동육아어린이집 운영에 함께 한 부모들이 회원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연남동에 있던 공동육아 참나무어린이집이 성산2동으로 이사를 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성산 2동에도 새로운 유형의 주민단체가 생겨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나오고 학교로 가면 방과 후 문제를 고민하게 되는데 학원을 보내는 방식으로 문제를 푼기보다 같이 풀을 나누어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그런 경험들도 있고 익숙하니까... 이러다 보니 모임이 확장되고 다양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공동육아 안 했으면 마을에서 함께 하는 이런 활동 상상도 못했겠지. 성미산마을이 없었더라면 이런 공간에서 이런 활동하는 것 상상도 못했었을 수도 있고... 다른 곳도 공동육아

26) ‘고양과주 공동육아 대안교육 한마당’ 집행위원장 장호철씨는 공동육아 경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부모의 구실과 참여를 강조하는 공동육아를 경험한 부모들은 공동체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웃을 발견하고 지역사회 변화에 대한 자신감을 키운다고 함(한겨레신문, 2011년 10월 12일자).

가 있기는 하는데, 그 지역에 하나라서 좀 고립되어서 활동이 커지기 힘든 측면이 있다면... 여기는 공동육아조합이 4개라서 서로 향대하는 부모쪽(pool)도 그만큼 커지면서 또 다른 곳을 꾸면 그것을 현실화할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진다고 볼 수 있죠.” (공터 1)

“저는 2004년부터 큰아이를 공동육아했어요. 큰아이가 참나무어린이집을 졸업했고요. 둘째는 이분들(면담참여자 3명) 아이들과 참나무어린이집을 졸업했죠. 지금은 상암동에 살고... 아는 네트워크는 성산1동 그쪽 마을에 다 있는데... 성산2동으로 이사한 참나무어린이집이 마을하고 연결이 힘든 어지는 부분이 아쉬워서 이렇게 커뮤니티 센터를 여기서(성산2동) 함께 한다는 게 좋아서 참여하고 있어요.” (공터 2)

-다음 내용은 10여년의 세월 동안 지역기반의 자조적 마을공동체 생활방식이 확장되면서 이런 생활양식을 추구하는 주민들이 성산동으로 이사하여 지역단체활동이 확대 재생산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성리산마을이란 공동체가 상징적 의미를 갖게 되면서, 오히려 외부에서 이곳으로 이사를 오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외부 유입인구가 많다 보니 우스갯소리로 성산1동 전셋값이 내려갈 수 없다고 하기도 하고... 공동체를 지향하고 주변들과 함께 아이를 돌보고 그런 것을 지향하는 분들이 오는 것 같고... 그래서 모임이나 동아리 활동이 확장되고 다양해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성산2동 작은도서관)

(2) 지역운동형 : 지역공동체운동을 지향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 지역단체 설립

-지역운동형은 마포구민, 마포구 소재 노동조합, 마포구 진보정당 당원 등 다양한 주체들이 마포구에서 지역공동체 운동을 하기 위해 단체를 설

립한 유형이다. ‘마포 민중의 집’, ‘성산2동 작은도서관’, ‘마포대안공간 우리동네 나무그늘’이 이에 해당한다. 최근 1~2년 사이에 활동을 시작한 이 유형의 조직들은 성미산의 자조마을공동체형 조직활동에 영향을 받은 한편, 협력지원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희는 주민들의 자생적 관계망으로 뭉쳐진 것이 아니라, 생활운동과 지역운동이라는 가치를 갖고 공간을 여는 게 일차적 목표였어요. 민중의 집이 지역사회와의 공공재로 사용되기를 바라면서, 2008년 7월 망원1동에 민중의 집을 열었는데, 전세계약이 끝나면서 집주인이 임대료를 너무 올려달라고 해서, 2011년 2월 성산1동에 새 장소를 마련하여 민중의 집을 옮겼죠. 보통 폭발지역단체는 주부들이 중심이 되는데, 우리(단체)는 처음 이 공간을 열고 사업을 함께 시작한 초기 활동가들이 저를 포함해서 젊은 층들이 많아서, 회원 구성이 20~30대 젊은 층이 많고 주부들까지 끌고후 분포되어 있어요. 이미 성미산마을이 있고 성미산마을에서 워낙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 저희는 성미산마을에서 하지 않는 사업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하려고 해요. 성미산마을 등 지역의 폭발적 네트워크가 민중의 집이 지역에 뿌리 정착할 수 있었던 토양이 된 것 같아요.” (마포 민중의 집)

“마포구편으로 살면서 다양한 인맥으로 연결되어 있던 사람들이 동네 도서관을 뭉쳤으면 좋겠다고 뜻을 모아 2009년 처음 모임을 뭉쳤었다. 지역의 공동체운동이 필요하다는 차원과 함께 참여자 본인들도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돌봄이한 생활적 요구도 컸기 때문에 동네 도서관을 생각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성산2동 모임으로 시작했지만 회원들은 망원동, 상암동 등에서도 살고 있다. 성미산마을은 이미 문화적으로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고, 동네 공동체가 점차 확장되면 좋겠는데, 오히려 (단체들이) 성산1동으로 몰리고 있어서, 옆 동네로 확장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작은도서관을 성

산2동에 맞들기론 하였다. 성산2동은 초등학교가 세 곳 있고 3,40대 맞벌이 부부가 많아 지역적으로 아이들을 위한 도서관이 필요할 것 같았다. 성산2동에 있는 참나무어린이집 조항원들 중에서 도서관 설립 축하금을 해주시는 분도 많고, 참나무어린이집이 작은도서관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한다. 저는 홍익대를 졸업하고 쪽 마포구에서 살았는데 지역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마포희망나눔’에서 일한 경험도 있다.” (성산2동 작은도서관)

“우리 단체는 비영리이고 성리산마을(의 단체)과 비슷하지만 다른 특징이 있다면 이 공간(단체)을 고민하고 시작하는데 시민단체, 지역의 노동조합, 진보정당이 함께 했다는 점이다. 2009년 무렵부터 마포구에는 의사, 한의사, 변호사, 문학예술분야 전문가 등 재능을 가진 진보정당 당원들이 많은데, 이들의 능력을 지역에서 풀어낼 공동체 운동이 없었고, 주민들과 함께 지역에서 가치를 만들어가는 일에 소홀했다는 것, 그리고 노동조합도 주민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 없었다는 생각등을 했다. 그래서 진보정당, 지역의 노동조합, 지역의 장애인단체, 지역의 의류인모임 등 여러 단체들이 힘을 모아 지역주민들과 일상에서 함께하는 대안공동체를 만들어 보자고 했는데 2011년이 되어서야 나무그늘이란 조직과 공간이 만들어졌다. 우리는 주민이 스스로 가르치고 배우는 성리산마을 공동체의 운영 원리인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동체 활동을 지향하는 민중의 집의 가치를 경향하여 활동하려고 한다. 마포구에는 이처럼 여러 유형의 단체들이 있어서 단체 간 상호학습 흔과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새로운 것을 고민하게 되는 장점이 있는 것 같다. 저는 30대 중반인데 연세대를 졸업하고 마포에 쪽 살면서 정당 운동, 사회운동을 하고 있다.” (우리동네 나무그늘)

(3) 주민자치위원회형 : 주민자치센터 공무원 지원으로 기존 주민자치조직에서 새로운 지역단체 설립

- 주민자치센터 공무원의 지원과 협력으로 기존 주민자치조직인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부녀회, 아파트부녀회에서 새로운 사업체나 단체를 설립한 경우가 주민자치위원회형에 속한다. 공무원이 정책사업인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마을기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기존 주민자치조직 회원들에게 사업 아이디어 제안과 지원을 하고 새로운 사업체나 비영리단체를 설립하도록 유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수동행복마을주식회사’,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성산2동 성매마을 다들카페’, 비영리단체로 등록된 ‘상암DMC봉사단’이 이 유형에 속한다.
- 다음은 마포구 마을만들기 사업을 담당하면서 기존 주민자치조직이 새로운 사업체를 만드는 데 기여한 주민자치센터 공무원의 이야기이다.

“2010년 신수동 주민자치센터에 근무하면서 마을 만들기 사업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신수동의 경우 시민단체가 있는 곳도 아니고 주민활동도 활발한 지역이 아니어서 마을 만들기 사업을 같이 할 파트너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으나, 주민의 내재적인 욕구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다. 마을 만들기 사업의 경우 일회성 문화프로그램으로 반복되는 경향이 있는데, 마을기업을 설립하여 수익을 내면서 봉사활동을 한다면 사업 지속성과 주민 참여를 끌어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하였다. 그래서 신수동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커뮤니티비즈니스를 하겠다는 계획서를 작성하였다. 마포구청에 근무하면서 2009년 사회적기업 업무를 담당할 경험도 있고 그래서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관련 서적을 접할 경험이 있었다. 주민자치위원회 총회를 개최하여 커뮤니티비즈니스에 대한 설명을 하였고 설득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주민총회를 10번하면서 주민출자 주식회사를 설립하기로 결정하였고, 2010년 5월 신수동행복마을주식회사가 만들어진 것이

다. 주식회사는 처음에는 주민자치센터 4층에 자리를 잡았으나, 2011년 1월 매장을 구하여 이사를 나갔다. 2011년 신수동행복마을주식회사 주주는 32명인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장, 새마을부녀회원들이다. 현재 주식회사 회장은 주민자치위원회 회장이 맡고 있다. 회장은 커뮤니티비즈니스 사업을 잘 이해하거나 사회사업을 하는 분은 아니지만 규모가 있는 개인사업체를 직접 운영하고 있어서 사업마케팅에 능하고 주민들의 이해 조정 역할을 잘 하는 능력이 있다.” (신수동행복마을주식회사)

-다음은 2011년 행정안전부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사업체 대표의 인터뷰 내용이다.

“저는 성산2동에 살 지 오래되었고 새마을부녀회 활동을 7년 정도 하고 있는 중이다. 저희는 동장님이 새마을부녀회에 사업 제안을 하였고, 주민자치센터의 지하창고 공간을 마을카페로 만들고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지원을 받았다. 동장님이 사업 제안을 했을 때 처음에는 제가 마을기업을 몰라서 안한다고 했다. 그러자 동장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었고 마을기업 사업을 이해는 하였으나 일을 떠맡아야 하므로 하겠다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 5월초에 제안을 받고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하여 7월에 카페를 개설하였다. 현재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이 자원봉사 방식으로 마을카페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나 마을기업 운영을 위해 새마을부녀회와 별도로 기타 법인을 설립하였다. 마을기업 운영방향은 동장님과 새마을부녀회가 공동으로 논의하고 결정한다. 동장님이 바뀌더라도 같은 방식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성산2동 성메마을 다들카페)

-다음은 상암동 주민자치센터의 자원봉사캠프로 지정되어 밑반찬배달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상암DMC봉사단 대표의 인터뷰 내용이다.

“2004년 상암동에 아파트 분양을 받아 이곳으로 이사했다. 입주하면서부터 6년간 통장을 맡았다. 현재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4년째 활동하고 있다. 상암동은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아파트 단지들이 건설되었는데, 아파트 단지별로 아파트 부녀회가 구성되고 연계가 되는데, 제가 회장이 되고 아파트 부녀회 리더 역할을 하게 되었다. 아파트 부녀회를 주축으로 봉사활동을 시작하였고 이것이 상암DMC봉사단이랄 비영리단체로 발전하였다. 주민자치센터에서 비영리단체 인가를 받는 것이 활동하기에 수월하지 않겠냐고 제안을 해서 주민자치센터의 도움을 받아 2010년에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하였다.” (상암DMC봉사단)

(4) 기관부설형 : 평생교육기관 운영자와 주부학생이 지역봉사단체 설립

— 양원지역봉사회는 마포구에서 학업기회를 놓친 성인을 대상으로 교육 사업을 하는 교육기관 운영자 주도하에 주부학생들이 지역사회 봉사를 목적으로 결성한 비영리민간단체이다. 이 단체는 기관부설형으로 분류된다. 교육기관 교장이 단체 설립 초기부터 현재까지 회장을 맡고 있으며, 단체명은 회장의 호를 딴 것이다. 단체의 간사역할은 교육기관 교사가 맡고 있다.

〈표 4-4〉 마포구 지역기반 제3섹터 조직의 유형분류

유형	단체명
〈1유형 자조마을공동체형〉 협동조합 자조활동을 기반으로 마을공동체를 지향하는 다양한 단체가 확대 재생산	· 사람과 마을 · 성미산동네금고 · 마포의료생협(준) · 성미산마을극장 · 마포희망나눔 · 돌봄두레어깨동무 · 성미산마을공동체네트워크공터
〈2유형 지역운동형〉 지역운동에 관심 있는 여러 주체들이 참여하여 지역단체 설립	· 마포 민중의 집 · 마포대안공간 우리동네 나무그늘 · 성산2동 작은도서관
〈3유형 주민자치위원회형〉 공무원 지원으로 기존 주민자치조직에서 새로운 단체 설립	· 신수동행복마을주식회사 · 성산2동 성메마을 다들카페 · 상암DMC봉사단
〈4유형 기관부설형〉 평생교육기관 운영자와 주부학생이 지역봉사를 목적으로 단체 설립	· 양원지역봉사회

2) 조직 형성 시기와 활동자 특성

(1) 조직형성 및 법적 지위 취득 시기

—지역기반 제3섹터 조직의 설립연도는 1993년부터 2011년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에 걸쳐 있다. 가장 먼저 설립된 단체는 1993년에 설립된 양원지역봉사회이다. 단체 유형에 따라 형성 시기와 법적 지위를 얻는 데 소요되는 기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 지역기반형 제3섹터 조직 형성 및 법적 지위 취득 시기

단체유형별	단체명	단체 형성시기	단체 설립 및 법적 지위 취득 (연도)
자조 마을 공동체형	사람과 마을	2006년	사단법인(2007년)
	마포희망나눔	2003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2005년)
	성미산마을극장	2007년	개관(2009년), 사회적기업(2010년)
	돌봄두레어깨동무	2006년	재가장기요양기관 등록(2009년)
	성미산마을공동체네트워크공터	2011년	개장(2011년)
지역 운동형	마포 민중의 집	2006년	개관(2008년)
	마포대안공간 우리동네 나무그늘	2009년	개장(2011년)
	성산2동 작은도서관	2009년	개관(2011년)
주민자치 위원회형	신수동행복마을주식회사	2010년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2010년)
	성산2동 성메마을 다들카페	2011년	마을기업 지정(2011년)
	상암DMC봉사단	2008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2010년)
기관부설형	양원지역봉사회	1993년	사회단체 신고(1996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2002년)

—자조마을공동체형의 경우 1994년 공동육아어린이집 1호가 설립되었고, 이후 2001년 마포두레생활협동조합 설립으로 이어졌다. 자조마을공동체형 조직의 대부분은 2003~2006년 사이에 만들어졌다²⁷⁾. 자조마을공동

27) 2001년 서울시의 성미산 배수지 건설 사업으로 2001년 7월 ‘성미산을 지키는 주민연대모임’이 구성됨. 일 년이 넘는 주민반대운동의 결과로 2002년 10월 성미산배수공사가 취소됨. 성미산 지키기 주민운동이 성공한 2003년 이후 마을은 마치 붓물 터지더라도 한 듯이 한꺼번에 많은 조직활동들이 일어났다고 함(유창복, 2010).

체형 조직은 길게는 약 20년 전부터 시작하여 최근 몇 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새로운 조직들이 형성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 지역운동형 단체는 약 2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8년, 2011년 들어 활동공간을 확보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고 있다. 주민자치위원회 형의 경우 사회적 경제 조직은 2010년, 2011년에 만들어졌고, 비영리 조직은 이보다 앞선 2008년에 만들어졌다.

○자조마을공동체형

- 자조마을공동체형 조직의 경우 단체가 법제도 차원의 지위를 얻기 이전 몇 년간에 걸쳐 조직 활동과 관련된 주민 토론, 연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단체 활동에 적합한 법제도적 지위를 얻었다. 즉 주민욕구와 필요에 따라 단체가 조직되고 활동하다가 단체 활동에 맞는 법제도의 지위를 얻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성미산마을의 사회적 경제 조직들은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제도화 이전에 이미 유사한 방식으로 사업 활동을 하였으며, 이후 제도가 도입되면서 제도권으로 들어왔다고 할 수 있다.

“우린 진짜 오래 전부터 마을기업이란 말을 사용했어. 저작권료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성미산마을극장)

- 자조마을공동체형의 경우 모태 역할을 한 공동육아협동조합 1호 어린이집은 1994년에 개설되었으며, 2011년 현재 4개의 공동육아어린이집이 있다. 공동육아협동조합을 기반으로 보육 이외 활동으로 처음 설립된 조직은 마포두레생협(2001년)이다. 2003년 이후 성미산마을에 주민조직이 대폭 늘어나는데, 이들 단체들은 몇 년간의 활동을 거쳐 단체활동에 적합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였다.

- 사람과 마을, 성미산마을극장, 마포희망나눔, 돌봄두레어깨동무는 법제도상의 단체 지위를 취득하였다. 마포의료생협(준)은 2012년 생활협동

조합 인가를 준비 중이고, 공터는 2011년 마을기업 신청을 하였다가 지정을 받지 못하였으나 재신청을 할 예정이다. 성미산동네금고는 법제도 차원에서 어떤 조직형태로 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

- ‘사람과 마을’은 2007년 11월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었다. 성미산마을 주민조직의 80~90%가 2003년에서 2006년 사이 약 3년간에 만들어졌다고 한다. 그러나 2003년 이후 활동하는 개별 조직들이 증가하면서 단체 간 소통 부재가 문제로 제기되었다. 그리고 지역의 일반주민 참여를 전제로 하는 마을행사들이 늘어나면서 개별 단체들이 인적 및 물적 자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개별 단체 차원에서 감당할 수 없는 마을일을 담당하고, 마을 외부와 소통할 때 마을을 대표하는 단위가 필요하게 됨에 따라 이를 담당할 수 있는 ‘사람과 마을’을 만들고 사단법인으로 등록하였다. 사람과 마을은 주로 마을 일을 추진하기 위해 의사결정이 필요하거나, 외부단체에서 진행하는 각종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 주체 역할, 지자체와 지역주민들과 접촉할 때 대표기관 역할을 한다.
- 성미산마을극장은 2010년 12월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으나, 마을극장 만들기는 2007년부터 시작되었다. 유창복(2010)은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문화예술 동아리가 늘어나면서 마을 동아리들이 일상적으로 연습하고, 지속적 공연을 통해 지역사회와 교감할 수 있는 마을극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공유한 것이 2007년 무렵이라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광역형 시민단체인 ‘여성민우회’, ‘환경정의’, ‘녹색교통’,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4개 단체가 2007년 성산1동에 공동사옥을 지으면서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공간을 나누어 쓰고 싶다는 제안을 하면서 성미산마을극장 설립이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1년간의 공사, 주민 출자와 개인 차입금 등의 방식으로 자금 조달을 통해, 2009년 2월에 마을극장이 개관하였다. 성미산마을극장의 경우 설립 취지와 목적이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문화예술형 사회적기업에 적합한 모델로 시작하였으며, 이 모델을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이 제도화되면서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2011년 행정안전부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성미산마을의 ‘풀방구리’는 마을주민 출자로 설립된 카페 ‘작은나무’에서 스텝인숍(shop in shop) 방식으로 마을에서 생산되는 여러 물품을 판매하고 있는 사업체이다. 주민들이 생산한 물품²⁸⁾을 마을 공동가게를 통해 판매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지원제도가 2011년에 본격화되면서 마을기업 지정을 받은 것이다.

-‘돌봄두레어깨동무’는 2009년 3월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등록하였으나, 사업준비는 2006년부터 시작하였다. 2006년~2007년에 걸쳐 마포두레생활협동조합 주부조합원들이 돌봄에 대한 학습, 교육, 지역복지사회기관 탐방 등의 준비사업을 하였다²⁹⁾. 이런 상황에서 2007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통과되고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전면적으로 실시될 예정이었다. 2008년 2월 지역사회 돌봄사업 토대 구축 및 지역적 확산을 위해 두레지원센터가 마포두레생활³⁰⁾에 설치되었고, 두레지원센터는 재가장기요양보험제도를 연구하고 돌봄두레 사업 구상을 하였다. 두레지원센터는 두레원(요양보호사)양성계획을 수립하여 여기에 지원한 9명의 두레 조합원 중 6명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2009년 3월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 신고를 하고 서비스 제공을 시작하였다.

28) 성미산마을의 비누두레, 한땀두레, 밀랍초 공방에서 만든 물품, 그 외 개인들이 만든 수공예 등의 작품들을 판매함.

29) 2007년 ‘고령사회와 돌봄노동’이란 주제로 4회의 강좌를 실시하였고, ‘지역과 함께하는 어머니의 일, 어머니의 기업’이란 주제의 심포지엄을 개최함.

30) 생활협동조합운동의 방향성을 소비운동에서 지역생활운동으로 확장하지는 차원에서 마포두레생활협을 포함한 4개 지역의 두레생활협이 연합하여 2008년 2월 두레지원센터를 마포두레생활에 설치함. 두레지원센터는 지역사회 돌봄사업 구축과 확산을 목적으로 함. 2011년 9월 현재 2개 지역생활협은 탈퇴하고 마포두레생활협과 고양·파주두레생활협의 두 곳에서 두레지원센터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음.

“원래 시작은 두레원끼리 함께 자립갱생을 해서 두레원이 두레원에게, 두레원이 비두레원에게 이런 모토를 가지고 처음 시작했죠. 출자금을 모아야 했는데 두레원들이 출자금을 내기가 개인적으로 힘들었어요. 2006년부터 동분두레 준비를 했는데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 이사 가신 분들도 있었고, 지친 분들도 있었고... 그런데 두레지원센터가 영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라고 두레원에게 교육비를 지원해주었어요. 영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 그래서 활동이 시작된 거죠. 그런데 생각보다 두레생협 안에 동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많게는 거예요. 영양보호사 두레원은 여러 명인데 어르신 한, 두 분 가지고 운영이 어렵죠. 생계 목적으로 일을 시작한 분은 더 어렵게 되었고요. 그러다 마포두레생협에서 재가장기요양기관 등록 조건을 갖추 수 있도록 필요한 사무실 공간과 초기 투지비 약 2천만원을 지원해주어 2009년 3월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등록을 했죠.” (동분두레어깨동무)

- ‘마포희망나눔’은 2003년 11월부터 지역복지사업 모색과 복지사업을 하다가 2005년 마포희망나눔을 발족시키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의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을 하였다.
- ‘성미산동네금고’는 마을기업을 위한 동네금고 역할을 하기 위해 2011년 3월에 만들어졌다. 이와 별도로 성미산마을에는 주민 친목도모와 상호부조를 취지로 하는 마을 계모임인 ‘성미산 대동계’가 운영되고 있다. 성미산 대동계는 쉼돈 적립과 내부 대출을 통해 계원에게 필요한 소액 자금 수요를 충당해주고 중요한 마을행사 때마다 부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성미산 대동계는 2011년 설립된 성미산동네금고 예치금도 지원하였다. 성미산동네금고는 현재 임의단체이지만 향후 법제도 차원에서 어떤 조직형태로 운영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있다.
- ‘마포의료생협(준)’은 2009년 9월부터 준비모임을 시작하여 2010년 4월 발기인 대회를 하였으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의 생활협동조합 인가를 2012년 2월에 받을 계획으로 준비 중이다.

- '공터'는 2011년부터 조직 설립과 관련한 출자금 모집을 하였으며, 2011년 마포구에 마을기업 신청을 하였으나 지정받지는 못하였다. 2011년 10월 현재 법제도 차원의 단체 지위는 없으며, 향후 단체의 법제도 지위 유형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를 논의하고 있다.

○ 지역운동형

- 지역운동형 단체는 2006년, 2009년 무렵 약 2년간의 준비과정과 논의를 거쳐 2008년, 2011년에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고 있다. 2011년 10월 현재 단체에 적합한 법적 지위 취득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운동형 조직 중에서 가장 먼저 설립된 단체는 '마포 민중의 집'으로 2008년 망원1동에서 개관하였다. 마포 민중의 집은 2011년 들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제출을 몇 차례 서울시에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포기하였다고 한다. 2011년 10월 현재 단체를 사단법인으로 할 것인지,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을 할 것인지를 논의하여 올해(2011년) 안으로 결정한다고 한다.

- '우리동네 나무그늘'은 대안공동체를 지향하는 조직에 대해 2009년부터 논의를 하다가 2011년 7월에 염리동에 그 일환으로 개장되었다. 단체의 법적 지위는 없으며, 카페는 개인 사업자 자격으로 운영되고 있다. 총회를 통해 단체의 법적 형태를 결정할 것이라 한다.

- '성산2동 작은도서관모임'은 2009년에 형성되었고, 2011년 7월 작은도서관을 개관하였다. 2010년 10월 현재 단체의 법적 지위를 비영리법인으로 할 것인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할 것인지 논의 중이다.

○ 주민자치위원회형

- 주민자치위원회형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은 2010년, 2011년에 단체가 설립되고, 단기간에 법적 지위를 취득하고 있다. 주민자치위원회형은 공무원이 정책사업 일환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부녀회에 제안하여 새로운 조직을 만든 것이다. 따라서 조직 설립시기가 마을 만들기 사업(2008

년)이나 마을기업(2010년 후반)사업 이후였다. ‘신수동행복마을주식회사’는 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2010년에 만들어졌고, ‘성산2동 성매마을 다들카페’는 마을기업 사업의 일환으로 2011년 5월에 설립되었다. ‘상암DMC봉사단’은 아파트 부녀회를 중심으로 2004년부터 활동해왔으나, 2010년 주민자치센터의 제안으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하였다.

—주민자치위원회형 조직은 단체 설립과 법적 지위를 얻는 것이 자조마을 공동체형과 지역운동형 조직에 비해 단기간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새마을부녀회 활동에 장기간 함께 참여한 위원들로만 사업체가 구성되고, 주민자치센터가 사업 공간을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즉 새로운 공동사업체 설립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심적, 물적 부담을 최소화해 주는 구조이므로 의사결정 과정도 짧고 단기간에 조직이 결성되고 법적 지위를 취득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자조마을공동체형과 지역운동형 단체는 회원과 출자금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회원들 간 상호 이해와 의견수렴 절차가 조직의 지속가능성에 중요하므로 의사결정 과정이 길어지고, 이로 인해 단체의 법적 지위 취득에도 시간이 걸린다고 할 수 있다.

“이 동네에 30년 이상 산 토박이고, 부녀회 활동은 13년을 했어요. 부녀회장이 된지는 4년이고요. 나이는 오십대 후반이죠. 우리는 부녀회 회원을 15명으로 한정하고 있어요. 결원이 생겨야할 회원을 뽑습니다. 부녀회 회원들이 자원봉사로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어요.” (신수동행복마을주식회사)

“저는 이 동네에 산지 매우 오래되었고요, 40대 중반에 부녀회 활동을 시작해 7년 되었어요. 구청이나 주민자치센터 모든 행사에 새마을부녀회가 참여한다고 보면 되요. 마을 맞는 사람들과 일을 해야 힘들지 않기 때문에 부녀회 회원을 새로 충원하지는 않고 현재 15명 수준으로 유지할 겁니다. 회

원들 간의 친목이 좋기 때문에 부녀회원들이 자원봉사로 토크인일에 나서서 도와주고 있어요.” (성산2동 성메마을 다들카떼)

○기관부설형

-주부 대상 교육기관에서 파생된 양원지역봉사회는 1993년에 만들어져, 1996년 사회단체 신고, 2002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하면서, 약 20년간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 단체가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이유는 단체의 모태가 된 평생교육기관이 현재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교육기관 학생들이 단체 회원으로 충원되는 구조, 그리고 단체 창립에 주도적 역할을 한 교육기관 교장과 교사들이 지속적으로 단체 운영진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2) 핵심 활동자 연령

- 면접조사 대상자는 단체 운영에 핵심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피면접자를 기준으로 핵심 활동자의 연령과 성별을 보면 차이가 있다. 자조마을공동체형은 핵심활동자 연령대가 30대에서 40, 50대까지 다양하고, 여성 4명, 남성 4명으로 성별 균형을 이룬다. 지역운동형은 3명 모두 30대 중반으로 여성이 1명, 남성이 2명이다. 주민자치위원회형은 3명 모두 50대로 전부 여성이다. 양원지역봉사회는 주로 40~50대 여성이 회원의 주축이 되며, 남성인 평생교육기관 교장이 회장을 맡고 있다. 양원지역봉사회의 간사 역할을 하고 있는 피면접자는 남성으로 학교교사이다.
- 자조마을공동체형 조직은 1994년 설립된 30대 주축의 공동육아협동조합에서 이후 약 17년간에 걸쳐 다양한 조직으로 분화되면서 기존 주민과 신규 주민이 섞여서 활동을 해오기 때문에 핵심 활동자의 연령계층도 30대에서 50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고 볼 수 있다.
- 지역운동형 조직은 자녀양육기에 접어든 30대가 자신의 생활과 사회적 이슈를 지역공동체 운동을 통해 해결하려는 욕구가 클 수 있기 때문에

핵심 활동자 연령이 주로 30대라고 볼 수 있다.

- 주민자치위원회나 새마을부녀회에서는 연장자 위주로 회장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형 조직은 핵심 역할을 하는 연령층이 주로 50대라고 볼 수 있다.

2. 네트워크와 활동 방식

- 조직유형별로 네트워크 형성과 활동방식에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 자조마을공동체형 조직은 지역기반 제3섹터 조직 외에 공공에서부터 광역형 시민단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관계망을 구축하고 있다. 네트워크 활동도 정보 공유에서부터 공동사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네트워크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외부 기관들과 관계망을 형성하는데 적극적이다. 자조마을공동체형 조직은 10여년 넘게 지역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공공을 비롯한 외부기관에게 인지도가 높으며, 활동가 개인이 구축해 온 네트워크의 다양성과 연대능력으로 네트워크 구축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
- 지역공동체형 조직은 지역운동에 관심 있는 여러 주체들이 참여하여 조직을 구성하였기 때문에 지역사회 단체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적극적이다. 단체활동 역사가 아직 1~3년에 불과하고 현재 법적 지위를 취득하지 않아 공공과의 네트워크는 구축되어 있지 않다.
- 주민자치위원회형 조직은 주민자치센터와 강한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부녀회 회원이 단체활동에 참여하고 있어 기존 주민자치조직과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다.
- 기관부설형 조직은 주민자치센터와 봉사를 나가는 지역의 복지시설과 네트워크가 되어 있다.
- 자조마을공동체형과 지역운동형 단체들이 지역사회 내·외부의 여타 단

체들과 정보 교류, 자원 공유, 공동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한 네트워크 형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반면, 주민자치위원회형과 기관부설형 단체들은 주민자치센터 이외의 네트워크 구축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다.

(1) 자조마을공동체형 : 제3섹터 조직 허브 및 지원 역할 수행

—성미산마을극장, 성미산동네금고, 사람과 마을, 마포희망나눔은 마포구 안팎의 제3섹터 조직과 다양한 방식으로 활발한 교류활동을 하면서, 마포구 제3섹터 조직의 허브 기능과 지원 역할을 일정 부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조마을공동체형의 경우 활동내용이 다른 조직들이 계속 분화되면서 단체들의 허브, 대표 기능을 하는 조직(사람과 마을)을 별도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자조마을공동체형의 네트워크 구축 단계를 보면 지역사회 내 여타 제3섹터 조직과 정보공유를 위한 모임(네트워크)을 가지고, 이후 정보공유 차원을 넘어 지역이슈 논의와 공감대 형성 및 합의 단계를 거친다. 그리고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체들 간 자원 공유와 공동사업을 하는 마지막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 각 조직의 네트워크 형성과 활동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람과 마을

—‘사람과 마을’은 2007년 건설교통부의 ‘살고 싶은 좋은 마을 만들기’ 공모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사람과 마을은 성미산마을에 여러 유형의 조직이 생기자 이들 조직 간 활동이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마을의 다양한 활동 현황과 과제를 살피며, 함께 문제 해결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동시에 지역성의 확보와 새로운 사업의 인큐베이팅 역할을 떠맡고 있다(유창복, 2010). 사람과 마을은 성미산마을의 다양한 조직³¹⁾을 위한 내부 허브 역할을 하면서 동

31) ‘사람과 마을’ 인터뷰에 의하면 두레, 동호회를 포함해 성미산마을의 커뮤니티 단체를 40~50

시에 성미산마을 밖 단체와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마포구 내 제3섹터 조직의 중간지원단체 역할을 일정 부분 수행하고 있다. 사람과 마을은 2010년과 2011년에 마포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을 받아 지역단체와 공동사업으로 성미산 저탄소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다. -사람과 마을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마을기업인 ‘풀방구리’는 성산1동의 ‘작은나무 카페’에 1호 가게를 두고 2호점을 염리동에 있는 ‘우리동네 나무그늘’에 열었다. 사람과 마을에서 관리하고 있는 성미산동네금고는 13개 지역단체가 회원으로 가입하여, 매달 일정액을 납입하고 사업운영비가 필요한 단체에게 납입금의 10배 한도 내에서 이자 없이 대출해주는 상호부조 단체이다. 성미산동네금고는 2011년 9월에 사회투자지원재단의 공동체기금지원사업을 통해 1,500만원을 지원받았다. 성산2동 ‘공터’, 염리동의 ‘우리동네 나무그늘’은 단체 설립에 필요한 초기 운영자금을 성미산동네금고에서 조달하였다. 이처럼 자조마을공동체형 조직들은 마포구 외부(공공기관, 민간재단)에서 자원(자금)을 확보하고, 마포구 내 제3섹터 조직과 공동사업을 하는 방식으로 강도 높은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저희 공방이 세 들어 있는 건물 2,3층이 폭 2월에 비게 되었어. 그래서 사람과 마을로 찾아갔어. 사람과 마을이 마을 만들기엔 사경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성산2동에 이런 움직임이 있다 하면 마을의 확장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 참나무어린이집이 성산2동으로 이전하면서 여기서도 마을 만들기를 하자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 2층에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카페를 만들자는 제안이 나왔지... 3층은 카페에 사람들이 모이고 시간이 지나면 커뮤니티 공간으로 어떻게 사용될 테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니까... 그래서 (사람과 마을에) 다른 사람들이 짊어지기 전에 사무실로 쓰든, 동아리

개로 파악하고 있었음. 회원이 많은 어린이집, 학교, 생활협동조합 등 회원 수가 많은 단체가 20개이며, 대표자회의 시에는 보통 13~14개 단체가 참석한다고 함.

연습실로 쓰든 뭐라도 해달라고 했어요. 그때 사람과 마을에서 작은도서관을 준비하는 모임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일단 그 모임을 찾아갔는데, 여기에 마을카페를 하려고 하니까 같이 모여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 건물 3층에 작은도서관이 들어오는 것으로 결정되었죠.” (공터 1)

○성미산마을극장

—성미산마을극장은 2010년부터 매회 전국 동네연극제를 열고 있다. 2011년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역에 있는 기관(지역아동복지센터, 염리독서실, 망원독서실, 아현초등학교, 마포 민중의 집)들과 연합하여 청소년문화예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2년에 걸쳐 서울시 문화재단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노인 동아리 뮤지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전국 동네연극제는 성미산마을극장이 지역사회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지만, 다른 마을과의 연결지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시작하였다. 청소년문화예술사업은 2010년 1년 동안 지역복지기관들과 가진 모임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복지, 문화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이 세 가지를 융합해보자는 것이 1년간 지속된 앓싸 모임의 핵심된 주제였고... 2010년 성미산마을극장이 주관단체가 되고 앓싸의 컨소시엄프로젝트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CI*(community impact)사업에 공모를 했고 선정이 되었다. 프로젝트 운영기본 방향은 성미산마을극장이 청소년문화예술프로젝트를 주도하더라도 기관별로 참여단을 각자 조직하고 특별 워크숍을 각각 진행하는 것으로 정했다. 중간, 중간 공동프로젝트를 하다가 최종적으로 연합공연을 하는 걸로... 내년 2월에 마포아트센터에서 연합공연을 할 예정인데 마포문화재단이 지역자원과 접촉한다는 차원에서 흔쾌히 승낙을 해주었고, 그런 의미에서 성과가 있었다. 마을극장에는 지역사회팀이 있어 *CI*프로젝트를 전담합니다.” (성미산마을극장)

○마포희망나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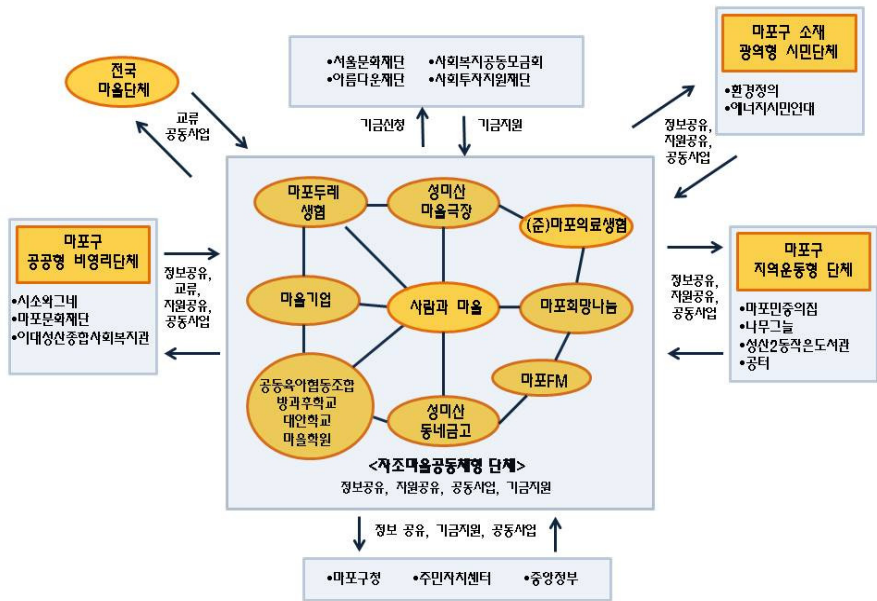
—‘마포희망나눔’은 2009년 ‘성미산마을극장’, ‘환경정의’와 연합하여 마포구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해 11월 아름다운재단 후원을 받아 ‘마포지역 복지네트워크를 위한 사회단체 작은 이야기 마당’이란 토론회를 개최하였다³²⁾. 또한 2009년 아름다운 가게 후원으로 ‘시소와그네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와 부모교육사업을 공동수행하였다. 2010년에는 마포구청 후원을 받아 ‘시소와그네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청소년 나눔문화 아카데미 사업을 공동수행하였다. 2010년 10월에는 마포희망나눔, 마포구 지역아동센터협의회, 민주노동당 마포구위원회, 진보신당마포구위원회와 공동주최하여 마포구 저소득가정 아동·청소년 방과 후 돌봄 현황과 해법이란 주제로 마포구청에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정책토론회는 마포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조례가 제정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2009년 마포희망나눔, 성미산마을극장, 환경정의 3개 단체가 공동으로 ‘마포구 주민 에너지 복지권리, 문화 권리에 관한 인식 및 욕구조사’를 실시했어요. 이 조사결과를 지역의 복지기관과 공유를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2010년 복지기관과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우리 사업도 소개하고 각 기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는 모임을 가졌죠. 이 모임이 1년 동안 공부한 친목모임으로 지속되면서 지역의 어젠다를 복지기관들이 같이 설정하고 같이 해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들을 공유하였고 ‘마포지역복지네트워크 잇싸’³³⁾로 모임 이름을 붙였어요. 이 모임의 결과로 잇싸의 복지

32) 2009년 11월 조사결과 발표회에 참여한 단체는 마포희망나눔, 환경정의, 마을극장, 마포 민중의 집, 마포 FM, 함께하는 시민행동, 마포의료생협(준), 시소와그네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 망원2동 지역아동센터,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마포장애인 복지관, 마포지역자활센터, 두레지원센터, 돌봄두레어깨동무, 합정동 주민자치센터, 이화여자대학교 성산종합사회복지관, 마포구주민생활지원과, 마포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 마포고용복지지원센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임(자료: 마포희망나눔 내부자료).

단체에서 케어하고 있는 아이들의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사업을 해보자는 이야기가 논의되었고 문화교육을 통해 아이들의 자존감을 키울 수 있도록 해보자는 결과를 얻었죠. 그러다 이것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69사업 공모로 이어졌지요. 최근 2~3년간 시소와그네, 지역단체들과 네트워크하면서 사업추진 방식도 달라지고 시너지 효과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마포희망나눔)

—<그림 4-1>은 자조마을공동체형 조직의 네트워크 유형과 활동내용을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4-1> 자조마을공동체형 조직의 네트워크 유형과 활동

33) 2010년 5월 모임에 참여한 단체는 성미산마을극장, 마포희망나눔, 시소와그네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 염리청소년독서실, 망원청소년독서실, 이화여자대학교 성산종합사회복지관 등 6개 단체임. 2011년 4월 13일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마포지역복지네트워크 5월’ 온라인 카페 (<http://cafe.naver.com/mapoassa.cafe>)가 개설됨.

(2) 지역운동형 : 네트워크 구축에 적극적

- 최근 1~2년 사이에 단체 활동을 시작한 지역운동형 조직은 현재 단체의 법적 지위가 없기 때문에 공공과의 공식적인 네트워크는 없다. 이들 단체는 지역사회의 여타 단체들과 네트워크 형성을 하고 공동사업을 하기 위해 매우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한편, 민간재단의 기금공모사업에도 적극적이다. 지역운동형 조직은 자조마을공동체형 단체로부터 운영 노하우(know-how)와 자금 등의 지원을 받고 있다. 각 조직의 네트워크 형성과 활동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포 민중의 집

- 마포 민중의 집은 지역사회 단체 신년회를 발의하여 매년 모임을 주도하고 있다. 신년회에 지역사회 교회를 포함해 약 40개 단체가 참여한다고 한다. 마포구 소재 25개 제3섹터 조직을 대상으로 ‘마포 지역단체 정보 및 콘텐츠 지역사회 유통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아름다운재단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역사업을 하고 있으며, 마포구(서교동)에 소재한 사회적기업 ‘문턱 없는 밥집’이 마포 민중의 집 방과후공부방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마포 민중의 집은 50평 정도의 공간을 임대하고 있어 (준)마포두레생협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사무실 공간 일부를 내어주고 있다. 그리고 지역사회 시민단체, 동아리, 기타 외부단체에 소정의 이용료를 받고 회의실을 빌려주고 있다.

“저희가 발의하여 매년 1월말에 지역에 있는 단체들과 신년회를 해요. 저희가 파악한 단체명단을 가지고 연말쯤에 공식적으로 회의를 소집하고 초대장을 드려요. 명단에 없어 초대하지 못한 단체가 어떻게 이야기를 듣고 신년회에 와서 인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1년에 한번 신년회에 모이다 보니 아쉬움이 있어 단체탐색을 하고, 단체 반상회를 기획하였는데, 반상회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워낙 바빠서... 에듀머니(마포구 소재 사회적기업)랑 지역주민들 대상 경제교육을 계획했는데 상근자가 1명이다 보니 실행하

지는 못했어. 저희가 기금사업을 안했는데 워낙 사무실 월세 비중이 높다 보니 사업비를 계속 마련하는 게 어려워서 기금사업을 한번 해보자 했어. 아릅다운재단은 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안 한 단체도 지원을 해주니까 기획서를 제출했어.” (마포 먼중의 집)

○ 마포대안공간 우리동네 나무그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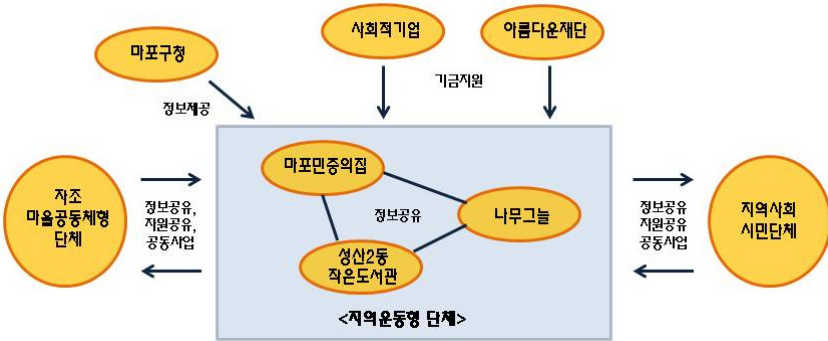
—우리동네 나무그늘은 2011년 7월 염리동에 마을카페와 되살림가게를 열었다. 성미산동네금고를 이용하여 초기 운영자금 대출을 받았고, 주민대상 요리강좌를 마포두레생협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성미산 마을의 풀방구리(마을기업) 제2호점으로 네트워크하고 있으며 마포장애 인자립생활센터와 저소득층 노인대상 의료사업을 공동으로 하고 있으며, 대표가 단체 존재를 지역에 알리기 위해 홍보수단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고, 지역사회 시민단체들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성산2동 작은도서관모임

—성산2동 작은도서관모임은 2011년 마포구청 교육지원과 도서관팀을 직접 찾아가서 단체가 할 사업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였다고 한다. 2011년 성산2동 작은도서관은 ‘공터’가 입주해 있는 건물 3층에 작은도서관을 개관하였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등록을 하고 관계를 잘 가져가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마포구청 교육지원과 도서관팀을 찾아갔어. 성산2동에 있는 기존의 어린이 도서관들은 내용이나 프로그램이 좋고, 저희랑 철학이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특색을 잘 살리는 방향으로 함께 모색하고, 네트워크를 잘 해서 책 대여 시스템을 같이 모색하면 좋겠어. 기금공모사업은 시도하려고 합니다. 유세는 아릅다운재단, 아릅다운 가게에서 미인가 시설에도 지원을 해주니까 모색을 하고 있어.” (성산 2동 작은도서관)

-<그림 4-2>는 지역운동형 조직의 네트워크 유형과 활동내용을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4-2) 지역운동형 제3섹터 조직의 네트워크 유형과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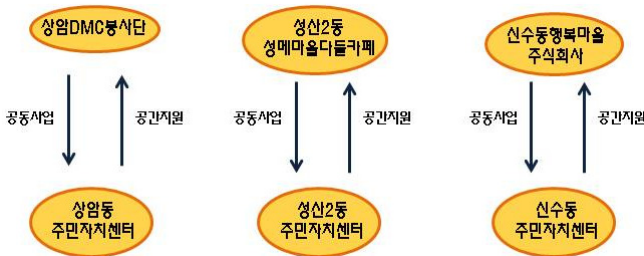
(3) 주민자치위원회형 : 네트워크가 주민자치센터에 국한되나 강도가 높음

- 주민자치위원회형은 유형은 주민자치센터 공무원의 지원과 협력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부녀회, 아파트부녀회의 핵심 활동가들이 새로운 단체를 설립하였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와 매우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신수동행복마을주식회사는 주민자치센터 공간을 빌려 사업을 시작하였고, 성산2동 성메마을 다들카페는 주민자치센터 공간을 활용해 사업을 하고 있다. 상암DMC봉사단은 주민자치센터 시설을 활용하여 반찬배달 사업을 하고 있다.
- 이 유형은 주민자치센터와 협력 네트워크가 강하나, 지역사회 제3섹터 조직과의 연계 고리는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으며, 핵심 활동가들이 필요성을 인식하지 않고 있다. 이 유형에 속하는 핵심 활동가들은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부녀회의 핵심 인물들이므로 기존 주민자치 조직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이 강하다.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대표로서 사업체 운영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으나, 무보수 자원봉사로 일하고 있다.

“한 달에 두 번 독거노인들 식사대접을 해요. 저희가 의뢰하면 주민자치센터에서 노인 분들에게 통지를 해주죠. 아직 마포구에 있는 사회복지시설과 같이 한 것은 없고, 제가 노인정으로 따로 연락을 해서 (노인식사대접을) 하기도 해요. 노인식사대접은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기도 하는데 같이 서로 많이 도와줘요. 굳이 복지관과 연계해서 해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신수동행복마을주식회사)

“교류는 주로 주민자치센터 하고만 해요. 더 좋은 일을 하고 싶어도 제가 계획서 작성을 잘못해요. 그래서 외부 지원을 받기가 어려워요.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신청했는데 떨어졌어요. 활동 초기부터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단독으로 단체를 끌고 와서 회원들이 의례히 회장님이 있어서 할꺼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누가 성리산마을 동네부엌을 가보라고 권해주었는데 안 가요. 충자를 받아서 한다는 거는 쯤 그렇고...” (상암DMC봉사단)

-다음 <그림 4-3>은 주민자치위원회형 조직의 네트워크 유형과 활동을 도식화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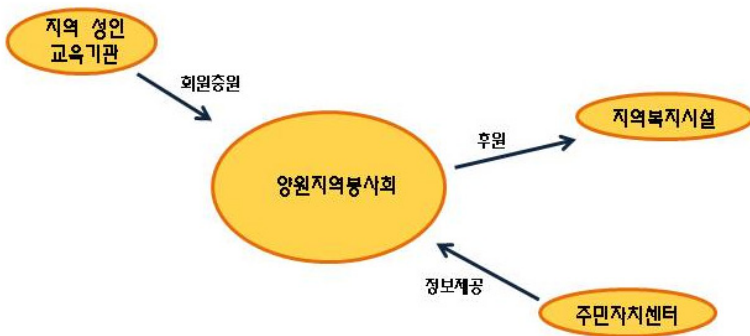


<그림 4-3> 주민자치위원회형 제3섹터 조직의 네트워크 유형과 활동

(4) 기관부설형 : 지역복지시설과 주민자치센터와 연계

-양원지역봉사회는 지역사회 장애인 시설, 경로당, 공부방 등의 복지시설,

참전전우회 등에 성금 전달 및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마포구 이외의 복지시설에 성금을 전달하기도 한다. 마포구 활동은 염리동, 용강동, 대흥동, 신수동, 서강동, 공덕동에 집중해서 하고 있다. 마포구 자원봉사센터로부터 자원봉사캠프로 지정된 양원지역봉사회는 마포구 공공근로사업자와 독거노인 식사대접 사업을 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센터가 대상자를 연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림 4-4>는 양원지역봉사회의 네트워크 유형과 활동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4-4> 기관부설형 제3섹터 조직의 네트워크 유형과 활동

3. 복지활동과 특성

- 지역기반 제3섹터 조직이 수행하는 복지활동에는 유형별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조마을공동체형 조직과 지역운동형 조직의 복지활동은 시민사회의 수평적·자조적 활동을 통해 복지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초점을 두고 있다. 주민참여와 자조적 활동을 통한 상호적 복지활동을 강조한다고 할 수 있다. 복지 수혜자는 일반주민, 노인, 청년 1인 가구, 아동·청소년, 취약계층 등으로 다양하며, 제공되는 서비스도 다양한 편이다. 취약계층

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제도권(공공)에서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주민으로 한정하고 있어 복지서비스 공급에서 공공과 역할 차별화를 시도하는 사례가 있다. 그리고 주민 필요에 따라 복지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제공하는 유연성도 보이고 있다. 특히 복지서비스 제공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의사, 노무사, 변호사, 문화예술인 등)나 주민의 재능 기부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복지 전문기관이 아니고, 자원봉사자가 제공하기 때문에 서비스 수준의 아마추어리즘을 극복하기 위해 복지활동을 위한 회원 교육이나 자격증(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을 취득함으로써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적 차원이 아닌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복지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는 만큼, 프로그램 중단 사례도 있어 서비스 제공의 불안정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주민자치위원회형 단체와 기관부설형 단체는 주민자치센터와 협력하여 저소득층 독거노인 식사 대접과 반찬 배달, 저소득층 성금 지원, 장애인 복지기관 후원과 같은 자선적 복지활동에 치중을 하고 있다.

1) 유형별 복지활동 실태와 특성

(1) 자조마을공동체형 : 수평적 · 자조적 활동을 통한 상호적 복지활동 강조

—1994년 시작된 공동육아협동조합은 시민들이 수평적 · 자조적 방식으로 보육서비스를 공급한 상호적 복지활동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공동육아협동조합 이외의 사람과 마을, 마포의료생협(준), 성미산마을극장, 돌봄두레어깨동무, 마포희망나눔의 복지활동도 주민 출자와 회원 참여라는 상호적 복지활동 방식에 기반하고 있다. 다음은 단체별 복지활동을 정리한 것이다.

○마포희망나눔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활동을 단체의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마포희망나눔’의 슬로건은 ‘수입의 1%, 한 달에 2시간, 주민 3%의 즐거운 참여’이다. 마포희망나눔은 단체의 존재 이유로 다음 네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희망나눔 회원에게 함께 사는 즐거움과 자기실현의 장을 제공하고, 둘째, 지역주민에게는 살고 싶은 마을과 나눔의 기쁨을 주며, 셋째, 지역의 소외계층 주민에게 자기 존엄성을 높이고 삶의 희망을 주며, 넷째, 지역사회에 지역복지의 대안모델이 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마포희망나눔의 복지사업 방향이 수평적·자조성을 강조하고 상호적 복지활동을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포희망나눔의 2011년 수입예산안은 전년도 이월금과 적립금을 합쳐 총 77,586천원이며, 수입항목에서 비중이 가장 높은 항목은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개인회원회비(43,200천원)로 수입예산의 55.7%를 차지하고 있다. 이외 후원금이 10.4%(8,100천원), 수익사업수입이 2.6%(2,000천원)를 차지하고 있다. 재정수입구조에서 정기회원의 회비 비중이 높아 단체 재정구조가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마포희망나눔은 복지사업 방향에 복지제도의 사각에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지원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주민 복지수요에 대한 현장 대응성이 높아 복지사업 운영에 유연성이 있고 이런 점에서 공공기관의 복지활동과 차별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마포희망나눔은 성리산과옥의 경우 우리끼리만 너무 즐거운 거 아닌가 하는 질문에서 시작된 거죠. 본명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 있을 텐데 뭔가 도움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나는 취지에서 시작하여 전차 복지사업의 틀을 갖추게 된 거죠. 마포희망나눔은 2005년에 공식 발족을 했지만 2003년부터 지역복지사업을 모색하였고, 2004년 ‘아현1동 건강지원사업을 위한 지역조사’를 하면서 지역의 소외된 주민들과 관계 맺기가 시작되었지요. (공공과) 차이점은 기존 복지관이나 동사무소 사회복지부서는 복지지원 가이드

나인이 있죠, 수급자는 어디까지 이런 식으로... 그러나 저희는 가서 만날 사상이 도움이 필요하다 싶으면 도움을 드리는 거죠. 우리는 전부 자원봉사로 주전들의 희비로 운영되니까 우리가 도우겠다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또 하나는 구청에 입바른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 구청에 지역아동센터를 위해 이러저러한 지원등이 필요한데 그동안 구청에서 너무 소홀했던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건의를 했어요. 복지관 같은 경우는 위탁이 걸려 있어서 그런 말을 하기가 어렵고, 지역아동센터들은 구청에서 관리책임을 하니까 자신들(지역아동센터)의 이야기를 하기 어려운 현실이죠. 근데 저희는 재정적으로 자유롭다 보니 구에 필요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마포희망나눔)

—마포희망나눔의 2011년 사업은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사업으로 청소년나눔문화아카데미, 나눔저금통 배포, 나눔릴레이 개최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둘째, 지역에 밀착한 복지대안을 제시하는 복지정책 조사연구사업을 한다. 셋째, 제도권에서 지원받기 어려운 가정을 중심으로 결연활동과 지원사업(반찬나눔, 집수리, 의료지원, 멘토링)을 시행한다. 넷째, 지역주민들을 위한 세무, 인테리어 컨설팅, 문화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수행한다³⁴⁾. 복지정책조사과정은 단체가 취약계층 주민들과 만나는 접점이 되고, 성과물은 자치구의 복지정책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저희가 연구사업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처음에는 지역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찾아가서 무엇이 필요한지 보고 지원을 했는데, 막나는 본들에 비해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게 작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체 상근직원 회원이 엄청 많아지지 않는 한... 그래서 구에서 예산

34) 자료 : 마포희망나눔, 2011, 『2011년 총회자료집』

편성을 잘해서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내려준다면 좋을 텐데 하는 고민이 들었죠. 그리고 저희가 기초생활보장제도 상담을 했어요, 찾아가서 수급권자 이신지 물어보고, 아니다 그러시면 왜 아닌지도 알아보고 해서 수급권자가 되도록 만들어 드리고... 그러면서 동사무소 공무원들이나 구에서 이분들을 친화적으로 도와려고 하면 많이 좋아질 텐데 하는 고민이 들었어요. 우리 이야기를 제대로 하기 위해 연구를 해서 제출도 하고 제도도 바꾸자라는 생각을 하죠. 2004년부터 지역복지조사사업을 했는데 2009년에 처음으로 지역복지조사결과를 지역복지기관과 마포구청이랑 공유하는 발표회를 가졌어요. 지역복지조사는 회원들이 교육을 받고 자원봉사 조사원으로 참여해요. 설문조사를 할 때 아무런 명단도 없이 집집마다 다 찾아 갈수는 없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명단을 받고 또 통반장님께 정보를 얻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사를 한 옆집들을 그냥 두들겨서 인사하고 조사합니다. 지역조사가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과 접촉하는 접점이 됩니다. 조사과정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이 찾아옵니다. 작년(2010년)은 마포구 방과 후 돌봄 조사를 하였고, 올해 이 결과를 가지고 토론회를 하였고, 마포구 지역아동센터 조례 제정으로 이어지게 되었죠. 올해는 마포구와 함께 지역아동안전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어요. 12월에 결과 발표를 할 예정인데 구청장님과 교육청에서 오셔서 같이 하게 될 것 같아요.” (마포희망나눔)

—복지프로그램은 지역사회 필요에 의해 구성되는 유연성을 보이고 있다.

“저희 사업은 미리 세팅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찾아다녀 보니 필요한 사업이 있어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도움을 주러 찾아갈 할머니 집에 어린 손자, 손녀를 데리고 사는 분들이 많았고, 아이들 역시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라 회원들과 아이들을 연결하는 멘토링 사

업이 자연스럽게 시작된 거죠. 그 후에는 성서초등학교를 찾아가서 멘토링이 필요한 아동을 소개받기도 하고. 마포구청에서 멘토링 의뢰가 오면 하죠. 저히드 어린이집과 함께 결연 어르신 식사대접 사업을 해요. 청소년나눔문화아카데미는 나눔에 대한 연구모임을 하다가 지역사회에 어떻게 적용하는 게 좋을지 하다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보자는 의견이 나서 하게 되었어요.” (마포희망나눔)

—복지 분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복지단체 상근자가 사회복지 공부를 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며, 자원활동가도 자격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필요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 복지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 내·외부인으로 구성된 연구모임 운영, 전문기관과의 연대활동으로 복지활동 전문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성미산마을극장

—성미산마을극장은 일반주민을 위한 문화사업과 함께 문화와 복지를 결합한 문화복지사업을 하고 있다. 주민참여형 문화사업을 강조하며, 전문가 공동참여로 프로그램 수준을 담보하고 있다.

“성미산마을극장의 자원봉사자 개념은 주원기획이라는 개념으로 사용해요. 주원으로서 마을극장 사업 기획에 참여하는 방식이죠. 어떻게 보면 지역에 기반한 문화자원이 있어서 가능하다고 할 수 있죠. 마을극장에서 기획자가 중심이 되어 위원회가 구성되면 극장의 기획자가 두 명이 들어가지만 주원 기획자도 서너명이 들어가서 공동기획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극장 전문기획자가 빠진 채, 주원들이 독자적으로 기획을 해서 마을극장에 기획안을 제출하면 극장에서 시설을 내주는 경우가 있어요. 주원들이 기획하고 마을극장은 시설과 자원을 대주는 방식이죠.” (성미산마을극장)

—성리산마을극장은 문화복지사업으로 문화 활동에서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 청소년과 노인 대상의 예술 동아리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지역 복지기관과 공동으로 취약계층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복지사업은 서울문화재단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금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마을극장 주요 목표의 하나가 주연동아리 인큐베이팅입니다. 30~40대 어르신 동아리나 초등학교 아이들 동아리는 잘되는데, 중·고등학생들은 지속적인 동아리 활동이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는 전략적으로 중·고등학생과 노인 대상 동아리에 주력하고 있어요. 서울시 문화재단 기금 지원을 받아 마을극장에서 전문교육극단 초대를 해서 어르신 뮤지컬 작업을 하고 있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금 지원을 받아 지역복지기관들과 공동으로 청소년 공연동아리사업을 하고 있죠. 이 사업은 지원을 받지 못해도 하고 싶었어요. 다양한 성격의 단체들이 토크 많고 모여서 협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 지역사회 어려운 분들과 함께 하는 복지활동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복지활동하고 문화 활동이 만나니까 재미가 있더라고요. 복지 활동을 통해 여러 단체들이 관계 맺기를 하게 되면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복지 쪽도 문화 활동을 보면서 신기해하면서 복지에 어떻게 좀 활용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 것을 보고 좋았어요. 저는 복지의 목적인 자기 삶의 필요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에너지를 갖게 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내 삶속에 뭔가 박탈되어 있다 라는 자기 토론, 하소연, 자기유구를 못하는 상황이 물질적 결핍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라 봅니다. 자기 사는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모색하다 보면, 뚜렷한 해결책은 안 나와도 주연과 시연으로서 이것 해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성리산마을도 자기 삶의 필요들을 협동적으로 해결한 거 같아요.” (성리산마을극장)

○ 돌봄두레어깨동무

— ‘돌봄두레어깨동무’는 마포두레생활협동조합 두레모임 중의 하나로 시작한 단체이다. 마포두레생활협회는 돌봄을 제2생활채로 설정하고 돌봄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돌봄기금으로 돌봄두레어깨동무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돌봄두레어깨동무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주체로 해서 2009년 재가장기요양기관 등록을 하였고, 등록된 요양보호사는 36명이다. 2011년 9월 현재 약 20명의 요양보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재가장기요양등급(1~3등급) 판정을 받은 14명의 노인들에게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의류수인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방문간호를 못하고 있고, 제가 간호사가 아닌 사회복지사이므로 의류행위를 할 수 없잖아요. 급한 상황일 경우 생협 조항원이신 의사 선생님에게 (장기요양) 노인이 계신 집으로 향진을 떠달라고 해요. 향진오기가 힘들잖아요. 개인적 네트워크이지만 긴급구호시스템을 만들어 놓았다고 할 수 있죠. 비영리가 전부잖단다는 건 아니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 이용자 중심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요양보호사로 활동하는 20명은 모두 1급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주제를 정해서 외부 간호사를 모셔서 교육을 하기도 했고, 두레원(요양보호사)원래모임으로 사례 공유, 노인학대에 예방교육에 참여도 했어요. 독거노인들에게 방문을 갖다드리는 두레원도 있고 식사대접을 하는 두레원도 있죠. 두레원 중 자원봉사로 활동하는 분이 있습니다. 독거노인이나 부부노인으로 자녀가 외국에 나가 있거나 해서 보호자가 없는 경우, 요양서비스 이기에 저희가 긴급 시 보호자 역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원봉사로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저희가 간혹 정말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노인분인데 경제적 이유로 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가정에서 서비스 제공을 하러 간 적도 있어요.” (돌봄두레어깨동무)

- 돌봄두레어깨동무는 마포두레생협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과 재가장기요양기관 등록에 필요한 사무실과 장비 등의 초기 투자비용으로 약 2천만원 정도를 지원받았다. 2010년 돌봄두레어깨동무 결산을 보면 매출액이 71,525천원이고, 지출이 82,567천원으로 손실액이 11,042천원이었다. 마포두레생협이 돌봄사업 지원이란 명목하에 돌봄두레어깨동무의 손실액을 보전해주고 있으며, 2013년까지 매년 약 천만원의 돌봄기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한다.

“생협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기 위한 교육비 50~60만원을 지원해주었어요. 초기에는 사무실 운영비와 관리자 인건비로 약 2천만원 정도 투자해주었다고 할 수 있어요. 마포두레생협은 수익금도 많지 않은데 돌봄사업에 대한 의지나 애정이 있어 알뜰한같은 수익금을 지원하니 부담감도 느끼고 사명감이 크죠. 아직 적자니까 갈등을 느끼게 되는데,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도 없고 그렇다고 서비스 값을 낮출 수도 없고 딜레마에 있어요. 요양보호사는 중노동에 인건비가 낮다고 할 수 있어요. 중노동에 인건비가 낮으면 돌봄의 질이 낮추된다고 할 수 있어요. 영리기간은 이윤 제하고 인건비를 주는데 저희는 그 부분이 없으니 요양보호사 인건비가 높은 편이고 기간 운영에서 인건비 비중이 약 80% 됩니다. 재작년까지는 인건비가 90%를 차지했어요. 올해 요양보호사 4대 보험뿐만 아니라 퇴직금 제도를 마련했는데, 1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주다 보니 문제가 있더라고요. 요양보호사가 돌보는 노인들이 돌아가시거나 시설로 들어가시게 되면 갇자기 일이 중당되는데 다른 노인 분을 급방 연계시키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요양보호사 직업의 특이한 구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논의해서 1년 이하라도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보수규정을 마련했어요.” (돌봄두레어깨동무)

- 돌봄두레어깨동무는 복지사각지대 노인에게 자원봉사로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한 경우도 있었지만, 현재는 재가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노인

만을 대상으로 있어 영리형 재가장기요양기관과 차별화가 없다는 점을 고민하고 있으며, 복지사각지대 노인의 돌봄서비스 제공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 필요 시 지역사회 의사와 연계하고 서비스 제공을 하는 장기요양사의 정기적인 교육모임을 통해 서비스 수준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저희 출범이 지역돌봄을 실천하겠다고 시작했는데 실제 돈 내는 일부 노인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영리형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죠.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을 하는데... 내년엔 저희가 자립을 하게 되면 한 분이라도 좋으니 돈을 낼 수 없는 어려운 노인에게 돌봄서비스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마포두레생협 돌봄기금이 많이 조성되어서 지역에 돌봄이 필요하나 제도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노인들에게 생협과 서웁시가 매칭펀드식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돌봄두레어깨동무)

○마포의료생협(준)

-마포의료생협(준)은 2011년 8월말 현재 조합원이 93명으로 출자금 약 9백만원을 조성하였으며, 2012년 생활협동조합으로 인가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마포의료생협(준)의 설립 기본방향은 첫째, 주치의의 통한 신뢰할 수 있는 건강관리, 둘째, 생애주기 전 단계에 걸친 건강관리, 셋째, 건강관리 능력향상을 위한 활동, 넷째, 적정의료서비스 제공, 다섯째, 건강한 마을 만들기, 여섯째, 고령사회 대비로 정하고 있다. 조합 설립에는 한의사 2명과 양의사 1명이 참여하고 있다.

-마포의료생협(준)은 2011년 길거리 건강진료사업을 두 차례 하였고, 2011년 9월 21일 치매의 날을 맞이하여 주민대상 치매교육강좌사업을 실시하였다. 보육이나 노인돌봄서비스와 달리 의료서비스의 경우 국민

의료보험제도가 있고, 지역사회 내에 의사와 병원 자원이 풍부하여 주민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의류생활협동조합 설립이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어요. 성리산마을 분들이 운영위원회에 많이 참여하시고 있어요. 이 지역에 병원이 많고 성리산마을에도 의류진이 많아 의류자원이 내부에 풍부하는데 조합병원을 만든다는 거 자체가 자원 중복이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성리산마을에서는 생협이나 어린이집에서 먹거리 교육, 각종 건강교육 프로그램도 많고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주민들도 건강관리 예방에 대한 의식화가 많이 되어 있고... 의류생활에서 중시하는 예방이 여기서는 잘 되고 있는데다, 운영위원들이 여러 마을활동에 참여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의류생활에 투여할 시간이 적고 관심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마포의류생활협동조합(준))

(2) 지역운동형 : 지역사회 특성 반영과 취약계층 대상 복지서비스 제공

-지역운동형 조직의 복지활동 방향도 자조마을공동체형과 유사하게 자조적 복지활동을 지향하고 있으며, 단체별로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마포 민중의 집

-마포 민중의 집 복지사업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차상위계층 아동을 위한 방과후공부방 사업이 있다. 공부방 운영비는 마포구 소재 사회적기업 ‘문턱 없는 밥집’과 후원회원들이 지원하고 있다. 공부방의 경우 단체 사무실이 2011년 망원1동에서 성산1동으로 이사하면서 망원1동 이동들 입장에서는 방과후공부방 서비스가 중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자원봉사로 운영되었던 청소년 독서토론프로그램은 인기가 있었으나 자원봉사자가 개인사정으로 활동을 중단하면서 프로그램이 중단

되었다. 방과후공부방은 복지사각지대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원칙하에 운영되고 있으며, 공무원이 대상자 선정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과후공부방은 무한고 프로그래밍이 매우 좋아요. 그래서 신청 인원은 많은데 저희가 정원(15명)을 못 채워도 차상위가 아니면, 조건에 맞지 않으면 선별하지 않아요. 저희가 홍보는 닥치는 대로 해요. 종이유인물을 막들어서 배포도 하고, 신문에 간지로 넣기도 하고, 이메일, SNS, 홈페이지 홍보 등등... 그런데 홍보가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차상위 대상을 찾기가 쉽지 않은데, 이번 학기부터는 마포구청에서 공부방 대상자를 추천해주고 있어요. 공무원이 직접 찾아와서 제안을 해주어서 반가웠죠, 저희가 (공무원을) 찾아가기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저희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아라 작년 (앗싸)모임에서 정보를 얻은 게 아닌가, 그 모임의 훈리인거 같아요. 성산1동으로 이사하면서 공부방 아이들의 구성이 바뀌었어요. 아이들 때문에 최대한 가까운 곳에 새 공간을 얻었는데도 아이들의 생활권이 다르니 변화가 있더라고요. 청소년독서토론회는 자원 교사들이 다 대학원을 진학하고 그러면서 운영하기가 힘들어져 현재 중단 중입니다. 그 사업이 가장 아쉬워요. 왜냐면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이 거의 전무하여 프로그램 희소가치가 있고 인기가 있었는데.. 자원봉사 선생님이 구해질 때까지 프로그램 중단이죠. 문턱 없는 방집이 일종의 지역공익사업, 사회 환원 차원에서 공부방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야학을 하셨던 분들 모임에서 공부방 운영비 지원을 하고, 공부방과 별도로 후원해주는 주원들도 있고요, 세 곳에서 공부방 운영비가 나오는 거죠. 주원들 재능기부로 시련강화사업을 하다 보니 사업비가 거의 들지 않습니다. 저희는 사무실 임대료 같은 단체 기본 운영비는 회원 자체적으로 충당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포 민중의 집)

—둘째, 의료, 법률상담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 주민들을 단체회원인 병원, 노무사, 변호사와 연계시켜 주는 복지네트워크사업을 하고 있다.

“마포에 있는 병원인데 공익진료를 해보고 싶은데 병원이 대상자를 직접 찾기가 힘들죠. 우리는 주변들과 만나니까 실제로 진료가 급하게 필요한 사람들을 추천하면 병원이 우리를 신뢰할 상태에서 진료를 해주는 거죠. 처음에 사업홍보를 했더니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어요. 특히 치과진료라는 게 워낙 돈이 많이 드니까 지역대상자가 아닌 분들도 너무 많이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홍보를 하지 않고 알음알음 추천을 받아서 오시는 분들 많... 치과병원 한 곳에서 하고 있어 병원들을 늘려갈 생각이었는데 마포의료생협 준비를 하면서, 의료생협을 만들면 상당부분 해결이 되니까 병원을 일당은 더 늘리진 않았죠. 작년에 약 40명이 의료지원을 받았습시다. 그런데 추천해도 병원이랑 진료 받는 사람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아 손이 많이 가고 관리하기 쉽지 않은 사업이에요.” (마포 민중의 집)

—셋째, 주민들의 자원 활동으로 운영되는 다양한 시민·생활강좌사업이 있으며, 문화교육 동아리 3개가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여 함께 매주 식사를 하는 ‘화요밥상’사업을 하고 있다. 마포 민중의 집은 서교동, 망원동 등에 20~30대 1인 가구가 많이 살고 있으며 민중의 집 회원 비중도 1인 가구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1인 청년가구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발적이고 대안적인 생활협동 공동체를 형성하여 생활할 수 있는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³⁵⁾.

“서교동, 망원동 이 지역에 청년 1인 가구가 많아요. 혼자 사는 젊은이들이 지역에서 살면서 공통적으로 겪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것을 같이 고민하

35) 자료 : 마포 민중의 집, 2011, 『2011년 민중의 집 정기총회자료집』

고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 내야 하는데요, 그런 경험등이 없다면 못하는 거죠, 그런 기회등이 제공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교육프로그램이나 모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중이고, 2년차부터는 어떤 아이টে를 짚어서 그걸 중심으로 조직을 만들고 사업을 해나갈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지역내에서 생활협동조합이든, 스스로 모여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마포 민중의 집)

○마포대안공간 우리동네 나무그늘

—‘우리동네 나무그늘’의 복지사업도 마포 민중의 집과 유사하다. 첫째, 주민 대상 무료법률(노무, 신용회복, 재개발) 상담사업을 하고 있으며, 우리동네 나무그늘이 입지한 염리동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있어서 재개발과 관련된 상담을 하고 있다. 둘째, 주민이 스스로 배우고 가르치는 주민강좌사업, 주민 문화동아리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셋째, 차별화된 사업으로 마포주민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소정의 이용료를 받고 트럭을 대여해주는 마포희망트럭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취약계층 대상으로 의료진료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우리동네 나무그늘은 2011년 10월 기준으로 단체 운영비의 약 80%가 카페와 되살림 가게 운영 수익금이며, 회원회비가 약 20%를 차지한다고 한다.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나무그늘에 출자한 단체회원인데, 나무그늘에서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주관하는 장애인해방치류사업을 위한 장소를 제공해주고 있고, 아직 가동되지는 않았으나 마포보건의료인모임과 지역아동센터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특별진료사업을 진행해볼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동네 나무그늘)

○성산2동 작은도서관모임

—‘성산2동 작은도서관모임’은 지역주민들의 공동출자로 성산2동에 작은 도서관을 개관하였고, 지역아동을 위한 교육·양육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3) 주민자치형 : 저소득층 노인대상 급식사업 위주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인 신수동행복마을주식회사는 운영하고 있는 식당에서 한 달에 두 번 동네노인들에게 무료식사대접을 하고 있다. 2011년 9월에 약 40명의 노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였다.

“저희가 한 달에 두 번 정도 토요일에 어르신들을 모시고 식사를 해요. 초여름부터 콩국수해 드리고, 요즘은 동태탕으로, 대상자는 주민자치센터에 의뢰를 하고요. 노인분들에게 우리가 만든 두부 한 모씩도 드리고...” (신수동행복마을주식회사)

—상암DMC봉사단은 상암동 주민자치센터의 자원봉사캠프로 지정되어 있으며,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20가구를 대상으로 매주 반찬배달사업을 하고 있다.

—마을기업으로 지정받은 성산2동 성매마을 다들카페는 수익이 날 단계가 아니므로 현재 마을기업 차원에서 현재 복지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다. 운영자가 새마을부녀회 회장이므로 지역의 경로잔치, 불우이웃돕기사업 등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4) 기관부설형 : 현물·현금 기부와 자원봉사

—양원지역봉사회는 회칙으로 청소년 선도, 여성 및 노인복지 등 지역주민의 복지에 관한 사업을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마포구 자원봉사캠프로

지정되어 있다. 복지활동은 지역사회 저소득층과 복지시설에 현물·현금 기부를 하고, 자원봉사를 하는 자선활동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복지사업으로 저소득층 노인, 공공근로사업참여자 식사 대접과 물품 지원, 장애인 복지시설 성금 전달 및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표 4-6〉 단체유형별 복지사업과 대상자

단체유형별	단체명	복지사업	복지사업 대상자
자조 마을공동체형	성미산마을극장	· 문화복지사업 : 예술동아리 활동 지원	청소년, 노인, 지역주민
	돌봄두레어깨동무	·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서비스	재가장기요양(1~3등급) 판정 노인
	마포의료 생활협동조합(준)	· 길거리 건강진료사업 · 치매교육강좌사업	지역주민
	마포희망나눔	·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사업 · 복지정책조사연구사업 · 교육 및 상담사업 (세무 등) · 결연활동 및 지원사업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노인 지역주민,
지역운동형	마포 민중의 집	· 방과후공부방 운영 · 복지네트워크사업 · 시민·생활강좌사업	차상위계층 아동, 취약계층주민, 20~30대 청년 1인 가구, 지역주민
	마포대안공간 우리동네 나무그늘	· 무료법률상담사업, 주민강좌사업 · 주민문화동아리 지원사업 · 마포희망트럭사업 · 의료진료사업	취약계층 및 지역주민
	성산2동 작은도서관	· 지역아동을 위한 교육·양육 서비스	지역주민
주민자치 위원회형	신수동 행복마을주식회사	· 식사 대접	취약계층 노인
	상암DMC봉사단	· 반찬 배달	취약계층 노인·장애인 가구
기관 부설형	양원지역봉사회	· 성금 전달, 식사대접	취약계층 주민 및 장애인 복지시설

2) 복지활동 기여와 한계

(1) 복지활동 기여와 역할

○ 지역사회 복지활동 생태계 다양성 증대

- 지역기반 제3섹터 조직으로 비영리민간단체 이외에 최근 몇 년간 (예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생활협동조합 등의 사회적 경제 조직들도 증가하고 있어, 제3섹터 조직의 지역사회 복지활동 생태계가 복잡해지고 있다.
- 마포구 사례에 의하면 사회적 경제 조직들은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해 지역 비영리민간단체와 역할 분담을 하고 있다. 사회적기업(문턱없는 밥집)이 비영리민간단체(마포 민중의 집)가 운영하는 방과후공부방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례, 성미산마을기업들이 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 마포희망나눔에 수익금을 기부하는 사례, 생활협동조합이 복지 또는 돌봄기금을 조성해 지역의 비영리단체 복지사업에 지원하는 사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수익사업과 복지사업을 함께 하는 조직이 있다. 우리동네 나무그늘은 단체 차원에서 복지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카페나 되살림가게를 직접 운영하여 비용 일부를 조달한다. 신수동행복마을주식회사는 운영하는 식당을 활용하여 지역의 취약계층 노인에게 식사 제공 사업을 직접하고 있다. 성산2동 작은도서관은 단체 운영비 조달을 위해 수익사업모델을 구상하고 있다.
- 지역기반 제3섹터 조직은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사회 복지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주민협동으로 자체 공급하는 상호적 복지활동에서부터 취약계층을 위한 기부와 같은 자선적 복지활동에 이르기까지 복지활동의 스펙트럼 폭이 넓다. 복지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복지정책과 제도에 영향력을 미치는 조사연구에 치중하는 단체, 현물·현금 기부활동에 주력하는 단체 등 단체별 복지활동에 차이가 있어 마포구 차원에서 본다면 제3섹터별로 복지활동 내용별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마포구 사례연구를 통해 지역기반 제3섹터 조직의 복지활동 잠재성과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제도 복지의 보완과 복지사각지대 해소 가능성

— 공공의 복지활동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는 만큼 복지사업이 획일적, 경직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비해 제3섹터 조직은 제도에 크게 매이지 않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이는 제도권 밖의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위한 복지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현장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복지활동을 가능하게 한다.

“마포구는 다른 구에 비해 종로사회복지관이 2개밖에 없어서 사업지역이 넓고 그만큼 해야 할 사업이 많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포구에는 복지관 수는 적어도 민간기관이 많다는 큰 장점이 있죠. 우리가 다 담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감당할 수 없고, 민간기관에서 잘하는 것들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많이 하려고 해요. 아동과 여성의 안전한 마음 만들기 사업인 동지프로젝트의 경우 저희가 일종의 사무국 역할을 하고, 성서산마을의 조직들과 망원청소년독서실, 연리청소년독서실, 시소타그네, 마포희망나눔 등 이런 기관들과 공동사업을 하고 있어요. 시민단체는 사업의 유연성이 더 있죠. 복지관은 어쨌든 보조금을 받는 위탁기관이라는 그런 한계 아닌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와 함께 일하면서 힘든 점은 저희에게 요구되는 행정이 시민단체에게는 요구되는 게 아니니까 조율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아요. 그걸 이해하는 과정이 없이 공동사업으로 가면 깨지기 쉽죠. 그래서 행정은 우리가 담당한다든지 그러면 사업을 유연하게 담당하는 건 시민단체에서 하신다든지. 그런 식으로 역할을 해요. 복지관의 장점은 시민단체보다 인력이 많은 것이고, 복지관이라고 예산이 넉넉한 건 아닌데 규모 자체가 크죠. 마포희망나눔과 같이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모이는 장소는 대부분 저희 기관에서... 거기에는 한 명이 참여하지만 저희는 두 명이 참여해서 한 명이 희의록을 담당하거나 역할 분담이 나누어집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성산종로사회복지관)

-마포구 사례조사에서는 단체에 따라 복지사각지대 해소라는 목적하에 복지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자치위원회형과 기관부설형은 특별히 복지사각지대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단체 차원의 방향 설정은 없으며,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복지대상자를 소개받고 있다. 이 경우 마포구와 주민자치센터가 단체와 협의하여 복지사각지대 주민 위주로 추천을 한다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포 민중의 집은 복지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방과후공부방을 운영하며, 마포희망나눔은 복지사각지대 주민을 대상으로 복지사업을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돌봄두레어깨동무는 복지사각지대 노인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기존 복지관이나 동사무소 사회복지부서는 복지지원 가이드라인이 있죠, 수급자는 어디까지 이런 식으로... 그러나 저희는 가서 만날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다 싶으면 도움을 드리는 거죠. 우리는 전부 자원봉사로 주민들의 힘으로 운영되니까 우리가 도우겠다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기초생활보장제도 상담을 했어요. 찾아가서 수급권자이신지 물어보고, 아니다 그러시면 왜 아닌지도 알아보고 해서 수급권자가 되도록 맞들어드리고...” (마포희망나눔)

“방과후공부방은 무한고 프로그래밍이 매우 좋아요. 그래서 신청 인원은 많은데 저희가 정원을 못 채워도 차상위가 아니면, 조건에 맞지 않으면 선별하지 않아요.” (마포 민중의 집)

“저희가 간혹 정말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노인분인데 경제적 이유로 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가정에서 서비스 제공을 하려 간격도 있어요. 저희 출범이 지역돌봄을 실천하겠다고 시작했는데 실제 돈 내는 일부 노인에 대해서

만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영리한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죠.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을 하는데... 내년에 저희가 자립을 하게 되면 한 분이라도 좋으니 돈을 낼 수 없는 어려운 노인에게 돌봄서비스를 하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돌봄두레어깨동무)

-마포구에서는 복지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기부금을 전달하는 두 유형의 제3섹터 복지활동이 모두 일어나고 있는 만큼, 마포구가 역할 분담을 잘 한다면 제3섹터 조직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잠재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 사회적 배제의 해소와 사회통합 매개 역할

-최근 복지정책 차원에서 취약계층이 경제적 빈곤 외에 정상적인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얻기 힘들어 사회적 관계로부터 배제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지역기반 제3섹터조직은 취약계층을 지역사회로 불러내고,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공공위탁으로 저소득층 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은 주로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나 영구임대단지에 입지하고 있다. 사회복지관은 취약계층이 복지관이란 한정된 공간에서 사회복지사가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므로 지역사회와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제3섹터 조직은 지역사회 내의 공간과 관계망을 활용하여 복지사업을 하고 있어 취약계층을 지역사회로 끌어내고 통합시키는 효과가 있다.

-마포희망나눔, 신수동행복마을주식회사, 양원지역봉사회의 저소득층 독거노인 식사 대접 사업을 살펴보자. 마포희망나눔은 지역의 어린이집, 신수동행복마을주식회사는 단체가 운영하는 식당, 양원지역봉사회는 지역 식당을 활용해 식사사업을 하고 있다. 취약계층 노인에게는 식사사업

을 통해 한 끼를 해결한다는 단순한 차원을 넘어 지역주민과 접촉하고 지역사회로 편입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는 것이다.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복지관의 식사사업이 취약계층 노인의 물질적 결핍을 일상적 차원에서 해결해주는 기능을 한다면, 제3섹터 조직의 식사사업은 지역사회와 노인을 연계하는 사회문화적 기능을 하는 것이다. 식사사업에서도 사회복지관과 제3섹터 조직이 상호보완적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성미산마을극장의 노인 예술동아리 사업, 그리고 지역의 복지기관들과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는 청소년 예술동아리 사업은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고 취약계층 청소년을 지역사회로 통합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

“전략적으로 중·고등학생 연극과 어르신 연극 동아리에 주력하고 있어요. 2년 전에 어르신 연극을 공연까지는 잘 했는데 그 이후에 지속시키는데 실패했어요. 또 다른 노하우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때 협업해야 되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작년 초부터 어르신연극하면서 복지활동가 협업이 필요해서 복지단체들과 모임을 했어요. 일 년 동안 논의해서 기획한 사업은 모임에 참여한 복지단체에서 케어하고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사업을 하자... 문화예술사업의 실질적 목표는 애들한테 자존감을 주는 것, 좋은 예술활동을 통해 무대에서 진짜로 진정성 있는 박수를 받는 것, 친구와의 관계 맺기를 훈련하는 것, 이것 경험하는 것이죠. (주련이) 지나가다가 “너 그때 뭐 했던 애 아냐?” 아이는 “나를 기억해? 내가 그렇게 잘 했던 많이야?” 이 느낌은 이 아이 평생에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커뮤니티 인팩트가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성미산마을극장)

-마포희망나눔의 청소년 멘토링 사업은 저소득층 조손가구 청소년을 지역사회로 통합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과 노인 결연사업도 청소년과 노인을 지역사회로 통합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의 큰 축기가 어르신들과 청소년들과의 경연인데, 한 달에 두 번씩 지역주부들 열 명이 방찬을 만들어서 저희에게 주변 청소년들이 나눠 닦아서 어르신들 옆네 가정으로 방문하는 것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 멘토링은 약 서른여섯 명의 중고생과 주부멘토들이 열여섯 명의 아이들과 짝을 이루어서 해요. 어느 날 어르신 한 분을 찾아갔는데 집에 가니 손녀 혼자 있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제가 지금 가야 하니까 책이라도 보고 있어라고 했죠. 그런데 집에 책이 한 권도 없는 거예요. 늘 할머니를 만났으면 서도 아이에 대한 관심은 없었던 거예요. 생협 게시പ്പ에 “동네에 이런 아이가 있다. 책 좀 후원해주세요.”하고 물렸더니 동네 한 주부가 책을 가지고 오면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밥을 먹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시작된 거죠. 한 달에 한 번씩 할머니랑 식사를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애들이랑 같이 놀기 시작한 게 멘토링이 된 거죠. 그렇게 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찾아가 할머니들에게 다 부모 없는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멘토링사업을 하게 되었죠.” (마포희망나눔)

-마포 민중의 집에서 하고 있는 지역복지네트워크 사업인 상담프로그램은 취약계층 또는 주민들이 지역사회 관계망을 통해 고민과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이 추천하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저렴하게 비용 부담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종의 자영업자와 연계하는 사업을 하고 싶은데, 지금은 병원이나 노무사, 변호사 정도까지 연계하고 있어요. 급하게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급하게 회사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사심은 돈도 돈이지만 얻을 수 있는 분들을 만나 상담을 받고 싶어 해요. 회원인 노무사나 변호사분들과 연결해드리죠.”(마포 민중의 집)

-마을기업 카페는 공간 자체가 장애아동의 사회 적응 장소로 자연스럽게 활용되면서 장애아동의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하기도 한다. 영리 목적의 카페와 달리 마을기업 카페는 지역사회에서 공적 공간으로 인식되면서 지역사회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주원자치센터에서 장애아동 교육프로그램을 하는데, 교육이 끝난 후에 엄마들이 여기 와서 아이들에게 주문을 하고 지분하게 해보게 한다든지... 아이들이 소리를 내더라도 여기서는 엄마 같은 마음으로 다 감싸주니까 좋아하시죠. 엄마들이 여기 카페가 생겼다는 걸 아시고 한 번 내려와 보셨다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거죠. 지역주민들이 아이를 데려오거나, 주민 동아리 모임으로 사용되거나, 어르신들도 편하게 오시고 사랑방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성산2동 성메마을 다들카페)

“이 앞에 바로 신수중학교가 있는데 엄마들이 여기(식당) 신발 맡겨둬테니까 하면서 이용하죠. 아이들도 “저희 엄마가 신발 안 맡겼어요?” 하면 “여기 있다.”하고 찾아가고... 그런 걸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동네에 그렇게 필요한데 일반식당 같은 경우는 그렇게 못하죠. 동네식당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신수동행복마을주식회사)

○ 복지영역의 확대와 시너지 효과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제3섹터 조직들이 복지활동에 참여하면서 복지영역이 문화복지, 에너지 복지로 확대되고 복지사업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시민단체가 복지 영역도 있지만 다양한 영역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환경정의 같은 경우는 환경, 성미산마을극장은 문화.. 요즘에 말하는 통섭.. 지

급은 복지가 복지 영역밖은 아닌 것 같아요. 문화단체밖 받았을 때, 환경단체밖 받았을 때 더 시너지가 나요. 가정 접수사업을 할 경우 저희가 아는 건 수혜자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지만 어떤 자재로 할 것인가는 환경정의가 더 잘 알잖아요. 단체 고유영역이 있으면서 복지에 관심 있고 특히 취약 계층에 관심이 있는 시민단체, 예를 들면 성미상마음극장이 문화라는 매개를 활용하여 자존감이 낮거나 끊어 끊어 아이들에게 접근하는 방식은 저희들도 새롭다고 보고 매우 좋다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 시민단체들이 복지밖 특히 경향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시너지는 매우 큰 것 같아요. 그건 아마 복지관들끼리 결합해서 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화여자대학교 성상종합사회복지관)

“우리도 지역시민단체밖 네트워킹을 통해 예산 적잖고 사업 확대 효과를 보고 있어요. 작은 폭뿌리 조직들이 네트워킹을 활성화해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사업에 공공이 기금 지원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소타그네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

○ 지역사회 특성과 틈새 수요에 대응력

— 제3섹터 조직은 지역사회 수요가 있으나 제도권 복지에서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다. 마포 민중의 집의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사업, 우리동네 나무그늘의 재개발상담사업과 트럭대 여사업은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이다.

(2) 복지활동의 한계

○ 장시간 지속성을 요구하는 돌봄 복지서비스 제공의 어려움

— 복지서비스 내용에 따라 제3섹터 조직에서 감당하기 힘든 복지사업들이 있다. 취약계층 대상 평생교육, 방과후교실, 상담, 의료, 문화 활동 지원,

급식 및 집수리사업 등은 주민 재능기부 등을 활용하여 제3섹터 차원에서 감당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장시간에 지속성을 요하는 노인 돌봄서비스는 제3섹터 조직에서 품앗이나 자원봉사 형태로 제공하기가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 2009년 비영리 재가장기요양기관 등록을 하고 재가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돌봄두레어깨동무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노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면서, 2011년 현재 운영이 적자상태이지만 마포두레생활협동조합에서 그 적자를 보전해주고 있다. 긴급 시에는 자원봉사로 일시적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나, 자원봉사로 지속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는 어렵다. 보육 품앗이나 방과후교실은 한 장소에서 여러 명의 아이를 1~2명의 성인이나 교사들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아동당 돌봄 비용은 상대적으로 낮다. 이에 비해 노인재가요양서비스는 집집마다 노인 1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가 감당해야 하고 노동 강도가 높아 노인당 돌봄 비용이 크므로 비영리단체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

○서비스 중단 가능성

- 제3섹터 조직의 서비스 제공은 주민의 재능기부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가 개인 사정 등으로 활동을 그만두면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마포 민중의 집이 좋은 프로그램으로 평가받았던 청소년독서토론프로그램을 자원봉사자의 개인사정으로 중단하게 된 것을 사례로 들 수 있다. 이는 자원봉사로 진행되는 모든 프로그램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 제3섹터 조직은 사회복지관과 달리 활동장소로 대부분 민간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는데, 임대료 수준이 감당하기 힘들만큼 오르거나 주인이 퇴거를 요구하면 이사를 해야 한다. 그런데 바로 인근에 재입지를 못하게 되면 기존 주민들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마포 민중의 집이 임대료 상승으로 망원동에서 성산1동으로 이사하면서 방과후공

부방 아동의 구성에 변화가 생긴 것을 한 사례로 들 수 있다.

-제3섹터 조직은 민간 또는 공공기금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기금지원을 받지 못하면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사업이라도 사업을 중단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상근인력 및 재정 제약으로 복지서비스 제공 규모의 한계

-지역기반 제3섹터 조직의 대부분은 보수를 받고 단체업무만 전담하는 상근 활동자가 1명에 불과하다. 아니면 상근활동자 없이 운영위원회의 자원활동으로 단체가 운영되기도 한다. 상근활동자 증원은 단체 재정과 직결되므로 제3섹터 조직의 상근활동자 수가 늘어나기가 힘들다. 이런 점에서 지역기반 제3섹터 조직이 제공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규모에는 한계가 있다.

“맞나는 분들에 비해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게 작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체 상근자나 회원이 엄청 많아지지 않는 한... 그래서 구에서 예산 편성을 잘 해서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내려준다면 좋을 텐데 하는 고민이 있었죠. 집수리사업도 활성화하고 싶는데 그걸 여력이 없어요. 저소득층과 관련해 하고 싶은 사업을 고민은 많이 하는데 여력이 안 되어서 못하죠. 저희 시런단체가 정말 필요한 것은 조직사업을 함께 해줄 사람, 활동가가 너무 필요한데, 활동가를 키우는 게 필요한데 사업하느라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게 제일 아쉬워요. 조직 활동을 해줄 인력이 한 명이라도 더 있다면 사업을 키워낼 수 있는 여력이 생길텐데...” (마포희망나눔)

“회비 내는 회원이 400명 정도 되는데, 월세가 260만원이라서 전체 운영비에서 약 70%를 차지해요. 저희가 상근자가 많지 않으니 해보고 싶은 사업이 있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두, 세 명은 있어야 역할 분담도 하려 이려저려한 일들을 할 수 있는데, 혼자면 동시에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한계가 있죠. 희비를 증대해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좋은 사업등을 하기 위한 사업비는 외부 기금을 받고...” (마포 민중의 집)

4. 지역기반 제3섹터 조직 형성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체

-지역기반 제3섹터 조직 형성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기관으로는 공공(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지원 비영리기관, 광역형 시민단체,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외부기관들이 지역기반 제3섹터 조직에 미치는 영향과 역할은 단체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1) 공공부문의 역할

-공공부문은 정책이나 공무원을 통해 지역기반 제3섹터 조직의 형성과 활동에 영향을 주고 있다. 공공정책이나 공무원은 지역기반 제3섹터 조직 구성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방식으로 또는 기존의 제3섹터 조직에 재정 지원 등을 통해 단체 운영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조직 설립에 직접적 기여

-2008년 마포구의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정책³⁶⁾과 2010년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육성정책은 지역기반형 사회적 경제 조직 설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연구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유형으로 분류된 ‘신수동행복마을주식회사’, ‘성산2동 마을기업 성매마을 다들카페’가 이에 해당한다. 마포구 4개 마을기업 중 3개³⁷⁾ 마을기업은 공무원 관

36) 『서울특별시 마포구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 제정됨. 조례 제2조에서 사는 마을 만들기 사업 주체로 주민자치위원회나 비영리단체 등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는 주민조직을 들고 있음.

37) 2011년 마포구 마을기업 운영 선정 단체는 성산2동 새마을부녀회, 염리동 주민자치위원회, 연남동 주민자치위원회, 사람과 마을 등 4개임. 기존 주민자치조직 구성원이 마을기업 운영 주체가 되지만 별도의 법인, 비법인 단체를 구성하여 마을기업을 운영하게 됨.

여로 기존 주민조직에서 새로운 단체가 파생된 주민자치위원회형 제3섹터 조직으로 나타났다.

—‘상암DMC봉사단’은 아파트부녀회의 비공식 봉사활동을 주민자치센터에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제안하여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 상암 DMC봉사단은 상암동 자원봉사캠프로 등록되어 있다. 이 경우는 마포구의 동 자원봉사캠프사업이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정책사업 수행을 위해 기존 주민조직을 동원하는 것이 수월하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는 기존 주민자치조직과 별도의 법적 지위를 갖는 단체를 설립하는데 적극적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조직 설립 이후 단체 활동 활성화 기여

—자조마을공동체형 단체는 정부의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육성정책으로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성미산마을극장’은 설립 취지와 운영방식이 사회적기업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마을극장 건립에는 적어도 10억원 정도의 자금이 소요되므로 지역주민 출자로만 감당하기 힘든 사업이다. 성미산마을극장은 설비비용으로 현재 약 4억원 정도의 채무를 안고 있다. 지역사회의 공공재 문화시설 기능을 이미 하고 있었던 성미산마을극장은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이 나오자, 이를 발전 발판으로 활용하고 있다. 사업 초기 운영자금 부담을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 활용으로 극복하고 이후 발전단계를 모색하고 있다.

“마을극장 운영에 인건비 지원은 큰 도움이 되죠. 자립계획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에요. 극장은 100% 자립이라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런 극장도 없다. 최소한 30%에서 최대 50% 정도만 자립할 수 있어도 자립적인 태드타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개인·기업 후원인 모집과 대관사업을 확장하려고 합니다.” (성미산마을극장)

-성미산마을의 ‘풀방구리’ 역시 마을기업 방식으로 이미 운영되고 있었으나, 2011년 마을기업 지원제도가 본격화되자, 사업을 확장하는 발판으로 지원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조직 운영 관리·감독 역할

-제3섹터 조직 형성과 지원 역할을 하는 공공은 관리·감독 역할을 하게 된다. 공공의 지원이 규제로 이어지므로 유연한 방식으로 일해 왔던 단체 활동가들은 제도권으로 들어가면서 운영상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한다.

“이해는 되지만 공공은 사업을 다 표준화하여 관리하려고 해요. 함께 참여해서 그 흐름을 봐야 하는데... 평가도 평가시점 당시의 평가이고, 만약 통제가 안 되면 좀 멀어주었으면 해요.” (성미산마을극장)

“보조금이 나오면 모든 행정처리가 신용카드처럼 해야 되잖아요. 재래시장에서 싸게 살 수 있어도 카드사용이 안 되면 안 되니까... 기자재 구입도 그렇고, 처음에는 주부 입장에서 그 돈이 너무 아까웠는데 공증을 받아야 하니까, 이제는 받아들이죠. 형식적인 게 너무 많아요. 하다못해 1500원짜리를 사더라도 결의서 통지서를 써야 되고... 지금은 웬만큼 정리가 돼서 하는데 처음에는 서류가 얼마 많은지... 안 해봤던 사람이 서류 처리를 해야 하니 매일매일 서류 가지고 모르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보면 큰 거 새나가는 건 그냥 새나가는데, 이상하게 조잡한 것만 갖고 자꾸 왜 이렇게 복잡할지 모르겠어요.” (성산2동 성메마을 다들카페)

“공단에서 신사를 하면서 비영리가 뭐 별거 있어 하는 편정이에요. 돌분을 하는 요양보호사나 노인들 사이에서 적층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제도상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루 종일 보호를 해달라는 보호자 요청으로 요양보호사가 한 집에 10시간을 머물면서 일한 것을 공단은 부당 청구

했다고 해요. 집에서 4시간 일하고 2시간을 집 밖에서 있어야 되는데 두 시간을 집에서 머물렀다는 거죠. 공단 직원은 방문요양수가 일회 방문 단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집에 3박 4일 있다 해도 한 번 방문한 것으로 밖에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하더군요. 요양보호사는 자기가 2시간을 희생해서 케어해 주었는데 굉장히 불법적인 것을 한 마냥 자숙서도 써야 되고... 이분이 사경감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건데 상처를 많이 입으신 것 같아요. 그 집에서 자기들이 부탁을 했고, 우리 기관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진정서를 써 주어서 제출했는데 그건 아예 보시지도 않고 내치시더라고요. 저희가 고민하는 것은 제도 안에서 하련 늘 행정 안에서 맞춰야 된다는 거, 이 뼈거덕거리는 걸 어떻게 맞춰가 이게 숙제인 것 같아요. 제도권 안에서 일을 하게 되면 또 하나 걸리지 않을까 불안하고, 우리가 어느 순간에는 좋은 일 하다가 나쁜 일 하는 걸로 나쁜 단체야 이런 이야기가 들리지 않을까 조바심이 납니다.” (동분두레어깨동무)

2) 공공지원 비영리기관의 역할

- 시소와그네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는 2008년 2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마포구,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협약으로 설립되었으며³⁸⁾, 운영 주체는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되어 있다³⁹⁾. 마포문화재단은 마포구 출연으로 2008년 설립되었다. 이화여자대학교 성산사회종합복지관은 1991년에 개관하였고, 이화여자대학교가 마포구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 ‘시소와그네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는 지역조직팀을, 마포문화재단은

38) 2011년 12월말 현재 서울에는 영유아통합지원센터가 마포구, 강북구, 관악구, 중랑구에 4개소가 있음.

39) 시소와그네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는 3년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예산 지원을 받았고, 2011년부터는 마포구에서 예산 지원을 받고 있음.

지역문화사업팀⁴⁰⁾, 이화여자대학교 성산사회종합복지관은 지역복지팀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기반 제3섹터 조직의 네트워킹 매개와 지원 역할

—시소와그네는 커뮤니티 임팩트(Community Impact) 사업방식을 도입하여 2008년 단체 시작단계에서부터 지역사회 민간단체 자원 조사, 지역단체들과 파트너십 형성, 지역사회 어젠다 합의에까지 역량을 기울였다⁴¹⁾. 시소와그네의 CI 사업방식으로 네트워킹 구축과 공동사업에 참여한 단체는 자조마을공동체형 단체와 지역운동형 단체⁴²⁾로 나타났다. 시소와그네는 2009년 마포희망나눔과 부모교육, 멘토링 활동, 나눔문화 연구모임을 공동으로 수행하였다. 2010년에는 마포지역복지네트워크 앗싸모임에도 참여하고 있다.

—마포희망나눔은 마포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운영하는 시소와그네와 공동사업을 하면서 사업 전문성을 기할 수 있고, 단체의 사업에 대한 공신력을 더 강화할 수 있다고 한다. 이를 시소와그네가 마포희망나눔에 날개를 달아주었다고 표현하고 있다. 마포희망나눔만으로 하기 힘든 사업을 시소와그네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사업에 체계성과 추진력이 생겼다고 한다. 그리고 마포희망나눔이 지역복지시설과 네트워킹하는데 시소와그네가 매개역할을 하였다고 한다⁴³⁾.

40) 조직 개편으로 2011년 3월 설치

4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커뮤니티 임팩트(CI)를 ‘지역사회 자원을 동원하여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에 지속적인 변화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함. CI사업방식은 7단계로 진행됨. 지역사회 관계형성 → 지역사회 주요자원 목록화 → 지역사회 파트너십 형성 → 지역사회 어젠다 합의 → 커뮤니티 임팩트 전략수립 → 지역사회 실행 → 커뮤니티 임팩트 평가(자료 : 시소와그네, 2010, 『시소와그네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 성과보고대회 자료집』).

42) 마포 FM 공동체라디오, 마포희망나눔, 성미산마을극장, 마포민중의 집, 공터.

43) 자료 : 시소와그네, 2010, 『시소와그네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 성과보고대회 자료집』.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굉장한 기대를 했는데 실제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같아요. 구청에다 몇 마디 하고 헤어지는 이런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시소타그네가 정보를 많이 주었어요. 저희가 지역복지 정보를 들을 수 있었던 통로가 되었죠. 부모교육 공동사업을 하니 사업도 업그레이드되었죠. 시소타그네가 마포에 들어오면서 최근 2~3년간 단체들이 네트워킹되고 시너지 효과를 보는 것 같아요. 시소타그네는 상근인력이 많고 전부 사회복지사여서 전문성이 있으면서 공동사업에 헌신적이고, 굿은일도 많이 해주었어요.” (마포희망나눔)

“저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평가를 받고, 연계평가도 받고, 구청 지도감독도 받는데, 복지시설처럼 규범화된 평가를 받지 않아, 공동사업을 하면서 평가실적을 우리 걸로 해야 하는 목심을 부릴 필요가 적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관 간 협력네트워크의 중간 역할을 할 수 있지요. 실적은 네트워크 단체에 주고, 우리는 수면에 안 드러나는 간사 역할을 많이 했죠. 우리도 네트워킹을 통해 예산 절감과 사업 확대 효과를 보고 있어요. 작은 폭뿌리 조직들이 네트워킹을 활성화해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사업에 공공이 기금지원을 해야 한다고 봐요.” (시소타그네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

-마포문화재단은 2011년 들어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들을 연계하여 지역의 문화수준 향상과 문화사업 육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직제 개편을 하면서 지역문화사업팀을 신설하였다. 마포문화재단은 마포구 후원으로 2011년 9월 제1차 마포구 ‘희망나눔페스티벌’을 주최하였다. 희망나눔 페스티벌 프로그램에는 자조마을공동체형 단체와 지역운동형 단체(우리동네 나무그늘)가 참여하였고, 새마을부녀회도 참여하였다.

“희망플러스 통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포구가 성금을 모아야 했는데 구청이

신청해서 재단에서 희망나눔페스티벌을 기획하고 주최할 거죠. 희망나눔페스티벌을 콘서트가 아니라 광장에서 시민축제하 해보자는 의견이 나왔어요. 희망나눔페스티벌을 할 때 음식부스는 부녀회에서 했는데 이는 자치구의 동원력이라 할 수 있고, 재단은 체험부스 참여 단체를 모았고... 자치구가 움직일 수 있는 조직, 재단이 움직일 수 있는 조직 모두 가동이 된 셈이네요. 희망나눔페스티벌은 엄청 흑자를 냈어요. 단체들이 모이는 플랫폼을 계속 만들어가려는 계획을 하고 있어요. 단체들이 동원된다는 느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게끔 하고, 그래서 서로 오려고 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 과제죠. 이번 페스티벌은 준비기간이 너무 짧아서 네트워킹도 급하게 되었고... 그래도 성미산이 있어서 어느 정도 채워주었고... 지금 마포구 내 동아리 파악과 조사를 하고 있어요. 아까추어 단체화 하는 사업이 중인데 재단 파트너를 찾는다고 할 수 있죠. 마포의 장점은 성미산마을에 주민단체가 있고 이게 주변으로 확산된다는 것인데 우리는 이들을 연결만 하면 되는 거죠.” (마포문화재단)

3) 광역형 비영리단체의 역할

○ 공간지원으로 제3섹터 조직의 마포구 입지에 영향

- 마포구에 소재하는 광역형 비영리단체는 마포구에 제3섹터 조직들이 입지하는데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역으로 지역기반형 제3섹터 조직이 광역형 비영리단체를 마포구로 끌어들이는 역할도 하였다. 광역형 비영리단체는 상대적으로 풀뿌리주민조직에 비해 재정과 인력에 여유가 있으므로 공간지원을 통해 제3섹터 조직을 마포구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한다.
- 광역형 비영리시민단체인 여성민우회, 환경정의, 녹색교통,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2007년 성미산마을에 공동사옥을 건립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성미산마을의 지역네트워크가 이들 단체의 마포구 입지 결정에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성미산마을에 이들 단체의 공동사옥 건립

은 성미산마을극장 탄생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

“네 단체 모두 지역운동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마포 지역에 성미산마을 지역 네트워크도 있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었지요. 마칩 성미산마을에서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왔고... 검사검사 해서 오기로 했는데 마칩 적당한 부지도 찾을 수 있었고요. 부동산 가격도 물론 변수이기는 했으나 제일 큰 변수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한경정의)

“우리들 단체 대부분은 중앙정부를 상대로 활동하는 편이고 지역 활동은 이 사안서 천천히 해도 늦지 않으니 우선 함께 한다는 의미로 새로 지을 공간을 마을과 나누어 쓰고 싶다. 무엇을 하면 좋겠는가?” 나는 주저 없이 “극장하자!”고 외쳤다. (유창복, 2010)

-마포구 합정동에 소재한 ‘함께일하는재단’⁴⁴⁾은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을 하고 있다. 재단이 사회적기업을 지향하는 조직들에게 공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들 단체가 마포구에 입지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2011년 10월 현재 12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이 함께일하는재단에 입주해 있다.

-한국여성재단은 2006년에 마포구 서교동에 사옥을 지어 이사를 하였다. 부동산 가격이 마포구 입지에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 시민단체 공간지원 사업을 하지는 않으나 사회적기업 1개가 임대료를 내고 재단 건물에 입주해 있다. 지역단체와의 연계활동이 활발하지는 않으나, 지역단체를 통해 사업홍보를 한다.

44) 함께일하는재단은 1997년 ‘실업극복국민위원회’로 발족하여, 2003년 공익재단법인으로 됨. 2008년 ‘실업극복국민재단 함께일하는사회’에서 ‘함께일하는재단’으로 명칭 변경.

“재단은 마포지역에 국한된 사업을 하지는 않죠. 마포구에 ‘줍다’라는 주부 모임이 있는데 저희가 지원할 사례가 있어요. 저희가 모금기관이니깐 이 인근지역 가게에 동전모금함을 설치하는 동네모금사업은 약간 하고 있고.. 모금캠페인을 할 때 마포 7에서 저희 활동을 소개해주고 하죠. 지역사회에서 정부, 주권, 시민단체가 거버넌스로 지역복지공동체 모델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요즘은 좋은 모델이 만들어지면 다 확산되잖아요.” (한국여성재단)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역할

○ 지역기반형 제3섹터 조직 설립과 운영지원 역할

-마포구의 경우 마포두레생활협 조합원이 5,700가구, 민우회생활협 조합원이 900가구이다⁴⁵⁾. 이 두 개 생활협 조합원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마포구 가구의 3.87%를 차지한다. 최근 생활협동조합은 조합원과 유통망을 발판으로 마을기업을 만들어내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2011년부터 복지기금을 만들어 풀뿌리조직들이 지역에서 복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하였다.

-두레생활협은 2008년 4개 지역두레생활협이 연합하여 지역사회 돌봄사업 구축과 확산을 지원하는 두레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공동 지원하고 있다. 생활협동조합은 주로 여성들로 구성된 마을기업(두레, 워커스 컬렉티브라고 부름)의 생산품을 유통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생활협동조합이 마을기업 설립과 운영지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마포두레생활협은 ‘돌봄두레어깨동무’ 설립 과정에서부터 현재 운영에 이르기까지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마포두레생활협은 2011년 7월부터 ‘돌봄기금’ 사업을 하고 있다. 돌봄기금

45) 마포두레생활협동조합, 여성민우회생활협동조합연합회 내부자료.

사용처는 돌봄두레어깨동무 운영 지원, 보험혜택에서 제외된 노인들의 돌봄후원, 돌봄문화 확산, 다기능 세대통합형 마포두레 돌봄센터 설립으로 정하고 있다. 기금은 조합원 월 1,000원 기금, 생활재 기금, 특별기금⁴⁶⁾으로 구성된다.

-여성민우회생협연합회⁴⁷⁾는 시민들이 직접 생활 속 어려움을 해결하는 복지사업에 사용할 종자돈 마련을 목적으로 2010년 9월부터 조합원 월 1,000원 ‘협동복지기금’을 모금하였다. 협동복지는 정부나 기업에서 다루지 않아 개인적으로 해결해야만 했던 여러 생활 속 문제를 시민들이 협동을 통해 서로 거들고 돕는 복지시스템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성민우회생협연합회는 2011년 8월 협동복지기금으로 시민참여형 협동복지사업 공모사업을 하였다⁴⁸⁾. 협동복지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상호적 복지활동 모델을 확산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05년부터 고령화 사회에서 생협이 무엇을 할 것인가? 준비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월례포럼 방식으로 공부를 했어요. 구체적인 사업의 하나로 협동복지사업을 시작한 것이라 할 수 있죠. 생협에서 이전부터 마을모임프로젝트를 했는데, 마을모임에서 지역사회 장애인복지관이나 지역아동센터에 기부하는 사례들이 있었고, 이것 체계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저희는 가끔적 보통 모금기관에서 지원을 못하는 개인으로 모임 작은 조직을 지원하려고 해요.” (여성민우회생협연합회)

46) 생활재 기금은 조합원의 생활에 필요한 돌봄생활재, 일반기획 생활재를 개발하고 기금 생활재로 지정하여, 구매금액의 5%를 기금으로 적립함. 특별기금은 돌봄기금 조성에 특별히 기여하고자 하는 조합원, 생협운동 관계자, 지역주민들이 후원함.

47) 2011년 여성민우회생협연합회가 창립되었고 연합회는 민우회 지역생협 5개가 가입함.

48) 복지기금사업비는 총 1,000만원이며, 단체 개별사업당 2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함.

제5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요약 및 정책 시사점

제2절 정책 제언

제 5 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요약 및 정책 시사점

1. 제3섹터 조직 규모와 활동분야

1) 비영리민간단체와 사회적 경제 조직의 증가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대 들어 복지혼합 차원에서 복지공급 주체의 한 축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제3섹터 조직인 비영리민간단체와 사회적 경제 조직이 증가하고 있다. 자료 시점이 다르기는 하나 행정안전부 등록 비영리민간단체(2011년), 한국민간단체총람(2009년), 사회복지법인(2010년) 등의 세 자료를 활용한 결과, 서울에는 약 3,691개의 비영리민간단체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2000년대 이후 설립된 단체가 62.1%를 차지하며, 최근 5년간(2006년~2011년) 단체 수가 1.6배 증가하고 있어, 2000년대 후반기 들어 비영리민간단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3년부터 시작된 중앙정부의 사회적일자리사업에 이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2007년), 행정안전부 마을기업지원사업(2010년),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사업(2009년) 등에 힘입어 사회적 경제 조직이 증가하고 있다. 2011년 자료로 월별 시점에 차이가 있으나 서울에는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640개의 사회적 경제 사업체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민간단체와 사회적 경제 사업체 중 중복단체를 제외하면 서울에는 4,219개의 제3섹터 조직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 제3섹터 조직의 복지활동 참여 활발

- 서울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분야는 보건·복지·장애 분야가 16.8%로 가장 높으며, 자원봉사 분야가 6.2%로 나타났다. 한국민간단체총람자료를 활용할 경우에도 서울 소재 민간단체의 활동분야 중 복지 분야가 20.8%로 가장 높고, 자원봉사 분야는 4.8%로 조사되었다. 비영리민간조직의 약 20%가 복지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예비)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 제공, 이윤의 사회적 환원을 목적으로 수익활동을 하고 있는 만큼, 비영리민간단체와 다른 방식으로 복지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지역기반 제3섹터 조직의 유형과 특성

- 마포구 소재 비영리민간단체 및 사회적 경제 조직 사례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제3섹터 조직 유형과 복지활동 특성이 나타났다. 마포구에는 서울시 제3섹터 조직의 8.4%인 354개가 입지해 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종로구(17.2%), 중구(8.1%), 마포구(8.0%) 순으로 비중이 높았고, 사회적 경제 조직은 마포구(11.0%), 종로구(9.5%), 영등포구(7.8%)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1) 지역기반형 제3섹터 조직 비중이 낮음

- 제3섹터 조직을 활동영역 기준으로 광역형(수도권, 전국), 지역기반형(마포구)으로 구분하여, 공식자료(행정안전부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한국민간단체총람, 행정내부자료)를 활용한 경우에는 지역기반형 단체가 7.3%, 광역형단체가 92.7%로 나타났다. 앞의 공식자료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으나 이 연구에서 찾아낸 단체를 포함한 경우에는 지역기반형 단체가 12.1%, 광역형 단체가 87.9%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에 기반한 풀뿌리 단체 비중이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편, 공식자료로 지역기반형 풀뿌리 단체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 지역기반형 제3섹터 조직의 유형

- 조직 설립과정과 주체를 기준으로 지역기반형 제3섹터 조직은 다음 네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공동육아협동조합 등의 자조활동으로 형성된 사회적 자본이 다양한 지역주민단체로 확대 재생산된 것으로 이 연구에서는 자조마을공동체형으로 부르고 있다. 성미산마을로 불리는 성산1동에 활동거점을 두고 있는 조직들이 이 유형에 해당한다. 두 번째 유형은 마포구민, 마포구 소재 노동조합, 시민단체, 진보정당 당원 등 다양한 지역주체들이 참가하여 지역운동 차원에서 조직을 결성한 것으로, 여기서는 지역운동형으로 일컫고 있다. 세 번째 유형은 주민자치센터 공무원 지원을 받아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부녀회, 아파트부녀회 등 기존 주민자치조직에서 별도의 단체를 설립한 것으로, 여기서는 주민자치위원회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네 번째 유형은 평생교육기관 운영자와 성인학생들이 봉사활동을 목적으로 단체를 결성한 것으로, 여기서는 기관부설형이라 하고 있다.

3) 조직유형별 네트워크와 활동방식

- 자조마을공동체형은 주민의 필요에 의해 한 지역에서 약 17년에 걸쳐 다양한 유형의 조직활동을 주체적으로 해온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내 조직은 물론 공공과 광역형 비영리민간단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관계망을 구축하고 있다. 광범위한 관계망을 토대로 자조마을공동체형 조직은 마포구 내 제3섹터 조직의 허브 기능과 지원 역할을 일정 부분 수행하고 있다. 네트워크 내용은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등의 강도 높은 협력관계 수준에 이르고 있다.
- 지역운동형은 최근 1~3년 사이에 단체 활동을 시작하였고, 단체의 법적 지위가 없어서 공공사업에 참여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 여타 단체들과 관계망 구축에 적극적이며, 민간재단의 기금공모사업에 참여하기도 한다. 지역운동형 조직은 지역활동 경험이 축적된 자조마을공동체형 조직으로부터 단체 운영 노하우(know-how)나 자금 등의 지원을 받기도 한다.
- 주민자치위원회형은 주민자치센터와 긴밀한 협력관계망을 가지고 있으며,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부녀회와 네트워크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 여타 제3섹터 조직과의 교류는 하지 않고 있다.
- 기관부설형은 단체의 모태가 된 평생교육기관을 통해 지속적인 회원 층원이 가능한 구조이다. 단체 활동 핵심이 취약계층에 성금 전달과 자원 봉사이므로 지역복지시설과 주민자치센터와는 교류가 있으나, 지역의 여타 제3섹터 조직과의 교류는 없다.

3. 지역기반 제3섹터 조직의 복지활동 기여 및 한계점

1) 조직 유형별 복지활동 특성

- 자조마을공동체형은 주민들이 수평적·자조적 방식으로 보육과 돌봄,

교육, 보건, 문화 등의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자체 공급하고 있으며, 이런 자조적 복지활동이 지역의 취약계층 주민을 대상으로 확대되는 특징이 있다. 또한 단계 복지사업 방향으로 상호적 복지활동을 강조하고, 제도권 밖의 취약계층 주민 대상의 복지활동을 명시하고 있다.

- 지역운동형도 자조적 방식의 복지활동을 지향하고 있으며, 방과 후 돌봄과 같은 일부 서비스는 제도권 수혜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으로 한정하여 공공과 역할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복지서비스 수혜자는 일반주민, 노인, 청년 1인 가구, 아동·청소년, 장애인, 저소득층 등으로 다양하다.
- 주민자치위원회형은 저소득층 독거노인 식사대접과 반찬배달 사업을 하고 있다. 기관부설형은 저소득층 노인 식사 대접 외에 저소득층 성금 지원, 장애인복지기관 후원 등의 자선적 복지활동에 초점을 두고 있다.

2) 복지활동 기여와 역할

○ 복지영역의 확대와 시너지 효과

- 제3섹터 조직으로 비영리민간단체 이외에 최근 몇 년간 사회적 경제 조직이 증가하면서 복지공급 시스템이 복잡해지고 있다. 사회적 경제 조직은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해 수익금으로 비영리민간단체 복지사업을 후원하거나, 수익금으로 복지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도 한다. 환경, 문화 등 다양한 영역의 제3섹터 조직들이 사회복지분야 단체와 연계하여 취약계층 주거와 에너지복지사업, 문화복지사업을 추진하여 복지 영역이 확대되고 복지사업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 제도 복지 보완과 복지사각지대 해소 가능성

- 제3섹터 조직은 공공과 달리 정해진 규정이나 제도에 크게 매이지 않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제도권 밖의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위한 복지활동 및 현장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복지활동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 사회적 배제 해소와 사회통합 매개 역할

— 제3섹터 조직의 복지활동은 취약계층의 물질 결핍 해소 이외에 취약계층을 지역사회로 불러내고,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사회적 배제 해소와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지역사회 특성과 틈새 복지수요에 대처

— 지역사회 수요가 있으나 제도권 복지에서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사업들을 하고 있다.

3) 복지활동 한계점

○ 장시간 지속성을 요하는 돌봄 복지서비스 제공의 어려움

— 제3섹터 조직의 취약계층 대상 교육, 상담, 의료, 급식, 집수리, 문화 사업은 주민 자원봉사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장시간에 지속성을 요하는 노인돌봄서비스는 제3섹터 조직에서 품앗이나 자원봉사방식으로 제공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거동이 힘든 재가노인 돌봄은 장시간 노동에 노동 강도가 높고 보육이나 방과후교실과 같은 돌봄서비스에 비해 1인당 돌봄 비용이 높아 제3섹터 차원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복지서비스로 파악되었다.

○ 서비스 중단 가능성

— 주민 재능기부 및 기금사업을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자원봉사자가 활동을 그만두거나, 기금지원을 받지 못하면 서비스가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 상근인력 및 재정 제약으로 서비스 규모의 한계

— 상근활동자가 대부분 1명이거나 없는 경우도 있어, 제3섹터 조직이 제공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규모에는 한계가 있다.

4. 지역기반 제3섹터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주체

1) 공공부문

—중앙 및 지방정부는 정책이나 공무원을 통해 지역기반 제3섹터 조직 설립과 운영 활성화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한편, 제3섹터 조직을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 공공지원 비영리기관

—공공의 예산지원으로 운영되는 비영리기관들은 다양한 유형의 제3섹터 조직을 네트워킹하는 허브 기능과 지원 역할을 하고 있다.

3) 광역형 비영리민간단체

—광역형 비영리민간단체는 지역사회 내 제3섹터 조직 설립을 지원하거나, 지역운동 차원에서 지역기반 3섹터 조직들과 공동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마을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과 같은 별도의 사회적 경제 조직을 재생산하고 있다. 그리고 복지기금을 조성하여 지역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소규모지역단체에게 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제2절 정책 제언

—지역기반 제3섹터 조직의 발전과 복지활동 활성화를 위해 두 가지 차원

에서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서울에는 마을공동체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지역기반형 제3섹터 조직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지역기반 제3섹터 조직 형성과정에서의 공공 역할에 대한 제언을 하고 있다. 두 번째는 지역기반 제3섹터 조직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활동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공공 협력시스템에 대한 제언을 한다.

1. 지역기반 제3섹터 조직 형성과 공공의 역할

1) 현황과 쟁점

- 마포구 사례연구에 의하면 제3섹터 조직 중에서 동이나 구 단위의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지역기반형 제3섹터 조직이 전체 조직의 약 10% 내외로 나타나, 그 비중이 높다고는 할 수 없다. 지역기반형 제3섹터 조직의 동별 분포에도 격차가 있어 성산1동에는 17개의 지역기반형 단체가 활동하고 있는 반면, 지역기반형 제3섹터 조직활동이 없는 동도 4개로 나타났다. 지역기반형 제3섹터 조직들이 행정동을 기준으로 활동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기반형 제3섹터 조직이 많이 입지하고 있는 행정동일수록 그 지역 주민들의 단체 참여율이나 활동 가능성은 커진다고 할 수 있다. 마포구는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의 8.0%, 사회적 경제 조직의 11.0%가 입지하고 있어 종로구 다음으로 제3섹터 조직이 가장 많이 활동하고 있는 자치구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마포구에 비해 제3섹터 조직이 상대적으로 적게 입지한 중랑구, 금천구, 도봉구, 노원구, 강동구, 양천구 등은 지역기반형 제3섹터 조직의 수는 더 적고, 지역기반형 제3섹터 조직이 없는 동도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 지역기반형 제3섹터 조직의 결성 원동력은 주민 자발성이지만, 마포구 사례연구에 의하면 공공이 일부 제3섹터 조직 설립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었다. 주민자치센터의 지원을 받아 주민자치위원회나 새마을부녀회 등의 기존 주민자치조직이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마을기업,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받거나, 별도의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을 한 사례들이 있었다. 이런 유형의 조직으로 5개가 파악되었는데 이 중 4개는 사회적 경제 사업체(마을기업 3개,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1개)로, 1개 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로 활동하고 있었다. 동 단위로 추진되고 있는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사업의 파트너 역할을 할 수 있는 제3섹터 조직을 동에서 찾기 어려울 경우, 주민자치센터 공무원이 기존 주민자치조직에서 새로운 단체를 결성하도록 유도, 지원한 것이다. 제3섹터 조직에 대한 공공의 관여와 지원이 제3섹터 조직 발전에 기여한다는 입장이 있는 한편, 제3섹터 원동력인 자발성을 약화시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도 있다.

-지역기반 제3섹터 조직은 주민생활과 지역의 문제를 자치와 상호호혜, 협력에 기반하여 해결해 나가는 마을공동체 형성의 매개 역할을 한다. 서울의 경우 기존 주거지와 주민을 해체시키는 개발 사업이 도심 전역에 걸쳐 지속적으로 진행되면서 마을공동체를 이루는 물적 기반을 약화시켰고, 이는 지역기반형 제3섹터 조직 형성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연구는 마을공동체 형성의 매개역할을 하는 지역기반형 제3섹터 조직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서울의 상황에서 제3섹터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공공의 관여와 지원이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마포구 사례연구에 의하면 지역단체 설립에 학습효과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예로 성산1동 성미산마을을 중심으로 15여년 넘게 축적된 주민단체활동과 성과가 지역사회에 알려지면서 학습효과를 통해 마포구에 새로운 제3섹터 조직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이처럼 지역기반형 제3섹터 조직 설립에 학습효과가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공공이 학습효과 확산을 지원하는 전략으로 지역기반형 제3섹터 조직 형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2) 제언

- 지역기반 제3섹터 조직을 확충하기 위해 서울시, 자치구, 주민자치센터는 지역특성과 조직유형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확충 및 지원전략을 취할 수 있다.
- 첫째, 시민단체가 없거나 주민활동이 약한 지역사회에서는 공공이 기존 주민자치조직을 지원하여 새로운 조직 설립을 유도하는 전략을 취할 수 있다. 주민자치위원회나 새마을부녀회 등의 기존 주민자치조직이 주민 대표성을 가진다고 하나, 참여 인원수가 한정되어 있고, 구성원 충원방식도 폐쇄적인 측면이 있다. 그리고 주민자치조직의 사업 파트너가 주민자치센터와 구청에 국한되는 측면이 있어 주민자치조직과 마을주민 간의 접촉점 또한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기존 주민자치조직에서 지역의 문제 해결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유형의 제3섹터 조직을 만들어 활동할 경우, 지역 활동에 참여하는 주민이 늘어나고 주민들 간 교류가 촉진될 가능성이 커진다. 복지수요가 많으나 재정자립도가 낮고 지역기반형 제3섹터 조직 활동도 미흡한 자치구의 경우에는 전략적으로 기존 주민자치조직을 기반으로 새로운 유형의 단체를 파생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 공공(서울시, 자치구,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은 주민자치조직 위원이나 주민을 대상으로 여타 지역의 제3섹터 조직 활동 모범사례 소개, 강좌, 탐방프로그램 지원을 하는 것이다. 교육 및 논의 과정을 거쳐 새로운 주민조직 설립단계에서는 조직의 법적 형태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부터, 공간지원, 활동자 리더십 교육과 운영 컨설팅 등까지의 지원 사업을 한다.
- 서울시가 주민자치조직위원이나 주민 대상의 교육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자치구나 주민자치센터의 교육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전문가 파견과 교육 사업을 하도록 한다. 서울시는 단체설립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조

직의 법적 지위와 요건에 대한 상담, 활동자 교육, 운영컨설팅 등의 지원 사업도 병행하도록 한다. 서울시는 2012년 1월 1일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서울혁신기획관하에 마을공동체담당관을 신설하였다. 마을공동체담당관이 지역기반형 제3섹터 설립 관련 주민 교육 및 컨설팅 지원사업의 주무 부서가 되어 행정국 행정과와 협력하여 이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둘째, 지역기반 제3섹터 조직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의 평생교육기관이나 문화·복지시설을 전략거점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있다. 지역의 교육·문화·복지시설 프로그램에 주민들이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참여자 상호 간의 신뢰가 형성되고, 이것이 동아리나 단체 결성 단계로 이어질 수 있다. 지역사회 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기관에 대한 주민 신뢰가 형성되기 때문에 시설 운영자가 단체 결성의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다. 마포구 사례연구에서도 지역의 평생교육기관을 기반으로 20여 년 동안 지역사회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있었다. 사회복지관도 영구임대주택단지 주민의 단체 활동을 조직하고 지원하고 있었다. 또한 교육·문화·복지시설 운영자 지원으로 지역사회 시설을 기반으로 사회적 경제 조직이나 풀뿌리비영리단체가 만들어지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 지역기반 제3섹터 조직을 확충할 필요가 있는 자치구는 지역의 교육·문화·복지시설이 제3섹터 조직 결성을 촉진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자치구는 관내의 지역사회 시설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주민조직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며, 서울시와 자치구는 단체 형성을 위해 시설 운영자와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셋째, 최근 증가하고 있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기반으로 새로운 유형의 제3섹터 조직들이 파생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략이 있다. 최근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이 두레(일본에서는 워커스 컬렉티브(workers' collective)로 부름)를 구성하여 지역사회에서

복지활동을 하거나 마을기업을 운영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마포구 사례연구에서도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통해 새로운 유형의 지역기반형 제3섹터들이 파생되고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협동조합기본법」이 2012년 1월 26일 제정됨에 따라 지역사회 공헌과 지역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서울시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기반으로 다양한 유형의 제3섹터 조직이 파생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서울시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또는 연합회)은 새로운 제3섹터 조직(두레, 워커스 컬렉티브,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촉진하는 홍보·교육 사업을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고, 서울시는 필요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

2. 지역기반 제3섹터 조직과 공공의 협력체계

—지역기반 제3섹터 조직과 공공의 협력체계는 우선 복지활동 대상자와 복지서비스 유형에 따른 역할분담을 들 수 있다.

1) 제3섹터 조직과 공공의 복지활동 역할분담

○복지서비스 대상자

—사례연구에 의하면 지역기반 제3섹터 조직은 제한적이기는 하나 제도권 복지 밖에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복지 서비스나 물적 지원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역사회수요가 있으나 제도권에서 대응하거나 제공하기 어려운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어 제도권 복지의 보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 선정 기준의 엄격성과 경직성으로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이 많은 현 상황을 고려해 공공과 제3섹터 조직의 복지수혜대상자를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 자치구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제3섹터 조직과 협의하여 제3섹터 조직이 복지활동 대상으로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에 초점을 둘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에서 복지활동을 하고 있는 제3섹터 조직을 자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원으로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자치구는 제3섹터 조직이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법정계획인 자치구 지역사회복지계획에서는 지역기반 제3섹터 조직의 복지활동과 자치구의 복지활동 차별화 전략을 제시하고 복지자원 동원계획과 함께 배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에서 복지활동을 하고 있는 제3섹터 조직이 자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자치구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한 주체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 복지서비스 유형

- 지역기반형 제3섹터 조직에서 주민 재능 기부나 자원봉사로 제공이 용이한 복지서비스와 그렇지 못한 서비스가 있다. 교육·문화사업, 상담, 일시의료, 급식, 집수리 지원 사업은 주민 재능기부를 통해 제3섹터 조직에서 제공하고 있거나 가능한 서비스이다. 반면 장시간 반복적이고 지속성을 요구하는 돌봄서비스는 제3섹터 조직이 자원봉사로 제공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서비스는 양육아동을 둔 부모들이 협동조합 방식으로 자체 공급하거나, 취약계층 아동 대상의 무료 방과 후 보육은 상근교사를 고용하여 제공되고 있다. 돌봄서비스 중에서 제3섹터 조직이 자원봉사로 무료로 특히 제공하기 어려운 서비스는 와병 중인 재가노인 돌봄서비스로 파악되었다. 무료 방과 후 보육서비스의 경우 2명의 상근교사가 약 20여명의 아동을 공동공간에서 돌볼 수 있기 때문에 아동 1인당 투여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아,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제3섹터 조직

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재가와병노인 돌봄서비스는 요양보호사 1명이 개별 가정을 방문하여 1명의 노인을 장시간 돌보아야 하는 노동 강도가 높은 서비스이므로, 노인 1인당 투여비용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장기요양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거나 자부담을 못해 요양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제3섹터 조직이 자원봉사로 후원금만으로 무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 복지서비스 유형에 따른 공공과 제3섹터 조직의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지역기반 제3섹터 조직은 자원봉사나 재능기부로 제공이 가능한 교육, 문화, 상담, 급식, 집수리, 멘토링 등의 서비스나 비용부담이 가능한 방과 후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따라서 공공은 자원봉사만으로 감당하기 어렵고 비용부담이 큰 재가노인 및 재가장애인 돌봄서비스 제공에 복지예산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2) 정보 교류 및 만남의 장 매개 역할

○주민 홍보와 정보 제공

- 지역기반 제3섹터 조직은 주민의 후원과 참여로 운영된다. 주민들에게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제3섹터 조직에 대한 홍보와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제3섹터 조직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치구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제3섹터 조직의 위치와 활동을 소개한 종합안내책자를 발간하여 주민에게 배포한다.
- 2011년 마포구 요청으로 마포문화재단이 처음으로 시도한 제1회 나눔페스티벌처럼 관내의 제3섹터 조직들이 모두 참여하는 행사를 매년 정례화하는 방안도 있다. 협동조합의 날, 사회적기업 주간에 사회적 경제 조직과 비영리민간단체를 포함한 제3섹터 한마당을 개최하여 행사의 시너지 효과를 거두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 제3섹터 조직 간 네트워크 사업의 지원 역할

—지역기반형 제3섹터 조직들은 상근인력과 물적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런 제약조건에서 활동성과와 지역사회의 복지활동 파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체 간 정보 및 자원공유, 공동사업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나 자치구는 제3섹터 조직이 정례적으로 만나서 정보교류를 할 수 있는 모임이나 만남의 장을 매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서울시나 자치구는 제3섹터 조직 간 네트워크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사업은 공공이 지원하는 복지·문화·교육 시설과 제3섹터 조직들이 주관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참고문헌

- 김기태 역, 2011, “복지혼합과 복지의 사회적 분화”, 『복지혼합』, 나눔의집(Martin Powell, 2007, the mixed economy of welfare and the social division of welfare, *Understanding the Mixed Economy of Welfare*, the Policy Press and the Social Policy Association).
- 김기태 역, 2011, “역사 속의 복지혼합”, 『복지혼합』, 나눔의집(John Stewart, 2007, The mixed economy of welfare in historical context, *Understanding the Mixed Economy of Welfare*, the Policy Press and the Social Policy Association).
- 김기태 역, 2011, “자원복지와 지역복지”, 『복지혼합』, 나눔의집(Pete Alcock and Duncan Scott, 2007, The voluntary and community sector, *Understanding the Mixed Economy of Welfare*, the Policy Press and the Social Policy Association).
- 김기태 역, 2011, 『복지혼합』, 나눔의집(Martin Powell et al., 2007, *Understanding the Mixed Economy of Welfare*, the Policy Press and the Social Policy Association).
- 김수현 · 박은철, 2000, 『서울시와 NGO의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사례연구』, 서울시 정개발연구원.
- 김혜원 외, 2009, 『제3섹터 부문의 고용창출 실증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노대명 외, 2009, 『보건복지부문 제3섹터에 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노대명 외, 2010, 『한국 제3섹터 육성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혜연 · 이상현 역, 2007,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커뮤니티비즈니스』, 아르케(호소우치 노부타카(細内信孝), 2001, *CHIKI O GENKI NI SURU COMMUNITY BUSINESS*, Gyosei Corporation).

- 보건복지부, 2009, 『제2기(2011-2014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매뉴얼』.
- 송창석 외, 2010, 『주민들이 만든 동네개혁 스토리북』, 중구청.
- 시민운동정보센터·재외동포신문사, 2009, 『한국민간단체총람』, 시민운동정보센터.
- 신경희, 2007, 『지역사회기반 여성의 사회적 일자리 활성화 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유창복, 2010, 『우린 마을에서 논다』, 또하나의문화.
- 임성근 역, 2003, 『복지국가전략: 스웨덴모델의 정치경제학』, 논형(미야모토 타로(宮本太郎), 1999, 『福祉國家という戦略: スウェーデンモデルの政治経済學』, 法律文化社).
- 임성근 역, 2011, 『복지정치: 일본의 생활보장과 민주주의』, 논형(미야모토 타로(宮本太郎) 『福祉政治: 日本の生活保障とデモクラシー』, 有斐閣).
- 장원봉, 2006, 『사회적 경제의 이론과 실제』, 나눔의집.
- 희망제작소, 2010, 『지역순환형 사회를 지향하는 커뮤니티비즈니스 전략포럼』, 희망제작소.

<http://www.moleg.go.kr>(법제처)

<http://www.mopas.go.kr>(행정안전부)

<http://www.mw.go.kr>(보건복지부)

<http://www.socialenterprise.or.kr>(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영문 요약 (Abstract)



A Study on the Social Welfare Activities of Community-based Third Sector Organizations

Kyung-Hee Shin · Soon-Joo Jung

In Korea, the number of 3rd sector organizations are increasing, which is a part of the social welfare system that has received attention since the early 2000s. This study utilizes official and unofficial documents and assumes that around 4,200 organizations are working actively in Seoul. About 20% of nonprofit organizations in Seoul are working in the social welfare field. And social economic organizations are working to create jobs for the weak, offer social services, and use the profits for the benefit of society. It seems that the 3rd sector organization's participation in social welfare field is going well.

This study analyzes the social welfare activities of a 3rd sector organization in Mapo-gu through a case study. The strength and potential of the 3rd sector organization are as follows. Firstly, the 3rd sector organization has the potential to take care of residents who do not receive welfare services from the government. Secondly, due to the welfare business of the 3rd sector organization,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weak and local residents are built, thus helping the weak participate in society. Thirdly, the 3rd sector organizations of the social welfare field are now expanding their domain by making connections with each other to provide various kinds of welfare services, such as energy welfare programs or cultural programs. Fourthly, they are also propelling niche programs that the community demands but were not possible for the government to provide.

There are several limitations for the social welfare activities of the 3rd sector organization. Firstly, with the voluntary way the 3rd sector organization has appeared, it is hard to provide services for the elderly who are unable to

take care of themselves. This service requires high costs and consistency, so it is hard to be actualized. A second limitation is the possibility of stopping the welfare services that are provided by the 3rd sector organization. Generally, the 3rd sector organizations utilize volunteers and enterprise funds to provide the services. However, if this outside support gets cut, it is possible that the service being provided would be interrupted as well. Thirdly, most of the community-based 3rd sector organizations have only one employee who covers the group tasks as well as the small scaled budget system, thus the services provided by the organization are restricted.

Recently, the social welfare state is a big issue for our society. It is assumed that the role of the 3rd sector organization will be expanded in the near future. This study started with a lack of information on the 3rd sector organization's social welfare activities. Under this circumstance, this study reveals the potential and limitations of the 3rd sector organizations' social welfare activities by utilizing a case study which is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시정연 2011-PR-46

지역기반 제3섹터 조직의 복지활동과 발전방안

발행인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발행일 2011년 12월 31일

발행처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37-071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전화 (02)2149-1234 팩스 (02)2149-1025

값 6,000원 ISBN 978-89-8052-860-8 93330

본 출판물의 저작권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속합니다.